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 청년생활





2
195

# 청년생활

제 2 호 (65)

195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 제二호 내용

# 인민군대는 청년들의 훌륭한 학교

공화국 영웅 전기철

영웅적 조선 인민군은 전체 조선 인민과 더불어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의 장엄한 로력적 투쟁의 환경속에서 자기의 창건 七주년을 뜻깊게 기념한다。

조선 인민군은 조선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이며 조국 보위의 튼튼한 성벽이다。

인민군대는 해방후 조선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행복의 락원—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굳건히 수호하였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군은 그가 진정한 인민의 무력이며 조국 방위의 성벽으로 자기의 모든 힘과 생명을 바쳐 어느때나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 할 수 있는 불패의 군대이라는 것을 보이여 주었다。

조선 인민군대가 걸어온 지난 七년간의 행로는 승리와 영광과 찬란한 전투적 전통으로 가득찬 력사였다。

조선 인민군의 영예로운 대오속에 망라된 우리조국의 수많은 아들딸들은 승리에 자만함이 없이 조국의 방선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전후 인민 경제 복구건설의 창조적 로력성과들을 경각성있게 수호하고 있으며 자기의 군사 정치 지식의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

공민의 최고 영예이며 의무인 조국보위의 초소에 나서면서 청년들은 영예롭고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군사적 복무를 충실히 수행할데 대한 군인선서를 엄숙히 실시한다。

인민군대내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장구한 항일 빨찌산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투적 전통을 계승한 인민군 전사된 영예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군인선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며 세련되고 단련된 군인으로 육성발전되여 나간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는 인민군 전투력의 강화와 군인대중들의 정치 사상적 장성에 부단한 배려를 돌리고 계시며 그의 지도는 인민군 군인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용감성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인민군대의 모든 생활은 청년들의 군사적 및 정치 사상적 교양과 문화적 장성과 단련의 생활이며 인민군대는 청년들을 고상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일관한 정치 도덕적 품성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 있다。

인민군대내에는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교육 교양하기 위한 학습 체계들이 수립되여 있으며 매개 군인들은 각급 학습조들에 망라되여 체계적이며 정기적인 교육들을 받고있다。

그들은 이 학습조들에서 선진적인 맑쓰—레닌주의 과학 리론을 배우며 우리조국의 찬란한 력사와 미래를 알게되며 조국의 행복한 앞날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투쟁 과업을 배우며 그를 실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민군대내 청년들은 부단히 각급 지휘관들과 정치 일꾼들로부터 국내외의 정세들과 당과 정부의 제 결정들에 관한 강연、보고、담화들을 청취하며 구락부와 군중교양사업실들을 통하여 부대의 전투적 전통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된다。 동시에 인민군대 내에는 청년군인들이 자체로 학습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들이 보장되여있다。

련합부대와 부대들에는 도서실들이 설치되여 있으며 매개 구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적들이 배당되고 있다。

이것들은 어느때나 군인들의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다방면적인 방조들 주고 있는바 군중 문화 시간이나 휴식일에 도서실은 언제나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수다한 군인들과 자기들이 본 책에 대하여 감상을 교환하고 있는 군인들의 그루빠들로써 가득차 있다。

하루의 훈련을 끝마치고 군중 교양 사업실에 단락하게 모여 앉은 청년군인들속에서 우리는 지휘관과 당、민청 단체들의 방조하에 정치 지식 뿐만아니라 일반 지식수준을 훨씬 제고하고 문학 작품을 읽거나 자기의 생활기를 쓰고 있는 수다한 전사들을 만나게된다。

일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상등병 김원삼동무는 암흑한 리승만 통치하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으며 입대전까지 문맹자였다。 인민군대에 입대한 그에게 전우들은 그의 문맹퇴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조를 다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자기의 문맹을 퇴치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단념하던 그는 근기있는 동지들의 방조와 당과 민청단체들의 친절한 지도에 의하여 벌써 오래전에 문맹을 퇴치하였을뿐만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자기가 쓴 시『전우』『조국의 아침』등을 합평회에 제출하기에까지 되였다。

동시에 인민군대내에서 청년군인들은 지휘관과 정치기관 당 단체의 지도와 민청단체의 조직 생활을 통하여 정치 사상적으로 장성발전되고있다。

민청단체의 온갖 활동은 군인대중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며 그들을 부과된 전투적 과업 수행에서의 모범 군인으로 교양 육성 하고있다。 이런 제 과정들을 통하여 청년군인들은 고상한 조국애와 정치 도덕적 품성으로 무장되며 미제와 리승만 도당에 대한 적개심은 가일층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군인들의 정치 사상적 단련과 조국애의 장성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행정에서 여실히 실증되였으며 수 많은 청년군인들이 전쟁의 불길속에서 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조국 해방 전쟁 행정에서 인민군대내 청년군인들은『미제 강점자들을 박멸하고 그들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앞으로』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호소에 한결같이 궐기하여 미제를 위시한 원쑤들과의 결전장에서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였다。

조선의 마뜨로쏘브들인 김창궐、황순복、리수복、김명철、리명식、박원진 등 수다한 청년군인들이 자기의 청춘을 아낌없이 조국에 바쳤다。

민청원인 마뜨로쏘브 리수복영웅의 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 있다。

『나는 해방된 조선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그보다 조국의 운명은 더욱 귀중하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희망、고귀한 생명、큰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애국정신인가!

이들이 발휘한 고귀한 애국적 정열은 오늘 조선인민군대내 전체 청년군인들의 혈관속에 맥박치고 있으며 그들의 이름은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승 기념관에 전시된 탄환에 관통되고 선혈로 무젖은 당증과 맹원증、 민청 모범깃발은 인민군대내 청년군인들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였으며 수령의 부름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오늘 인민군대내에는 수백종에 달하는 무기및 전투기재『민청호』들이 있다。

이 무기와 전투 기재속에는 민청원들과 청년군인들이 조국과 당과 수령을 위하여 바친 고귀한 피와 땀과 노력이 스며있다。

첫『민청호』인 중기 一二三六호의 사수 공화국 영웅 조근실의 이름은 오늘 청년들 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입대전 원산 고급중학교 학생이던 그는 입대한 첫날부터 자기 무기 애호에서 가장 모범적이였으며 전투에서는 용감한 투사였다。

가렬하였던 九〇二·四고지 쟁탈전에서 一八세의 민청원 조근실은 적들의 발악적 공격을 여섯차례나 물리치고 두팔、다리에 중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근실은 『내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나의 중기는 결코 복수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조선 로동당 만세!』『김일성 원수 만세!』를 웨치면서 중기의 앞철을 이빨로 눌러 최후의 순간까지 원쑤를 소멸하고 구분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하였다。

一、二一一고지 전투의 격전속에서 자기의 고귀한 최후를 바치면서 포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음 『나는 포장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소 계속 사격! 조선 로동당 만세! 김일성 원수 만세! 복수탄으로 사격!』하고 유언을 남긴 젊은 로동당원 로태진 포장의 뜻을 이여 여러차례에 걸친 적들의 반격을 물리친『민청호 로태진 복수의 포』라든가 조국의 해안을 철벽같이 지켜 一四개의 대 소 함선을 격침시키고 一四개의 별을 포신에 사긴『민청호 해안포 六호』라든가 자기 몸으로 사랑하는 전투 기재를 보호하고 작전 통신을 보장한『민청호 무전기 六七五九호』의 무선기장과 무전수들의 투쟁등은 청년군인들의 애국적 헌신성의 표증으로 되고 있다。

× ×

인민군대내에서 청년군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쏘베트 군사 과학에 기초한 훌륭한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있다。

조국 보위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현대적 군사 기술의 습득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다。

우리조국 남반부에 원쑤들이 남아있으며 리승만 매국도당이『북진』을 떠 버리며 괴뢰군의 증강을 획책하는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의 군사 기술 소유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

인민군대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전투훈련은 청년군인들에게 조국을 위하여 더 훌륭히 복무할 수 있는 만단의 군사적 준비를 갖추어주며 세계에서 제一등급의 무기를 다룰수 있는 기술을 소유시킨다。

오늘 인민군대내 청년군인들은 전후 인민 군대를 간부 군대로 육성강화할데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교시에 더욱 충실하면서 자기 무기와 전투기재에 더욱 정통할뿐만아니라 보다 높은 군사 기술을 소유함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쏘베트 군사 과학 및 조국 해방 전쟁 경험 습득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갖추기 위한 불요불굴의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인민군의 커다란 가정속에서 청년들은 자기 생활을 창조하



며 모든 곤난과 시련을 용감히 타개하고 자기의 의지력과 견인성을 양성한다。

전쟁전에는 사람의 흔적도 찾기 어렵던 一、二一一고지나 一、三〇〇메터나 넘는 무산령의 심산 고지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 생활을 꾸렸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잘 들은 사실이다。

그들은 적들의 포탄 파편을 모아 곡괭이와 도끼를 만들었으며 적과 싸우면서 웅대한 갱도를 굴설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아담한 거처를 꾸렸다。

입대하기전에는 젊은 로동자였으며 농민이였으며 학생이였던 이들은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자기 손으로 집을 지였고 갱도도 팠고 파종도 하였으며 적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미국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은 자기의 로력을 더욱 사랑하며 자랑하게되였으며 강인한 생활력을 양성하였다。이것은 인민군대의 생활을 체험한 우리청년들이 어떠한 어렵고도 간고한 투쟁에서든지 능히 그 임무를 훌륭히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전후 시기에 인민군대내의 수다한 청년군인들이 공장 기업소와 도시 복구 건설 사업에 참가하였는바 그들은 전쟁의 어려운 시련과 군대 생활의 제 과정에서 육성 단련된 자기들의 힘으로써 그 임무를 놀랄만큼 초과 수행하였으며 낡은 로력 기준량을 타파하는 선두에서 일하였다。

얼마전에 있은 전국 다수확 모범 농민 대회에서 우리는 인민군 하사관이였으며 영예 군인인『새길』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로력영웅 김원규 동무의 믿음직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어떻게 그런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라는 무름에 김원규 동무는 대답하기를『동무들은 지난날 내가 인민군 특무 상사였다는 것을 념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왜냐하면 나는 가렬한 전투의 불길속에서 다져진 체구와 의지를 대지와의 투쟁에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이것이 바로 나의 경험이라 할까요!』라고 말하였다。

인민군대는 청년 군인들에 대한 군사 정치 지식의 제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데 부단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인민군대내 청년군인들에게는 수 많은 문예 서적들이 배당되여 있으며 군무자들의 창작품을 중심으로하여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인민전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예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동시에 청년군인들은 자기 희망과 요구에 따라 구분대에 조직된 문학、음악、연극、무용 등 각종 써클에 망라되여 자기의 기능을 제고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군무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모습들을 주제로 한 소설、시、노래들과 스켓취들을 수다히 창작하였는바 이것들은 커다란 성과들을 거두었다。

인민군대내에서의 이러한 문화 예술 사업의 발전은 어떤 국한된 범위에서가 아니라 전체 군인들 속에서 광범한 군중적 사업으로 조직 전개되고 있으며『청년의 밤』·『견학』등 다채로운 사업들을 통하여 부대와 구분대 생활을 더욱 흥겹고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인민군대 내에서는 청년군인들의 체력 단련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전투 훈련에서는 일정한 체육시간이 배당되여 체계적인 체육 훈련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군인들에게는 조기운동 시간이 할당되여 그들의 질주력과 전반적 체력 발전을 위한 다종 다양한 운동이 조직 진행되고 있다。

이리하여 인민군대내 청년군인들의 체력은 날로 향상 발전되여가고 있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기의 창건 七주년을 맞이하는 인민군대내 전체 청년군인들은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와 최고사령관 김일성 원수의 제 명령과 교시들을 명심하면서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조국의 방선을 철석같이 수호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왜 급속히 발전되여야 하는가

전 창 석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에서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로동당의 금후 투쟁 대책에 관하여 토의하고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왜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되는가? 이것은 이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회의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농업의 발전이 없이는 三년 이상에 걸친 가혹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 당한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안정 향상시키는 사업도 우리 나라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사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 방향은 우리 나라의 장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중공업과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경공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주도적 부문인 공업과 농업을 그 어느것이 더 발전되고 어느 부문이 뒤떨어 짐이 없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업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바 공업의 발전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도 증가되고 도시도 매일 발전되고 있다. 이와같이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 수가 증가되고 도시가 발전되면 필연적으로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요구하게된다. 그것은 공업의 발전에 따라 증가되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공업 특히는 경공업에 목화, 잠견, 연초, 육류등 많은 공업 원료를 공급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발전은 절실한 요구로 되고 있는바 실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이 없이는 공업의 복구 건설에 대한 문제도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나라 농업 발전 수준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서 농촌 경리의 더 한층 급속한 발전을 요구하며 더 많은 식량과 육류와 공업 원료를 요구하고 있는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三년간에 걸친 가혹한 전쟁기간에 적들의 략탈과 파괴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전후





인민 경제 三개년 계획 실행 첫해인 一九五四년의 파종면적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四만 一천정보가 더 증가하였다. 알곡 생산에 있어서는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三% 더 생산하였으며 가축 두수는 一九五四년 一월一일 현재에 비하여 一九五五년 一월一일 현재로 현저히 증가되였는바 면양 및 산양은 六五%, 돼지는 一六%가 증가되였다. 누에고치 생산도 一○九%로 초과 생산하였다. 그러나 오늘 급속히 복구 발전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더 비약적으로 발전될 공업의 수요와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고려하면 이것으로서 결코 만족할 수 는 없다.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는 이런 현실적 요구와 경제발전의 법칙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농촌 경리 앞에 더욱 새롭고 거대한 발전의 제 과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식량생산에 있어서는 최근 二—三년내에 현재 보다 알곡생산은 一四○%에 까지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류생산은 약 二배에 까지 높이며 급격히 증대되는 경공업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화와 누에 고치를 생산 공급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들은 방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능히 달성할 수 있는 예비를 가지고 있다. 경지 면적을 확장하고 선진 과학 기술과 작업의 기계화 자급비료의 증산으로써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하는 투쟁을 옳게 전개하면 알곡을 현재보다 一四○%로 제고하는 사업은 능히 실행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자연부원 즉 방목지와 야생 목초를 다 리용하고 사료지를 조성한다면 소는 一○○만두 이상, 돼지는 一五○만두 까지 사양할 수 있다. 잠업에 있어서도 현재의 산록과 변뚝, 도로변등 다 리용하여 상전을 조성하고 페경된 화전을 리용하여 산림을 조성한다면 그리고 산뽕을 모주리 탐구 리용하며 기성 상전의 비배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잠견생산은 현재의 두배로 높일 수 있다. 목화와 담배를 적지에 집중 재배하고 비배관리를 개선하면 수확고를 현재보다 각각二—三배 더 높이는것도 물론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가렬한 전쟁에서 승리한 고귀한 경험과 애국적 열성이 있으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의 옳바른 지도와 따뜻한 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산적이며 소규모적인 개인농 경리에 그냥 머물어 있는한 그의 제한성 때문에 사회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업의 발전을 따라 무한히 발전될 수 없다. 그러므로 김 일성 원수는 우리 나라 농촌을 강화 함에 있어 우리앞에 가장 중요한것은『그것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을 증가시키며 우리 나라 농촌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라고 교시하였다.

이 교시에 의하여 우리나라 농촌경리에는 사회주의적 성분들인 국영 농목장, 농기계 임경소와 우마 임경소, 국가 관개 시설, 농촌의 소비 조합과 농민 은행들이 설치되고 그의 사업들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농촌에서는 농업 협동조합들이 조직 발전되고 있다. 그들은 오늘 단지 토지를 비롯한 생산도구를 통합하고 로력을 협동화한 그것만으로써 개인농 당시보다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농촌경리가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까지도 온갖 생산적 예비를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령세농민들의 생활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우리나라 농촌경리를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이며 실증인 것이다. 그러면 농촌경리 발전을 위한 이 영광스러운 과업수행을 위하여 우리 민청원들은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겠는가?

위선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로동당의 금후 투쟁 대책에 관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회의 문헌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의 실천 투쟁에서 민청원들은 솔선 모범적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그 자체의 순직성과 진취성으로써 농촌에서 새로운 영농방법을 도입함에 선구자가 되여야하며 솔선 모범자가 되여야한다. 농산물 수확고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평의 땅도 묵이지 않는 투쟁과 전쟁 파괴지, 수해지를 복구하며 묵인땅, 황무지, 간석지 등을 개간 확장하는 투쟁에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을 적극 동원시켜야 할 것이다. 토지 확장뿐만아니라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선진 영농기술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농민들속에 해설하고 영농준비로부터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민청원들은 우량 종자 교환과 종자 소독, 벼 육상모와 평당 一二〇포기 이상 병목식 이앙방법, 보리, 조, 수수의 광조파, 마령서 야로비자찌야, 옥수수, 마령서 정방형 점파법, 보리 十자형 파종, 이모작 질시등 선진 영농 방법과 우수한 경험들을 배우는데 노력해야하며 농민들에게 모범을 뵈여주어야할 것이다. 특히 밭 수확고를 높이며 목화, 연초의 적지 집중 재배, 도시와 공장 주변에 소채 면적 확장사업을 방조하여야 하며 농작물 수확고 제고에 있어서 자급 비료를 많이 시비하는 것이 그의 기초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급 비료 증산운동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하여야한다. 농산물 증산투쟁과 함께 목축업과 양잠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투쟁에서도 모범을 뵈여야한다. 소, 돼지를 비롯하여 닭, 오리, 토끼를 사양하여 一九五五년내에 무축 농가를 모주리 퇴치하여야하며 상전 비배 관리와 공동 사육을 적극 방조하여야한다.

국영 농목장과 농기계및 우마 임경소내 민청원들은 농업에서 대규모적 관리와 선진적 영농방법의 적용및 농업의 기계화에 대한 우월성을 전체 농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이도록 민청 작업반의 사업을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민청원들은 모범적 역할을 하여야하는바 농업 협동조합내 민청원들은 농업 협동조합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합 규약을 준수하는데 모범이 될 것이며 관리위원회 사업을 적극 협조하며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습득 적용하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로동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단위당 수확고와 부업수입을 높이도록 적극 방조하여야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개인경리 농민들이 있는바 이들의 영농사업과 생활향상에 대한 방조도 민청원들은 등한히 하여서는 안된다. 항상 그들속에서 그들을 점차 협동화의 길에 자원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양하며 해설하는 사업을 조직 실시하여야할 것이다.

끝으로 민청원들은 각종 선전 방법으로 우리나라 농촌 경리의 발전 전망과 농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농민 군중속에 침투시키는 사업을 적극 조직할 것이며 一九五五년도 농촌 경리 부문의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실행하기 위하여 증산 경쟁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이를 방조하여야 하는바 당면한 영농준비 사업을 철저히 갖추도록 특별한 협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치여 조국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전후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와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 리상과 행복은 로력을 통하여 실현된다

리 홍 종

## 로동이 인간과 인류 력사를 창조하였다

인류는 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연을 개조하며 동시에 인간 자신을 개조하여 왔다.

이것은 첫째로 로동이 인간 자신을 창조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로동은 인간을 창조한 「산파」이다. 인간은 로동을 통하여 동물계에서 벗어났으며 인간의 손, 발, 언어, 감각 기관, 두뇌는 모두 로동을 통한 자연과의 투쟁속에서 발전한 것이다. 로동이 없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둘째로 로동이 인류 사회와 인류 력사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 사회와 력사 발전의 기초에는 인간의 로동이 놓여 있다. 로동이 없이 인류 사회와 인류 력사의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여 보자!

첫째로 인류 사회가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생활 즉 의, 식, 주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로동을 통하여 만들어야 한다. 수천 수만년을 통하여 일체의 물질적 재부와 문화적 재부는 로동하는 인간들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고구려의 웅장한 고분도 또 오늘의 웅대한 도시들도 모두 로동하는 인간들의 손과 그들의 창조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석기를 사용하던 아득한 옛날부터 기계화와 전기화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의 력사는 물질적 부를 생산하기 위한 사람들의 자연과의 투쟁의 력사였다. 이와 같이 로동은 어떤 사회를 물론하고 사회 존재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때문에 맑쓰는 말씀하기를 「일년은 고사하고 수주일만 인류가 로동을 중지한다면 전 인민이 굶어 죽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둘째로 로동하는 인간은 력사상에서 위대한 역할을 노는 것이다. 근로 인민은 사회의 물질적 부의 생산자일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 혁명의 담당자이다. 그는 사회 발전에 결정적 작용을 하며 력사를 창조하고 있다. 노예사회를 허물어 놓은 사람이 바로 로동하는 노예들이였으며 력사상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로씨야의 로동자, 농민이였다는 것은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때문에 위대한 쓰딸린은 사회발전의 력사는 근로 대중의 력사이라고 지적하시였던 것이다.

### 두 세계, 두 로동

그런데 어떤 사회를 물론하고 로동이 사회 존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 하여 매개 사회에서의 로동의 의의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발생의 첫시기에는 누구를 물론하고 다 로동하였다. 그러다가 사유 재산이 생기여 사회에 부자와 가난한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즉 계급이 발생하자 로동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으로 분리되였다. 착취 계급은 정신 로동을 독차지하고 육체 로동을 하는 근로 인민을 천시하고 학대하며 착취하여 왔다. 그리하여 소수의 지배 계급들이 절대 다수의 근로 대중을 착취하여 기생적 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는 로동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명에로 되였으며 로동하는 사람은 천대를 받아 왔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은 더욱 강화되였다. 여기에서는 일체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쥐여져 그것은 근로 대중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의 목적은 독점 자본가들의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는데 있다. 이 목적의 실현은 불피코 근로 대중의 빈궁과 기아를 증대시키며 인민들의 무권리와 노예적 로동과 실업의 증대 및 전쟁의 참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로동이 고통스럽고 천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근로 대중이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이 제도를 반대하여 태공, 파업, 폭동 등 방법으로 투쟁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근절되고 근로자들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 된 사회에 있어서는 로동이 용감하고 영웅적이며 영예로운 것으로 되였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그것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유롭고 자각적이며 희망에 찬 로동이다. 여기에서의 생산의 목적은 인민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데 있다. 이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이 완전히 일치된다. 매개 근로자들이 더 훌륭하게 로동하면 그만치 자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그만치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사정은 이것과 동일하다. 리조 봉건 제도와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로동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처참한 것이였다. 일본 제국주의 략탈자들은 우리 나라의 일체 중요 생산수단을 략탈하여 독점하고 조선 근로 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일제 통치하의 공장과 합숙들은 감옥이나 다름 없었다. 살인적 로동 시간, 노예적 임금, 로동 보호 시설의 결핍은 로동자들을 항상 빈궁과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게 하였다. 농민들은 일제와 지주의 二중의 착취를 당하였다. 조국의 해방이 없이 근로자들의 자유와 행복은 바랄수 없었다. 때문에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조선의 근로 대중은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일제 략탈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매국적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왔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八·一五해방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로동은 과거의 로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이 되고 중요 산업이 전 인민적 소유로 되였으며 로동 법령이 실시되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의 소유로 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 창설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로동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보람있고 영예로운 로동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로력으로 되였으며 로동에 대한 성실하고 량심적인 태도는 조선 인민의 새롭고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되였다.





로동—그것은 조선 인민의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로 되였으며 태만자와 무위도식자는 인민들의 증오를 받게 되였다. 가장 근면하고 훌륭하게 로력하는 사람이 국가와 인민의 두터운 신임과 깊은 존경을 받게 되였다. 로력에서 위훈을 세운 로동자들에게는 국가의 최고 표창인 영웅 칭호가 수여되고 있다.

요지음 우리 나라에는 一九五七년을 벌써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자하다. 동화에서나 들음직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로력 영웅이며 착암공인 조두실이다. 그는 금년 一월 七일에 三개년 계획을 一〇〇·三%로 초과 완수하였다. 一九五六년까지의 三개년 계획을 이미 완수하고 났으니 그는 一九五七년을 맞이한 셈이다. 만일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리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이것은 현실이며 또 누구나 리해할만한 일이다.

장엄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을 위한 창조적 로력 전선에서는 매일 같이 로력에서 영웅적 기개를 발휘하여 위훈을 세우는 혁신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수천 수만의 근로자들이 로력 영웅 조두실의 뒤를 따라 三개년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자랑으로 신성한 의무로 삼아야 하겠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교시는 오늘 전후 복구 건설에 궐기한 전체 근로 대중과 청년들의 생활과 투쟁의 구호로 되고 있다.

물결은 친다
증산의 드높은 물결은
북반부 전역에
창조의 로력은 끓는다—
이것은 해방의 날을 맞은
이 나라 인민의 숭고한 습성!
……
영웅의 로력! 영광의 로력!
이것은 해방된 이 나라 인민이 가진
새롭고 숭고한 도덕!

애국 시인 조기천의 노래는 오늘 우리 나라의 공장, 광산, 건설장마다에서 더욱 우렁차게 울려지고 있다.

## 태만과 무위도식은 가장 악독한 낡은 사회의 잔재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로력은 인민 경제와 문화발전의 기초이며 인민들의 행복의 원천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회주의와 로동은 서로 갈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로동에 게으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들과 착취자들인 남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로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들어선 우리 나라에서는 로력의 의의가 특히 제고되였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 속에는 아직 로동에 대한 낡은 관념을 청산하지 못한데서 근면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일부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로동에 대한 낡은 관념과 태도의 몇가지 표현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로동을 천시하고 경시하**

여 그것을 기피하며 불성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일하지않고 놀고 먹을 것을 원하는 사람의 사상이다。 놀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남에게 업혀서 남의 등을 긁어 먹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송충(松虫)이나 회충(蛔虫)과 같은 기생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착취 계급의 사상이다。 놀고 먹는 것을「상 팔자」니「늘어진 팔자」라고 하며「인생은 일장 춘몽이니 건들거리며 놀아나 보세」라는 것이 과연 어느 계급의 사상이겠는가? 근로자의 피땀을 빨아서 돈을 모아 잘 먹고 사치하고 부화 타락한 생활을 하자는 것ㅡ 이것이 바로 자본가 지주 계급의 사상이며 놈들의 생활 목표이다。

그런데 일부 우리 청년들 속에는 로동에 불성실하고 태만하며 전달군 행동을 하며 로동 규률을 지키지 않고 지각、조퇴、결근하며 四八○분을 완전히 생산과 공작에 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심지여 극소수의 청년이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불량자도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습이 곧 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태만하며 성실치못한 사람이 있다。 일부 농민 청년들 속에서는 농번기에만 일하고 농한기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전달을 부리는 청년이 있다。 또한 농업 협동 조합내 일부 청년들은 공동 로동에 성실하지 못하며 이러저러한 구실로 태만하며 로동 규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과거에 우리는 로동청년、농민청년、학생청년들의 로동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만 많이 말하여 왔는데 지금 우리는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즉 사무원 청년들의 공작 태도에 대하여서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 요지음 어떤 기관의 청년들은 아침 아홉시에 출근하여 난로를 피우고 몸을 녹이고 잠시 잡담하고 책상을 정리하는등 三○분 이상의 로동시간을 허비하며 공작시간도 필요없는 사담과 개인의 일로 적지않게 허비하고 있다。

로동에 대한 불성실과 태만은 가장 악독한 낡은 사회의 잔재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에게는 인연이 없는 착취 계급의 사상이다。 우리들은 반드시 근면과 성실을 주장하며 태만과 전달과 무위도식을 반대하여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로동에 대한 태도와 그 성과로써 사람의 도덕 품성과 인격을 평가하며 근로하는 인민을 존경하고 태만자를 증오해야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일하지 않는자의 생활은 도적의 생활이며 그러한 자는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둘째로 일부 청년들에게는 육체 로동을 경시하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로동을「고상한 것」과「어지러운 것」으로 구분하여 정신 로동은「고상하고」육체 로동은「어지럽고」「천한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착취 계급의 악독한 사상 잔재이다。 인류력사가 계급으로 분렬된 이후에 지배 계급은 항상 정신 로동을 독점하고 육체 로동은『천한』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멸시해 왔다。

우리들의 일부 가정에 있어서는 많은 로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많은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훈계하기를「크거던 영웅 호걸이 아니면 훌륭한 정치가나 학자나 문학가가 되라」고는 하지만「훌륭한 로동자ㅡ참암수、탄부、어부、기관사、농부가 되라」고하는 사람은 적다。 이것이 낡은 사상 잔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로동이 다 귀중하다。 우리들에게는 고상한 로동도 천한 로동도 하급의 로동도 상급의 로동도 없다。 도리혀 육체 로동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보라! 우리 나라에서 공민의 최고의 영예인 로력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대부분은 채광공이며 기관사이며 탄부이며 벌목공이며 직포、조사공이며 양돈공들이다。 로씨야의 위대한 학자 빠블로브는 돈바쓰 탄광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나는 나의 전체 생애를 통하여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을 심지어는 둘째것을 더 사랑하였으며 또 사랑하고 있다。 후자에 그 어떤 훌륭한 리해력을 도입했을때 즉 두뇌를 손과 련결시켰을때 만족을 느끼였다。 당신들은 이 길에 들어 섰다。 충심으로부터 당신들이 이 유일하게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 길을 따라 더 전진할 것을 바란다』

그런데 우리 일부 청년들 속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며 생산 직장에서는 간접 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또 학교를 졸업한 일부 학생은 현장에서보다 책상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사회적 로력을 기피하며 실험 실습을 어지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의 거처와 직장의 청소 미화를 위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청년도 있다。 일찌기 탁월한 교육자 끄룹쓰까야는『사회주의 국가에는 귀족의 자제가 필요치 않다。 생활과 기술적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능숙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바 우리는 이 교훈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육체 로동을 사랑하고 존중히 하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을 결합시킬줄 알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평범」하고「어지러운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창조의 기초가 되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의 원천으로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민청원들은 언제 어데서나 가장 힘들고 곤난한 일을 솔선 담당하여 수행하는 용감하고 강의한 돌격대가 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일부 청년들에게는 농업 로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업 로동은 영예로운 것이나 농업 로동은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부 농민 청년들은ㅡ그중에는 전달군도 있지만ㅡ분별 없고 확정한 목표도 없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나오려하는 것이다。 이것도 착오된 생각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경제의 골간이 공업이며 그것이 중요 한것만은 사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의 기초를 닦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농업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二월 전원 회의 결정을 연구하여 보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는 것을 전 당적 전 인민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농업을 발전시킴이 없이 즉 식량과 육류와 경공업의 원료를 증산함이 없이는 공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도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공업과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여 농산물과 축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곧 우리 나라의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며 조국의 위력과 인민의 복리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영예로운 로동이 아니겠는가?

쏘련에서 처녀지와 황무지를 개척하려 떠난 공청원들이 그처럼 인민의 사랑과 찬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처녀지와 황무지 개간에 나선 모쓰크바시 및 주 청년 집회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一비서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베트 사람들은 처녀지 개간이 우리 국가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의 거대한 열성은 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농촌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농업 로동을 경시하는 그릇된 관점을 청산하고 농산물의 다수확과 가축의 증식과 경공업 원료의 증산을 위하여 그리고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길인 농업 협동 조합의 강화를 위하여 더욱 성실하고 창조적으로 로력하여 다수확과 가축 사양의 명수가 되여야 할 것이다。

## 리상과 행복은 로력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의 두터운 배려하에 무한한 행복에 싸여 있으며 광명한 장래를 확신있게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고상한 리상에 불타고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하면 더 많이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오늘 우리들이 향유하고 있는 행복과 전망하고 있는 광명한 장래와 또한 저마다 품고 있는 리상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고귀한 피의 대가이며 우리 애국 선렬들의 간고한 혁명 투쟁의 덕택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품고 있는 고상한 리상은 아무런 로력없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들의 행복이 로력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원대한 리상도 로력으로써만 실현된다。

청년들은 군인이 되자면 二중영웅 백명기、김기우와 같은 사람이되며 모범 로동자가 되자면 쓰다하노브나 조두실 영웅과 같이 될 것을 희망하며 과학자가 되자면 로모노쏘브나 미츄린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념원하며 문학가가 되자면 고리끼 똘쓰또이 조기천과 같은 작가가 될 것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리상은 희망과 념원과 꿈만으로는 이루워지지 않을 것이며 완강하고 꾸준한 노력이 있고서야 달성될 것이다。

조두실 영웅을 례로 들어 보자! 그가 三개년 계획을 一년 七일간에 완수하기까지에는 얼마나한 로력과 분투가 있었겠는가! 그는 채광에서 대공 발파법을 창조적으로 도입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와 고심을 거듭하면서 참말로 영웅다웁게 로력하였던 것이다。 완강한 의지력과 애국적 헌신성 그리고 불요불굴의 로력이 그로 하여금 락광 기준량을 四、三九三%로 돌파케 하였던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나 작가에게 있어서도 성공의 열쇠는 결국 로력이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증기 기관을 발명한 왓트도、라디오를 발명한 뽀뽀브도、인류를 전염병에서 구원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파스트르도 모두다 실험하다 실패하면 또 실험하고 다시 실패하면 거듭 실험하는 완강성과 견인성의 소유자들이였다。 지구의 자동설을 제창한 코페르니크스는 심지어 지배 계급의 엄혹한 압박과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자기의 과학을 위하여 싸웠던 것이다。

위대한 작가들의 생애를 보라! 로씨야의 위대한 문호 똘쓰또이는 그의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二천여페지에 달하는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일곱번이나 개작하였으며 독일의 유명한 시인 궤테는 그의 작품「파우스트」를 五八년간이나 집필하여 八二세의 고령에 가서야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례들은 모두 리상과 행복은 오직 로력ㅡ완강한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때문에 일찌기 맑쓰는 말씀하기를 『과학에는 탄탄한 대로가 없다。 다만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로를 겁내지 않는 사람만 광휘로운 산마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들 앞에는 무한한 행복과 광명한 장래가 약속되여 있다。 행복과 광명은 로력을 통하여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은 곧 로력에서 표현된다。 장엄한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로력 전선에서 애국자는 곧 로력에서 위훈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조국의 이 간고한 건설시기에 말로써만 조국을 「사랑」하고 로력하지 않는자의 「애국심」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청년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무궁한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과 또 자기들의 고상한 리상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로력하며 자본가 지주 계급의 악독한 사상 잔재인 태만과 무위도식자와 건달군을 반대하여 용서없이 투쟁할 것이다。

세월이 지나서 만일 우리의 후대들이 『당신은 조국의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무엇을 하였습니까?』라고 물었을때 우리들 모두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나는 평양 건설에 참가했다』『나는 아오지 탄광의 민청 돌격대원이였다』『나는 안주 관개 공사장에서 일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일하여야 한다。

현시기에 있어 청년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사상 교양은 민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된다。 일찌기 민청 제三차 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는 청년들에 대한 로력 교양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강령적 교시를 주시였다。『…청년들로 하여금 로동을 사랑하며 일을 즐겨하는 근로 정신으로 교양하며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알게하며 로동을 영예스럽고 신성한 일로 생각하며 각계 청년들로 하여금 그 가하는 로동이 작고 또한 어렵고「어지러운 일」이라고 하여도 그가 자기를 조국 건설의 위대한 부대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 조국을 재건하는 영예스러운 역군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오직 로력에서만이 진정한 건설자가 되며 준비된 인재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 단체들은 일부 청년들 속에 남아있는 일하기 싫어하며 남의 로력으로 살려고 하는 부화하고 락후된 사상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에 립각하여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에 대한 로력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과업들이 그 기본으로 되여야할 것이다。

첫째로 청년들에게 로동의 숭고한 목적과 그의 위대한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켜 로동을 열렬히 사랑하며 근로 인민을 존경하는 정신을 배양할것

둘째로 집단주의 정신과 로동 규률 준수의 정신을 배양할것

세째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을 결합시키며 육체 로동을 더 존중시하는 정신을 배양할것

네째로 곤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완강한 의지력과 전투적 정신을 배양할것

다섯째로 로력 혁신자들의 선진적 모범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며 모범으로 락후를 원조하는 호상 원조의 정신을 배양할것

여섯째로 로동에 대한 착취 계급의 사상을 반대하며 그 영향과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게 할것。

# 계급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계급투쟁은 왜 진행되는가?

황 기 운

## 계급이란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계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계급은 사회가 생겨난 그 첫날부터 있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은 아득한 옛날 수십만년 전부터였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 내것, 네것이 없이 지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착취와 압박,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으며 누구나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생산물을 분배 받았다.

이때에는 부자와 빈자의 구별이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었으며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도 없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졌으며 평등한 생활을 하였다.

이때를 지금 우리는 인류 사회에서 최초의 무계급 사회였던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부른다.

인류 사회에 계급이 발생한 것은 오직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사유 재산이 생기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생겨났을때 부터였다. 계급이 이렇게 력사 발전의 일정한 과정에서 생겼으니만큼 사유 재산,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없애 버리는 력사 발전의 어느 단계에 가서 없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 시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 사회인 것이다.

그러면 계급이란 무엇인가?

계급이란 인류 력사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발생됨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착취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느냐에 의해서 구별되는 사람들의 큰 집단을 말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떠한 역할을 노는가, 또 생산 수단(토지, 광산, 공장, 기계, 농구, 축력, 철도, 기타)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따라서 생산물을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생산물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분배 받는가에 의해서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인 것이다.

이러한 계급이 발생하게 된 첫째 전제 조건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로동 생산성이 증대한 것이였다.

사람들은 이전에 쓰던 석기 대신에 금속으로 만든 도구를 쓰게 되였다. 처음에는 구리요, 다음에는 청동과 철이였다. 생산 도구로서 금속을 사용하게 된 후로부터는 농사는 더 잘 되게 되였다.





또한 소, 말과 같은 동물을 집에서 길러 역축으로 사용함에 따라 역시 일은 헐하고 농사도 잘 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따라서 어떤 자로 하여금 남이 생산한 물품의 일부를 빼앗아서 살 수 있게 하였다.

계급이 발생하게된 둘째 전제조건은 사회적 분업이 생기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그에 따라 재산상의 불평등이 나타난 것이였다.

목축업과 농업의 발전은 모든 사람들과 씨족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았다. 목축업을 위하여 더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서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였으며 거기에서는 목축업이 생산의 기본으로 되였다. 동시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농업이 생산의 기본으로 되였다. 농업과 목축업 이외에 사람들의 활동은 다른 형태로도 발전하였으며 수공업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였다.

이러한 최초의 사회적 분업은 각 공동체와 나아가서는 매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가축, 가재 도구 및 생산 도구들에 대한 사적 소유도 생기게 하였다. 따라서 원시 공동체내에 재산상의 불평등이 피치 못하게 되였다. 즉 어떤 씨족과 가족은 부유해지고 다른 씨족과 가족은 빈한하게 되여 전자는 지배 계급으로 되고 후자는 전자에게 예속 당하는 피지배 계급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공동체 사회는 계급으로 분렬되게 되였는데 그 최초의 분렬은 노예 소유자와 노예와의 분렬이였다.

우리 나라의 력사도 한때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왔다.

지금으로부터 약 二천 여년전에 우리 나라와 중국 동북 땅에는 여러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목축을 대규모로 하기 시작할때부터 가축을 많이 가지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생겨났고 철기를 사용하여 대규모의 농사를 짓게된 후에는 사유 재산을 많이 가지는 부자와 사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뚜렷이 구별되여졌다.

부여(二천여년 전에 동북 장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에서는 이때에 벌써 궁실을 지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큰 창고가 있어 창고 안에는 부자의 재산이 수득히 들어 있었다. 고구려(약 二천년전부터 압록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하고 있었다)에서도 부자들은 집집에 창고를 지어 자기네 재산을 여기에 쌓아 두었다.

이러한 계급 사회의 발생이 가장 이르다고 추측되는 고대 에지프트에서는 기원전 五천년대 말과 四천년대 초경이였고 기타 지역들에서는 그 이후의 시기에 속한다.

따라서 계급 사회의 력사는 도합 약 六—七천년에 달하는 것으로 인류 력사상으로 말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수천년 동안에 인류는 그 이전의 수만년 보다도 비할바 없이 더 큰 발전의 길을 더듬어 왔다.

## 계급 투쟁은 왜 진행되는가

인류 사회에 계급이 발생된 이후로부터 지배 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계급 투쟁은 그치지 않고 진행되였다.

착취 계급은 착취 받는 인민들의 날카로운 반항을 진압하고 자기들의 착취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가 주권을 틀어쥐고 각종 방법을 다하여 근로 인민을 억압한다.

그러나 착취 받는 인민들은 그들을 반대하여 더욱 더 용감히 일어서서 투쟁한다. 왜냐하면 극소수를 이루고 있는 지배 계급은 화려한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향락을 누리는데 주민의 대다수는 자기가 힘들여 일한 열매를 지배 계급의 향락을 위하여 바쳐야

하며 그러면서도 직접 생산자인 피지배 계급은 겨우 목숨 유지에 필요한 생산물의 극히 적은 부분을 받을뿐이며 헐벗고 천대는 받을때로 받으니 여기서 적대적 관계가 생기지 않을수 없게되였다。 이와같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있는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착취 계급과 피 착취 계급은 서로 리해 관계가 반대되므로 반드시 투쟁을 일으키며 이 투쟁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노예사회의 력사는 자기의 억압자인 노예 소유주들에 대한 노예의 투쟁으로 가득차 있다。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노예들의 투쟁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형태로서 자기 주인이 시키는 작업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도구를 마사버리거나 또는 모진 채찍질에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도주하는 것으로서 나타났으나 투쟁의 다음 단계에 들어서는 대중적인 폭동으로 폭발되였다。

례를 들면 고대의 가장 큰 폭동이였던 로—마 (지금의 이태리 땅에 있었다)의 스파르타쿠쓰의 지휘하에 일어난 노예 폭동은 一〇만명 이상의 노예가 참가하여 약 三년 동안이나 (기원전 七四년—七一년) 계속되였다。

봉기한 노예들은 때로는 자유민중의 빈한한 자들과 단결하여 자기의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한 일도 있었다。

노예의 혁명적 운동은 드디어 노예 제도를 파괴하고 그것을 멸망으로 이끌어 갔다。 그러나 노예 제도를 파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논 노예들의 혁명은 그들의 승리로써 끝나지는 못하였다。 노예는 노예 제도로 부터 해방되려고 투쟁은 하였으나 새 사회를 건설할 힘이 없었다。 그보다도 그들은 자기들의 투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것 조차 명확하게 리해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노예제적 착취 형태 대신에 나타난 것은 봉건적 착취 형태였다。

봉건 사회의 기본 계급은 농노적 인민과 봉건 지주였다。 봉건 사회의 력사는 봉건 지주들에 대한 농노적 인민들의 가렬한 투쟁으로 특징 지여진다。

이 투쟁은 처음에는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견디다 못하여 토지로부터 리탈하여 지주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류랑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나 드디어는 이러한 농민들이 주동이 되여 여기 저기에서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례를 들면 十二、三세기의 고려의 농민들은 착취와 억압을 참다못하여 때마침 일어난 량반들의 세력다툼의 혼란을 틈타서 용감하게 궐기하였다。 벌써 고려 十八대왕인 의종의 말년(十二세기말엽)부터 각처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그들의 원쑤인 관가를 습격하여 관리들을 죽이고 불을 놓았다。 당시의 량반들이 말한 남적이니、북적이니 한 것은 사실인즉 이러한 봉건 지배 계급을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 폭동군이였다。 이러한 농민들의 봉기는 十二세기말엽부터 十三세기 초엽에 걸치는 반세기동안이나 남도、북도 할것없이 고려의 전국을 휩싸고 전파되였다。

농민 봉기는 관가와 량반과 사원이 있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은데가 없었다。 지배 계급의 착취가 혹심할 때에는 농민들은 언제나 용감하게 투쟁에 궐기하였다。

봉기한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강탈당한 토지를 위하여서와 농노적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였다。 이러한 농민 폭동들은 모두 결국에는 봉건 지배 계급들에 의하여 진압은 되였으나 그러나 봉건제도를 전복하는데 커다란 력사적 역할을 놀았다。

봉건 제도 대신에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 제도였는바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그 기본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극히 날카로운 계급투쟁의 무대로 되였다。

자본주의 발전과 병행하여 력사의 무대에 나타난 프로레타리아트는 철저하게 혁명적인 선진적 계급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그의 전위대인 당의 지도하에 자기 자신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해방한다。 왜냐하면 그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모든 착취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혁명에서 잃을 것은 철쇄밖에 없고 얻을것은 전세계라고 맑쓰와 엥겔쓰는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죠아지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은 파업、시위운동、의회투쟁、무장 진출등등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이 여러가지 투쟁 형태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레닌과 쓰딸린이 가르친바와같이 자본주의 제도를 타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수단은 사회주의 혁명이다。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오직 가장 결정적 투쟁 형태인 무장폭동에 의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쓰러져가는 낡은 계급은 자기 스스로는 력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려고 하지않기 때문이다。

三차에 걸친 로씨야 혁명 특히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경험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위대한 중국 혁명의 경험이 또한번 이를 거듭 증명하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계급 투쟁은 계급이 발생한때로부터의 전 력사를 통하여 그치지않고 진행되였으며 사회 발전의 추진력으로 되였다。 오직 계급 투쟁을 통하여서만 노예 소유 제도는 봉건 제도에、봉건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에 자리를 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계급 투쟁을 통하여서만 자본주의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에 길을 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피치못할 일이며 또한 지극히 필요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계급 투쟁의 력사는 결국 착취 계급이 지배하는 계급 사회를 없애버리고 계급 투쟁까지 없애버리는데 도달한다。 계급 사회를 없애버리기 위한 계급 투쟁은 자본가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계급 투쟁이며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진행되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여 위대한 쏘련인민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다。

쏘련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없애버리고 사회주의적 소유로 하였는바 이리하여 착취 계급은 없어졌으며 근로인민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실현되였다。 지금 쏘련에는 인류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착취에서 해방된 새로운 로동계급、농민 계급、근로 인테리겐챠가 있을뿐이며 이들은 서로 친근하게 협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북반부에서도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이후 조선 로동당의 지도하에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의 결과 착취 계급으로서의 지주는 기본적으로 타도되였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은 가장 친근한 벗으로서 굳게 손을 잡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로동 계급은 우리나라의 가장 선진적 계급이며 우리혁명의 주도적 력량이다。 공화국 북반부의 농민들은 봉건적 지주들의 착취에서 해방되고 땅의 주인이 된 새로운 농민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八〇%를 차지하고있는 농민은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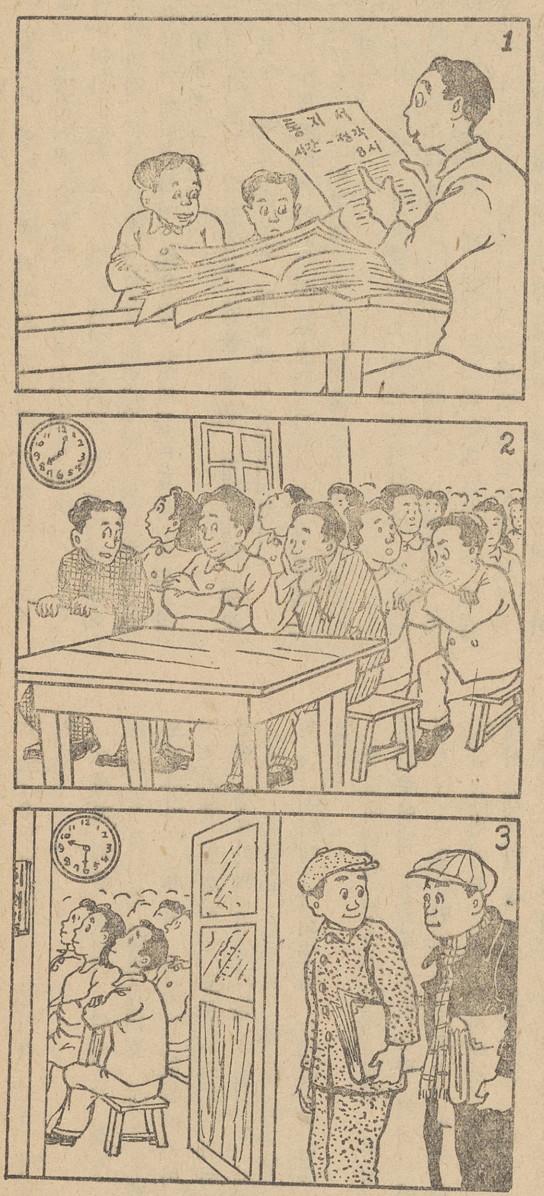
공화국 북반부에는 이 외에도 다른 계급 및 계층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지지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에는 아직 자본주의적 요소와 소상품 경리가 남아 있다. 그들의 일부는 모리간상배, 투기업자로 출현하여 개인 리익을 얻기 위하여서만 바삐 돌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니만큼 이들과 강력히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역도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며 우리의 경제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방해하려고 온갖 음모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이 원쑤들은 자기들의 음모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발부칠 곳을 찾아 다니며 언제나 우리의 약한 고리를 리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계급적 적대 행동들과의 투쟁을 가강히 전개하여 그들을 제때에 폭로하고 분쇄하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매개 조선 청년들의 의무이다.

참을 수 없는 시간 랑비




1. 위원장 『통지서에는 정각 8 시라고 쓰고 개회는 9 시에 합시다』
2. 8 시 에도 회의 집행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9시 30분에 『위신』을 차리며 회의실에 나타났다.





# 미제의 『힘의』 정책은 파탄되고 있다

전 인 철

## 미국의 대외 정책의 침략적 본질

현대의 가장 횡포한 제국주의 국가이며 국제 반동의 괴수인 미국은 처음부터 세계 제패의 야망을 달성하려고 광분하면서 다른 인민들을 폭력으로써 침략하며 억압하는 더러운 력사를 가지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수백 수천만 인민들을 피바다 속에 잠그는 략탈 전쟁에 의하여 자기의 뱃속을 기름지웠으며 수백 수십차례에 걸쳐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감행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독립 전쟁 이후 즉 一八세기말부터 一九세기의 전 기간을 통하여 실로 백 수십차례에 걸쳐서 아메리카 토착 인민들을 략탈 살륙하며 외국 령토를 강제적으로 점령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폭력과 략탈 방법에 의한 자기들의 팽창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의 대외 정책의 기초를 『몬로주의』로 가장하였다. 『몬로주의』라는 것은 一八二三년 미국 대통령 몬로가 선포한 『아메리카인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원칙인데 이는 그후 미국의 침략적 대외 정책을 은폐하여 주는 구실로 리용되였다. 미국 지배층은 『몬로주의』라는 간판 밑에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 대륙 밖에서까지 팽창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때에 벌써 미국 지배층은 『몬로주의』를 전세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파렴치하게 떠들어 대면서 『아메리카인을 위한 아메리카』인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인을 위한 전 지구』라는 구호를 웨쳤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범미주의』라는 구호를 들고 라틴 아메리카 제국을 침략하였으며 『문호 개방』 『민족자결』 등의 간판하에 아세아 및 구라파에 점차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쳤다.

제一차 세계 대전으로부터 제二차 세계 대전에 이르는 기간 미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에서의 평화적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시키며 자본주의 각국에서 일어나는 혁명 운동을 탄압하는 것을 자기 대외 정책의 주요 과업으로 삼았다.

미 제국주의를 괴수로 하는 국제 반동 세력에 의하여 준비되고 히틀러 도배들에 의하여 도발된 제二차 세계 대전은 그들이 타산한 것과는 달리 위대한 쏘련의 전세계사적 승리로서 종결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는 국제 관계에서의 력량 배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강력한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된 반면에 제국주의 진영은 크게 약화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련의 전세계사적 승리와 그 결과 새로 탄생한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나

라들은 쏘련과 더불어 강력한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으로 형성하였으며 그 반면에 크게 약화된 자본주의 체계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후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일정한 변동이 생겼는바 그 기초는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힘의 립장에 선』 모험적 계획이다.

이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제二차 대전후에 우선 『트루맨주의』에서 표현되였다. 트루맨은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두개의 정치로선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함으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간섭하여야 되며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어떠한 분쟁이든지 발생하면 그것을 제때에 탄압하여야 한다고 성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트루맨주의는 『딸라 외교』와 『힘의』 정책을 결합시킨 『몬로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려는 것이다. 『트루맨주의』는 미국이 전 세계 각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모든 국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미국이 헌병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침략과 더불어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마샬안』을 들고 『원조』라는 허울 좋은 간판밑에 숨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팽창 정책을 실시하였다. 『마샬안』은 실제에 있어서 『트루맨주의』에 표시된 『힘의 정책』 실시의 주요 도구로서 서구라파 국가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화하며 이 나라들에 팟쇼 제도를 수립강화함으로써 민족적 자주권을 말살하고 민주 력량과 혁명 운동을 탄압하며 이 나라들을 새로운 침략 전쟁을 위한 미국의 병참 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트루맨 주의』와 그 다음에는 『마샬안』의 실시와 더불어 악명높은 애치슨의 『총력 외교』는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랭정 전쟁』을 공공연히 호소하고 『힘에는 힘으로』 라는 구호를 들고 새로운 침략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침략을 도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조선 전쟁은 『힘의 립장에 선』 미국 침략 계층들의 모험적 시도의 가장 로골적인 표현이였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평화 애호 민주 진영 국가 인민들의 형제적 성원을 받은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 앞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무런 교훈도 찾지 않고 계속 『힘의 립장에 서서』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하면서 세계 지배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감행하고 있다.

『힘의』 정책은 오늘날 미국 외교의 기초로 되고 있는 것이다.

## 『힘의』 정책이란 무엇인가?

『힘의』 정책 또는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란 어떤 강국이 자기의 의사를 다른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강요하는데로부터 생긴 정책이다. 자주적인 나라나 인민들이 자기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다른 강국의 무리한 요구를 온순히 받아드릴 수는 물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강국이 자기의 요구에 다른 나라들과 인민들을 굴종시키기 위하여 힘으로써 그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며 즉 『힘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힘의』 정책은 세계 지배를 꿈꾸는 자들의 망상적인 계획과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다. 력사상에는 이러한 실례가 많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한때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날뛰던 히틀러가 실시한 악명높은 『실력 정책』이다. 히틀러는 다른 인민들





과 나라들의 모든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을 믿고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노예화하며 전 세계를 파시즘의 암흑 세계로 만들려고 망상하였다. 그러나 히틀러의 이와같은 『실력 정책』은 위대한 쏘련을 위시한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 같은 반대에 부닥쳐 수치스러운 파탄을 당하고 말았다.

히틀러의 패망은 『힘의』 정책을 실시하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아주 똑똑히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엄연한 력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패망당한 히틀러의 뒤를 따라가며 『힘의 립장에 서서』 세계 제패를 망상하는 우둔한 자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제二차 세계 대전후 자기들이 세계에 대한 『지도자』가 되여야 한다고 떠버리면서 다른 모든 나라 인민들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와같이 무리한 미국의 요구를 다른 나라들과 인민들이 온순히 접수할리가 만무한만큼, 미국은 『힘』으로써 위협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제二차 대전후 미제의 『힘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적 군사 쁠럭을 조작하며 세계 곳곳에서 군사 기지망을 설정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一九四九년 미국의 지시하에 一四개국들로 구성된 소위 북대서양 동맹은 세계 지배에 대한 미국 지배층의 망상적 계획의 가장 로골적인 표현이였다.

북대서양 동맹은 一九四九년 四월에 미국, 카나다, 영국, 불란서, 이태리, 벨기, 덴마크, 룩셈부르그, 화란,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도아등 一二개국으로 형성되였다가 一九五二년에는 토이기와 희랍까지 이 군사 쁠럭에 가담하여 지금 一四개국으로 구성되여 있다. 이 쁠럭이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준비로서 『힘의』 정책의 주요 도구로서 결성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서부 렬강 침략 계층들이 조작하려고 미칠듯이 날뛰고 있는 『서구 동맹』은 서부 독일 복수주의 군대를 그의 핵심으로 하는 침략적 군사 쁠럭이며 구라파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로골적인 준비의 표현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서구 동맹』의 조작에 의하여 독일 군국주의 세력을 공공연히 재생시킴으로써 구라파의 평화 애호 인민들을 놀라게 하며 그들을 『힘의』 정책으로 굴복시키려고 타산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아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작년 九월 비률빈의 마닐라에서 조인된 『동남 아세아 집단 방위 조약』 (미국, 영국, 불란서, 호주, 뉴질랜드, 비률빈, 타이, 파키스탄의 八개국이 서명) 미국과 장개석 간의 『호상 안전 조약』 미국과 리승만 간의 『호상 방위 조약』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호상 안전 조약』등으로써 구라파에서의 북대서양 쁠럭과 같은 대규모적 침략 쁠럭을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 정책은 아세아의 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다.

다음으로 『힘의』 정책은 미국과 그의 추종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군비 경쟁과 경제의 군사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군비 경쟁과 경제의 군사화는 한줌도 못되는 독점 자본가들에게는 막대한 리윤을 가져다 주지만 그 반면에 일반 주민들에게 대한 세금 부담을 증대시키며, 물가를 고등시키며 근로 대중의 생활 조건을 몹시 악화시킨다. 경제의 군사화로써 경제 공황을 모면하려던

미국 지배층의 타산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힘의』 정책은 침략 뿔력 국가들내에서의 반 인민적 대내 정책을 항상 동반한다。 미국과 그의 추종국가들의 국내 생활의 팟쇼화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 준비가 불가피적으로 반동 세력의 조량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는 『힘의』 정책은 국제 관계에서의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국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악명 높은 『랭정 전쟁』은 『힘의』 정책의 직접적인 연장이다。

『힘의』 정책은 미국 지배층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 통상에서의 차별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쏘련, 중화인민 공화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을 파탄시키려던 국제 통상에서의 차별 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무모한 정책의 발기자들 자신에게 손해를 주었으며 세계 자본주의 통상을 크게 혼란시켰다。

## 『힘의』정책은 파탄되고 있다

상술한 모든 사실들은 『힘의』 정책이 미치는 악독한 영향과 그것이 평화와 국제적 협조 사업에 해독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군비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난관, 원자 무기에 대한 미국의 독점의 청산, 이와 관련된 위협 공갈 정책의 실패,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려던 시도의 파탄, 자본주의 각국의 광범한 계층에서 민주 진영 국가들과의 경제적 련계를 확대하려고 지향하고 있는 등의 일련의 사실들은 『힘의』 정책의 파탄을 명백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미국 지배층이 실시하고 있는 『힘의』 정책은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외곡된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에 유리하게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변동된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의 변천들을 무시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미제의 『힘의』 정책은 그 기초에 있어서 완전히 비 현실적이다。

시시각각으로 변동되여 가는 현실을 무시한 『힘의』 정책이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명백한 것이다。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쏘련의 전 세계사적 승리에 의하여 아세아에서는 근본적인 변천들이 진행되였다。 이 변천은 우선 六억만 중국 인민들이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타승하고 새 중국을 창건하는 도상에서 달성한 력사적 승리, 그리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월남 민주 공화국의 탄생과 부단한 발전에서 특징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전체 아세아 대륙 면적의 六〇% 이상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과 전체 아세아 인구의 절반 이상을 훨씬 넘는 아세아 인민들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노예의 기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된 이 인민들은 다시는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메려하지 않는다。

아세아의 기타 부분 즉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 三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 같은 아세아의 주요 국가가 최근 년간 국제 무대에 새로 진출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적 처지에 놓여 있던 인도가 오늘날 국제적 문제들에서 자립적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의 대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및 비르마와 같은 국가들의 의의도 더욱 제고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은 아세아의 평화 유지 사업에 해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모든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의 대상이였던 아세아에서 일어난 위대한 력사적 변천들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힘의 립장에 선』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아세아에서 일어난 력사적 변천들을 무시하면서 아세아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며 아세아 인민들을 자기들의 온순한 노예로 얽매여 두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였던 망상적 전쟁의 온상으로부터 아세아를 평화와 창조적 로동의 튼튼한 성새로 전변시키려는 아세아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는 현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몇발의 대포소리로써 아세아 인민들을 놀라게하고 아세아를 제마음대로 정복하던 그런 시기는 영원한 과거로 되였다。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고수하여 힘차게 궐기한 아세아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와 투쟁 앞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은 아세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무력 침공에서 미국이 당한 참패는 『힘의』 정책이 군사적 분야에서도 여지없이 파탄되고 있다는데 대한 가장 뚜렷한 실례로 된다。 조선에서 당한 미국의 참패는 그의 군사적 및 도덕적 위신을 여지없이 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고 있는 인민들을 반대하여 실시되는 『힘의』 정책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증시하였다。

미국은 『힘의』 정책으로써 인도지나 전쟁에 간섭하며 자기의 사활적 권리와 리익을 고수하여 궐기한 월남 인민들을 놀라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인도지나 전쟁에 무력으로 간섭하며 이 전쟁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을 제二의 조선으로 전변시키려던 미국 지배층의 계획은 제네바 회의에서 평화 애호 민주 진영 국가들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 달성된 합의에 의하여 파탄되였다。

아세아의 위대한 강국—중화 인민 공화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힘의』 정책의 파탄이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힘의』 립장에서 수립된 미국 계획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는 동시에 아세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경제적 봉쇄, 정치적 고립등으로써 중화 인민 공화국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미국 지배층의 추악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새 중국의 위력은 부단히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그의 국제적 위신은 훨씬 제고되였다。 제네바 회의의 결과가 보여준 바와같이 오늘날 위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참가 없이는 어떠한 아세아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힘의』 정책은 아세아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미국의 흉계에 의하여 조작된 동남 아세아 군사 뿔력에는 절대 다수의 아세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이를 침략적 뿔력이라고 규탄 하였다。

아세아 국가 인민들은 『아세아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라』는 흉악한 계획을 들고 나선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되려하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 중국과 비루마 간의 호상 관계의 기초로 선포된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 즉 령토 완정과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불가침, 호상 내정 불간섭, 평등 및 호상 리익, 평화적 공존의 원칙은 아세아 각국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오는 四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

의를 계기로하여 이 지역 인민들간의 호상 협조는 더욱 공고하여 질 것이며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공동적 노력을 단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힘의』 정책은 구라파에서도 최근 더욱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二년에 걸쳐서 자기들의 『힘의』 정책의 주요 도구로 리용할 목적으로 애써 오던 『구라파 방위 공동체』 설치 계획은 작년 여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단결된 노력에 의하여 파탄되고 말았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을 위한 파리 협정을 서구라파 국가들의 의회에서 비준시키려고 발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한세대 동안에 두번이나 독일 군국주의의 침략을 당한 구라파 인민들은 서부 독일 복수주의 군대의 재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라파 인민들의 투쟁은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이 단계에 있어서의 구라파 인민들의 투쟁의 특징은 그것이 효과적인 집단 안전 체계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는데 있다。

쏘련이 제기한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의 리념은 더욱 더 광범한 대중 속에 침투되고 있다。

구라파 각국에서는 지금 복수주의적 서부 독일의 재무장을 예견한 파리 협정의 비준을 반대하는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지어 그 정부가 파리 협정의 비준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까지도 광범한 사회 계층에서 파리 협정의 비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나오고 있다。

구라파 평화 애호 인민들은 새 전쟁의 온상을 만들기 위하여 무모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침략 계층들의 모험적 계획에 대치하여 자기들의 노력을 더욱 긴밀히 단합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계획을 철저히 분쇄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작년 一一월 二九일—一二월 二일에 모쓰크바에서 진행되였던 구라파 제국 회의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힘의 립장에 선』 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평화와 민주 진영의 위력이 오늘처럼 강대한 적은 일찌기 없었다。 평화와 민주 진영의 인민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위력을 시위할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최근 제국주의 전쟁 상인들은 또다시 원자 전쟁에 관한 무모한 소동을 일으키면서 인민들을 위협하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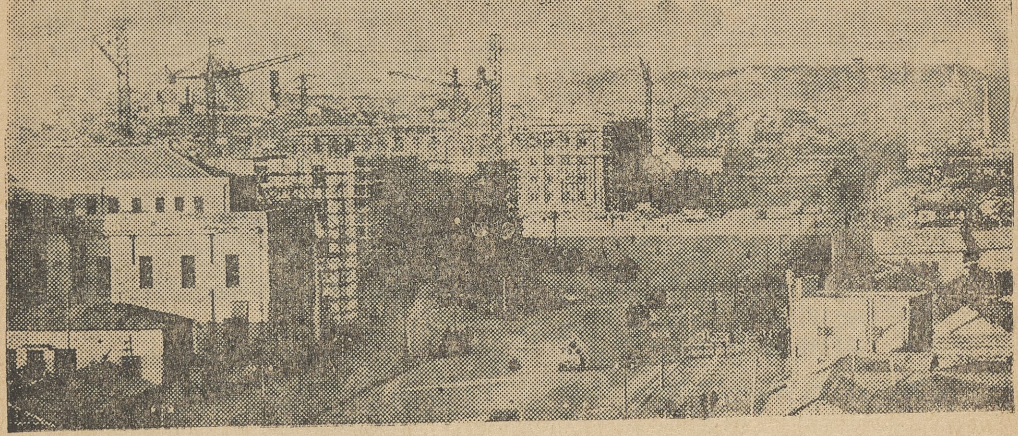
이미 쏘련 내각 수상 그·므·말렌꼬브는 『만약 침략 계층이 원자 무기를 과신하고 쏘련의 힘과 무력을 시험해보려고 분별 없이 덤벼 든다면 침략자는 바로 그 무기에 의하여 진압될 것이며 이와같은 모험은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고 원자 전쟁 상인들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대치하여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평화 애호 진영의 국가들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종 일관하게 실시하고 있다。

평화 애호 인민들의 단결된 위력은 제국주의의 침략 계층들의 모험적 계획을 철저히 분쇄하고야 말 것이다。



# 영웅적 민주수도의 젊은 건설자들



평양은 아름다운 도시다。 을밀대、련광정、대동문 등 유서깊은 고적이 많아 아름다우며 수려한 풍치와 해방후 꽃피여 난 새 삶으로 하여 더욱 아름다운 도시다。 그러나 평양은 미제 야수들의 만행에 의하여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정전 직후에 평양을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파괴의 혹심함에 놀랐을것이며 아름다운 도시와 문화시설을 무차별 폭격한 미제 야수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금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평양은 또 다시 잿데미 속에서 화려한 설계도를 펼쳐들고 힘차게 일어서고 있다!

모란봉 극장의 설계자이며 평양시 도시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건설성 중앙 도시 설계 연구소의 젊은 주임 건축가 강처환 동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대 건축 기술의 정수를 모아 설계된 평양시는 시민들에 대한 봉사성이 높으며 아름다운 도시로 될 것입니다。 평양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풍치와 고적이 현대적 대통로、고층건물과 배합되여 조화를 이루고 균형성、대조、색조가 구성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물、공원、분수、록지대、심지어 라료크 하나에 이르기까지 조화성있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시험삼아 모란봉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요、이미 건설되고 있는 대통로、건물들이 아름다울 래일의 모습을 엿보게 하여줄 것입니다』

평양을 더욱 빨리、더욱 아름답게、더욱 튼튼하고 값싸게 건설하려는 영예로운 건설자들의 열정이 거리와 건설장마다에 끓어 넘치고 있다。

독자들이여! 이제 기자와 함께 건설장을 찾아가자! 거기에서 우리들은 민주수도의 영예로운 젊은 건설자들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엮어지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 것이다。

### 더욱 빠르게!

거리를 몰아치는 강 바람은 살을 어일듯이 매웁다。 참새도 둥지를 떠나기 싫어하는 령하 二〇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그러나 건설장들에서는 추위를 모른다。 민주 수도 건설자들의 뜨거운 심장이 추위를 이기고 있다。

대동강을 건너서면 재정 경제 전문 학교의 건설장이 보인다。 찬 바람을 거슬려 발판우에서 있는 건설자들의 늠늠한 모습이 보인다。 상기한 두 볼이 영채로운 처녀가 벽돌을 쌓고 있다。 그는 리필규 브리가다의 처녀 벽돌공 라순녀 동무다。

『성수가 나는군요』 말을 건네어도 돌아다도 보지 않고 한마디로 대꾸한다。

『몰탈이 식기전에 쌓아야지요』

겨울철 건설 공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 리필규 브리가다원들의 벽돌 쌓기 작업

는 몰탈이 벽돌과 결합되기 전에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장에서는 지난 초겨울, 공사에 착수하면서 기본 건설에 예견된 보일라 공사를 선참으로 하고 가열장치를 만들었다. 여기다 사물을 뜨겁게 저장하여 놓고 현장까지 부설된 레루로 해서 운반한다.

가열한 사물은 벽돌을 규착시킬때까지 랭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축조한 벽돌 매 三단 마다에는 전선을 느리여 전기가열 장치를 하며 몰탈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이는 선진 쏘련의 동기 벽돌 축조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선진적인 작업방법이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여름에 비하여 더욱 세심하게 규률있게 작업하며 작업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첫대렬에 나선 것이 민청원 라순녀동무였다.

겨울작업이여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작업준비가 잘 되지 않는때가 많았다. 준비관계로 적지않은 시간이 랑비되였다. 귀중한 작업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참을수 없는 일이였다. 결심한 그는 작업후 혼자 남아서 자기 브리가다의 다음날 작업준비를 완전히 갖추고라야 손을 뗐다. 작업 장소에 기자재를 정비하는것, 발판점검, 도구정비……

라순녀동무의 모습은 다른 로동자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브리가다로 점점 확대되여 사전 작업준비는 온 건설장의 기풍으로 되게 되였다.

『금년은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인데 농촌이나, 외국에서 많은 손님이 오면 웅장하게 건설된 민주 수도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지런한 손을 멈추지 않았다.

라순녀는 오래전부터 평양시의 영예로운 건설자가 될 것을 희망하였다. 一九五三년 五월 청진에서 건설 직공학교에 들어간 그는 八개월동안 벽돌 축조 기술을 배웠다. 학교를 졸업한 후 소원대로 一九五四년 四월부터 평양의 건설장에서 일하게 되였던 것이다. 자기의 두 손으로 쌓는 벽돌이 훌륭한 건물이 되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공부도 할 것이고 또 주택에서는 단란한 생활을 즐기리라는 것을 생각할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라순녀는 말없고 부지런하며 일잘하는 처녀로 소문이 났다.

그의 이러한 애국적 발기는 건설속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놀았다. 지난해 이 건설장에서는 二〇〇—四五八%로 자기들의 계획을 초과 실행하였다.

그들은 동기 건설작업에서 엄한과 기타 작업 조건이 나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브리가다에서는 금년 一월 상순 계획을 一二五%로 초과 실행하였다.

건설장의 젊은이들 속에는 더욱 빠르게 민주수도를 복구하려는 증산경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 라순녀 동무

추위를 이기며 룬환선의 하수도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장에는 네개의 청년 작업반이 서로 경쟁을 체결하고 작업하고 있다.

더욱 빠르게 건설하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어 일하는 그들을 위하여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려는 수송 전사들은, 견인차 련결 운동을 일으켰다.

폐품을 재생하여 만든 견인차에는 두톤의 건설 자재를 더 싣게 된다. 그것은 제한된 운수 기재로 더 많은 자재를 더욱 빨리 건설자들의 손에 보내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건설장과 공사장들에서는 추위를 이기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심장들이 오직 『더욱 빠르게』라는 구호로 고동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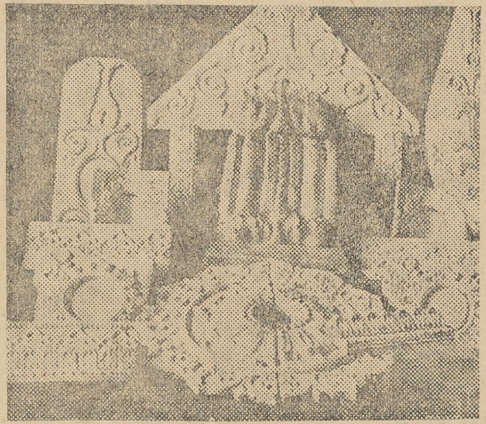
## 더욱 아름답게!

평양은 벌써 도시 구성에 있어 한폭의 미술작품처럼 아름다운 도시다. 아름답게 건설되는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경탄에 찬 눈을 끄는 것은 매 건물의 아름다운 단장이다.

우아한 건축 양식에 배합된 처마 바침, 란간, 조각… 그리고 집안에도 아름다운 장식들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는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민주 수도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려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받아 장식 조각공들이 고층 건물들을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있다.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평양을 위하여 훌륭한 손재주와 슬기로운 지혜를 바치고 있다. 내각 각성 종합청사에는 홍명초동무를 반장으로 한 三四명의 젊은 장식 조각공들이 일하고 있다.



* 민주 수도 평양의 고층 건물들을 아름답게 단장할 건축 미술 조각품들

그들은 이미 내각 사무국, 모란봉 회의실, 김일성 종합 대학, 도서관등에서 일하고 지난 九월부터 종합 청사의 장식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만든 처마 바침 몰딩은 형도 아름다울뿐더러 표면이 고와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 조각에는 젊은 이들의 노력이 스며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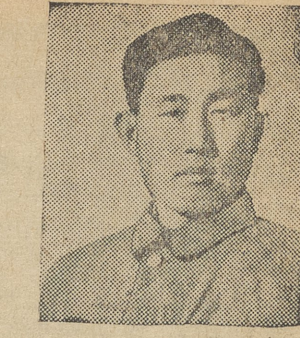
二十一세의 청년 구룡수동무는 화건법을 창안하였다. 화건법이란 모형을 불에 충분히 건조해서 복사하는 방법이다. 지난 시기까지 모형에 쎄멘트를 다져넣고 건조해서 떼내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랑비되였다. 그리하여 쏘련의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분리제를 사용해 보았다. 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으나 기술 부족으로 모형과 제품이 물려서 표피가 곱지 못했다. 수정을 해도 역시 아름답지 못했다.

좀 더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내려는 열망과 노력은 그로 하여금 끝내 모형 건조법을 창안케 하였던것이다.

건설의 속도가 높아가고 일어서는 다층 건물들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장식 조각공들이 더 많이 수요되였다. 원래 우리 나라에는 장식 조각공이 많지 못했다.

그리하여 김명옥, 구룡수 등 쏘련에 가서 선진 기술을 공부하고 온 동무들이 중심이 되여 기능공 양성 사업이 시작되였다.

당과 정부는 전재로동자 학교에 장식 조각과를 설치하고 새로운 기능공을 양성할 대책을 세웠다. 전재 로동자 학교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평양을 위하여 자기들의 재능을 바치려는 열망을 말하였다. 그들속에는 자동차 수리공을 하



＊ 전태백 동무

던 동무, 초급중학교를 갖나온 동무, 미장공으로 일하던 동무들도 있었다.

홍기현동무는 이렇게 하여 작업장을 찾아 온 동무의 한사람이였고 구룡수동무의 지도밑에 불과 一년 남짓한 기간에 六급공으로 된 동무이다.

그들이 종합청사에 와서 첫 처마바침을 만들었을때 그 표면이 곱지 못하고 잔 금이 많이 간 것을 발견했다. 이런 작품이 계속 나왔다. 홍기현동무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만든 이 조각품들은 평양시와 함께 영원히 전하여 질 것이다. 어떻게 이런 졸렬한 작품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나 자신의 수치이며 우리 시대의 수치로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장이며 교사인 구룡수동무와 의론하였다.

그들은 세심한 검토끝에 사물의 혼합이 잘 되지 않은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고루게 혼합되지 못한 곳이 나온다. 체로 처서 하면 좋았다. 혼합을 균형적으로 정밀히 해야만 조각 제품은 고와질 것이다……홍기현동무는 이때로부터 정교한 혼합기 연구에 착안하였다.

구룡수동무가 그의 연구를 도와 주었다.

어느날 홍기현동무는 문득 풍구를 생각했다. 부채살 우에 사물을 놓고 회전시키면 혼합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동 사물 혼합기를 만들어 냈다. 시험 제작하여 사용한 결과 품 질이 우수한 제품이 나왔다.

풍구형으로 만들고 아래쪽으로 체를 씨린다에 련결시킨 이 기계는 앞으로 세멘트 공사의 딴 부문에서도 많이 리용될 수 있는것이다.

그들은 오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래일의 더욱 우수한 작품을 위하여 자기들의 기능을 높이기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만 十七명이 一—二급씩 올라갔다.

건물이 아름다웁자면 미장이 잘 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평양시내 수많은 청년 미장 브리가다들중에서도 송덕훈 영웅의 지도를 받으며 국제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전태백 청년 작업반이 이름높다.

평양시 민청 위원 한사람과 중구역 민청 위원 一一명이 있는 그의 작업반은 지난해 미장작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여 트레스트적으로 모범 브리가다 칭호를 받았다. 그들은 지금 국제호텔 내부의 천정의 미장과 몰딩 조립을 하고 있다.

전태백은 새해를 맞으면서 열린 종업원 궐기 대회에서 이렇게 토론 했다.

『우리는 미장 시공을 정교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열성을 다 바치겠다. 우리가 미장한 이 방에는 수많은 외국 손님들이 와서 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외국 손님들에게 조선 인민은 싸움에서만 용감한 것이 아니라 로력에서도 용감하며 슬기로운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작업성과로 뵈여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름답게 꾸민 방에서 그들이 우리 나라에 와 있는 동안을 유쾌하게 지낼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금년 자기 브리가다에서 작업능률을 二五○%로 높이고 조립식 작업방법으로 몰딩과 깐돈을 시공함으로써 더욱 아름답게, 더욱 빠르게 자기들의 작업을 실시하며 금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겠다고 맹세하였다.

### 더욱 값 싸게!

우리 조국은 지금 우리 력사상 처음 보는 대규모의 건설을 하고있다. 건설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절약하고 원가를 저하시킨다면 우리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인민 경제의 자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민주 수도의 영예로운 건설자들은 누구나 잘 알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속에서는 한 그람의 세멘트, 한장의 벽돌, 한토막의 원목, 한개의 못이라도 아끼자는 구호가 일상 생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 특수 사업소 제一공구에 세워지는 건물들의 벽채는 빛깔이 아름다워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을 끈다. 하늘색, 검붉은 색, 푸른색이 흰 바탕에 연하게 돋는 이 벽채 미장방법은 二五세 나는 미장공 정공률이 창안한 것이다. 이 창안은 세멘트를 절약하려는 그의 념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였다.

그는 처음에 재래로 조선에서 벽채를 치는데 점토를 사용해 오던 사실에 주목했다. 『점토를 섞어서 쓸 수 없을가? 강도가 보장될가?』 반신 반의하면서 연구하고 있을때 현장 기술 지도원 허백동무가 석회 가세잉과 점토를 배합하여 세멘트를 대용하는 방법을 창안했다는 것을 알았다. 정공률동무는 곧 허백동무를 찾았다.

허백동무의 기술적 지도로 석회몰탈과 붉은 점토를 써서 강도가 세멘트와 동일한 점토 몰탈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점토의 배합에 따라 각이한 색조가 나타나서 미관상도 더욱 좋았다.

지난날까지 일부 로동자들은 나무토막 남은 것을 함부로 버려 랑비하거나 못이 땅에 떨어져있는 것을 못 본척 짓밟고 다니는 것을 보고도 말하는 사람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그것쯤 너무 야박하게 그럴것 있나』

라는 생각이 일반적 현상이였다.

그러나 민청원 리세훈 동무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이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는 생각키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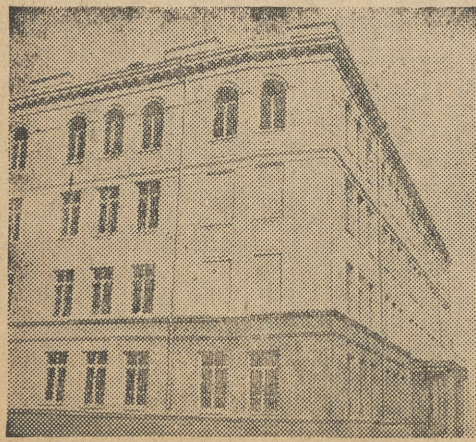
『그것은 귀중한 자재가 아닌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는 끝내 한 나 많은 로동자와 다투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조 일석에 시정되지 않았다. 그는 로동자 하나가 나무 토막을 함부로 던지는 것을 결정적으로 간섭해 나섰던 것이다. 직맹위원장 앞에 로동자를 데리고 온 그는 엄격한 어조로 나무토막을 랑비한 로동자에게 말했다.

『이것도 국가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작다해도 싸이고 싸이면 얼마나 큰 국가의 귀중한 재물인가?』

정색한 그의 어조는 자못 엄숙하였다.

그를 선두로한 민청원들의 투쟁으로 건설장에서는 국가의 재산을 아끼는 분위기가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다.



＊ 완공에 가까워 온 유자녀 학원

누가 발기해서 어느 브리가다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각 브리가다에는 못을 주어 담는 통이 설치되였다. 박다가 꾸부러진 못, 길에 흘린 못, 한번 사용했다가 뺀못—이렇게 로동자들은 눈에 띄이는대로 못을 주었다.

얼마 지나서 지난 一월 十五일에 통을 열었을때 그 속에는 四인치 양정을 포함한 六二키로의 못이 모여 있었다.

이 얼마나 큰 물자인가?

이 건설장에서는 자재 취급에서 낡은 태도가 점차 시정되여 가고 있다. 매 사람이 주인이되여 자재를 아끼고 있으며 절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벽돌공들은 벽돌하차시 二○%의 파손률이 나

던 것을 ○·五%로 저하시켰고 그전에는 그대로 집어 내버리던 파손 벽돌을 지금은 거의 전부 활용하고 있다. 기초공사행정에서 헌벽돌이 수많이 수집되였다.

목공장에서는 목재 회수 장소가 설치되였다. 그전 같으면 함부로 버리던 나무토막이 모두 이곳으로 모였다.

지난 一월 十五일에 그들은 자기들이 지난四·四분기에 이렇게 절약한 것이 쎄멘트 二三二톤 벽돌 회수 二만八천매、목재 二○一립방메터、원목 九三립방메터(이목재로 그들은 로동자 주택 四○세대를 건축하고 민주선전실을 확장하였다) 못 六二키로、석회 一三○톤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전체 공사 원가의 一○%를 저하시킨 것으로 되는 것이였다.

그들은 한 그람의 쎄멘트、한장의 벽돌、한토막의 나무、한개의 못을 절약하면 얼마나 많은 리익을 국가에 줄 수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알게되였다.

이러한 절약 운동은 제九 건설트레스트의 로동 청년들속에서도 전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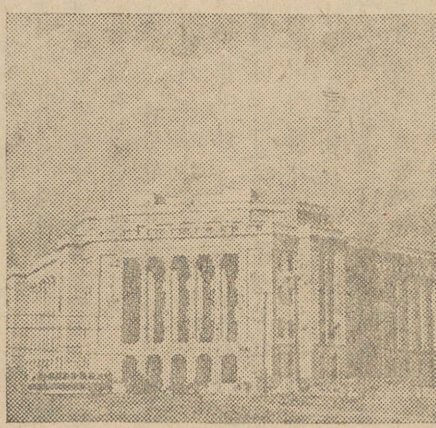
지난해 민청브리가다에서는 三만二천매의 벽돌을 회수 사용하였으며 김봉순동무는 三천평방메터의 초자 절단 작업에서 五二○평방메터의 초자를 절약하였다.

× ×

영예로운 민주수도는 이해에 더욱 화려하게 더욱 웅장하게 건설될 것이다.

각성 종합 청사는 금년 八월에 준공될 것이며 규모가 더욱 큰 각성 종합청사 제二호가 착공될 것이다.

국제 호텔은 오는 四월부터 외국 손님들을 맞게 될 것이며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오는 八월에、평양역사는 七월에 완공될 것이다.


* 웅장하게 일어서는 내각 사무국 청사

남구역에는 四○○명을 수용할 수 있는 려관이 八·一五까지 준공되며 유자녀 학원이 오는 四월에 준공되고 웅장한 규모의 기숙사가 착공될 것이다.

신창리에는 아동궁전이 건설될것이며 八○○개의 좌석을 가진 중앙 영화관이 一○월까지 준공될 것이다. 건평 二、四八二평방메터의 국립 영화 촬영소는 十一월까지 복구 증설된다.

김책공업 대학 우측 교사는 금년 一一월에 준공되고 七월부터는 대학 본관 신축 공사가 착수된다.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 실험실을 비롯한 많은 부속 건물들이 완공되고 의학대학도 一一월에는 준공된다. 그밖에 특별 병원、평양 제一병원 신축 전물이 七—九월에 완공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제약공장이 신축 될 것이다. 그밖에 대규모의 목욕탕、식당등이 중구역에 건설될 것이다.

대통로들이 금년에는 포장을 완료할 것이며 보통문 거리에 상하 수도가 매몰되고 평양역—평천리 구간에 간선이 부설되며 역전 광장이 근대적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급수의 원활을 위하여 제一수원지가 대규모로 확장될 것이며 모란봉과 해방산에는 훌륭한 공원이 시설되여 근로자들에게 즐거운 휴식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수 많은 전물들과 공원 편의시설들이 신설될 것이다.

이것이 一九五五년도에 새롭게 일어설 아름다운 민주수도 평양의 모습이다.

화려하고 부강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의 심장 민주 수도—평양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웁게 일어서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민주수도 평양의 젊은 건설자들은 오늘도 영예로운 로력을 바치고 있다.

김 영



# 영예의 로력 고상한 표창

## 그는 一九五七년도 계획 실행에 들어 섰다

—로력 영웅 조두실 동무—



검덕광산 채광공 로력영웅 조두실 동무—그 이름은 지금 공화국 청년의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특히 근로 청년들속에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공화국의 이름난 청년 로력 혁신자이다.

로력 영웅 조두실 동무는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자기의 채광 실적을 실로 놀라운 높은 지표로써 초과 실행하고 있다.

조두실 영웅은 지난 一월 七일에 三개년 계획에 해당한 자기의 채광 계획을 一○○·三%로 초과 실행하였다.

이 빛나는 승리적 성과는 동 광산 전체 청년 로동자들의 증산 열의에 더욱 세찬 불을 일으키게 하였고 공화국 전체 청년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더 일층 두텁게 하고 있다.

로력 영웅 조두실 동무는 一九五四년 자기 계획을 지난해 三월 九일까지 완수하고 계속 一九五五년에 부과된 채광 계획을 이미 지난해 一○월 二○일까지에 완수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쟁취한 성과에 자만도 취함이 없이 一九五五년 계획보다 더욱 방대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로력적 위훈을 떨침으로써 三개년 계획에 예견된 一九五六년 자기 계획량을 불과 二개월반 동안에 수행하였다.

조두실 로력 영웅 자신이 설정하고 실행한 그 계획 자체는 해마다 장성될 자기 기능을 확신하고 그 기준량과 생산량 자체도 증가될 것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작성된 것이였다.

이런 구체적 자기 계획을 강력히 실행한 그의 불굴의 투지는 마침내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서의 자체 목표를 一개년 七일동안에 완수케하였다.

청년 로력 혁신자 조두실 동무의 이 빛나는 성과는 채광에서 대공발파법을 창조적으로 도입 적용하였고 그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락광 실적을 계속 제고한데서 이룩된 것이다.

그는 지난해 六四미리메터의 대공경으로써 천공하고 심공 상향、계단식 발파 방법을 적용하기에 성공하였다.

조두실 동무는 이 작업에서 종래에 사용하여 오던 四二미리메터 정으로의 소공 발파 방법 대신에 훠크식 대공경으로 대담하게 천공함으로써 종전보다 천공 속도 및 최소 저항선을 二배 이상으로 제고하였으며 폭약 장입 밀도를 증가시켜 발파 효률을 현저히 제고시켰다.

새로운 선진 기술을 도입 적용함에 가장 날카로운 감수성을 가진 그는 천공 위치 선정에서도 새로운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락광 지표를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지어놓았다.

조두실 로력 영웅은 작업 준비 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도 중요시하였다. 즉 이는 정상적 작업의 합리화를 위한 그의 부단한 관심속에서 착안된 것이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협조원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켜 천공 시간을 더욱 증가 시키는 것이였다. 천공 시간 증가를 위해서는 이 밖에도 정교환、아무 이동、공좌 설정 시간등을 최소한도로 단축시키는 투쟁을 긴장성있게 겸행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조두실 동무는 천공준

비 작업 시간을 五〇% 단축시켰으며 순 천공 시간을 六시간 五분간씩 정상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는 천공의 기술적 조작을 더욱 합리화하기 위하여 천공 공심을 三·二메터, 천공수는 八개로, 총 공심 연장은 二五·六메터로 하고 이를 광맥 주행 방향으로 정확히 천공하되 二개의 자유면을 정확히 보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일련의 꾸준한 투쟁으로 하여 지난해 九월 一五일에는 一二四二톤을 락광하였다면 동월 一八일에는 四三二톤, 다음날에는 九五二톤 등 실로 놀라운 락광 실적을 내는 기록적 성과를 전취하였다. 그러나 조두실 동무는 이로써 결코 만족치 않고 이미 쟁취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계단식 및 산형식 채굴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채굴 방법을 적용하여 그는 다기대로써 八시간에 공심 연장 三·二메터짜리 三〇공을 천공하여 지난해 一一월 二五일에는 一회 발파에서 一、一〇六톤, 동二七일에는 一、三一八톤을 락광함으로써 실로 기준량에 비하여 四、三九三·三%의 놀라운 기록적 성과를 창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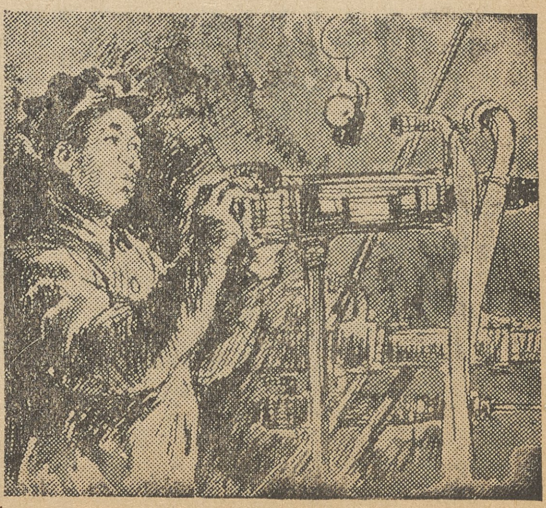
이 기간에 그의 기준량 장성 템포는 대당 二〇톤으로부터 二五톤、三〇톤、四五톤으로 점차 제고되였고 현재에 와서는 六〇톤의 기준량으로 장성하였고 로동 생산 능률은 가동 일수에 비하여 평균 七九八%로 제고시키고 있다.

그의 창조적 작업 방법인 대공 발파법은 다만 락광량을 현저히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폭파 화약의 원 단위 소비 기준을 九三%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동반하였다.

로력 영웅 조두실 동무의 머리에는 항상 새것에 대한 한없는 관심과 창조적 적용을 위한 선진적 작업 방법에 대한 부단한 연구심이 가득차 있다. 로력 영웅 조두실 동무가 달성한 빛나는 성과는 그의 새롭고 힘있고 믿음직한 의견을 적극 지지해주며 그의 창조적 로력 방법에 대하여 부닥쳐오는 난관을 제때에 해결해 준 이 광산 초급 당 단체와 행정 지도 일꾼들과 기술 지도 일꾼들의 성실한 지도 방조가 든든히 안바침되고 있다.

청년 로력 혁신자 로력 영웅 조두실 동무는 앞으로 더욱 빛나는 로력 성과로써 오늘까지의 자기 성과를 더욱 높은 단계로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지에 충만되여 오늘도 착암기 정을 굳은 돌속에서 힘있게 돌리며 로력하고 있다.

조두실 동무가 달성한 높은 로력적 결실은 이 광산 전체 청년 로동자들을 더욱 힘찬 증산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 전체 광산 청년 로동자들의 산 모범으로 된다.



지금 로력 영웅 조두실 동무는 자신의 결의이며 계획이며 실천적 투쟁 강령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달성한 성과와 현재까지의 기준량 장성 템포를 전제로 하여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의 마지막 해인 一九五六년말에 이르러서는 금년 계획량을 기준으로 五개년에 해당한 생산량을 실행하며 초과 완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로력 영웅 조두실 동무의 그 다운 믿음직한 결의이며 그는 또한 자신 만만히 이를 실천 보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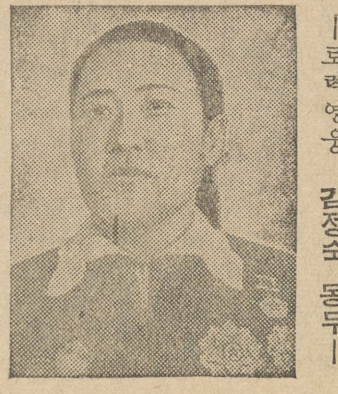
류 경 찬



## 복구 건설장에서

# 완강성과 창발성의 모범

—로력영웅 김정숙 동무—



함흥 제사 공장 김정숙 동무는 조사 작업에서 립조식 방법을 창안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전체 조사공들 속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一九三二년 함남 장진군 장진면 화가리의 빈곤한 로동자 가정에서 탄생한 그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살림 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조국이 위대한 쏘련 군대의 힘으로 일제 통치하에서 해방된 후부터이다.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이 전인민의 소유로 된 이후부터 공장에 진출하고 싶은 정열은 어린 가슴에 늘 들끓었다. 그리하여 그는 一九四八년 함흥 제사 공장에 조사공으로 들어갔다. 그 이래 선진 조사공들의 작업 방법을 연구하여 조사 기능을 높이는데 늘 힘써왔다. 그의 꾸준한 로력은 그로 하여금 三개월만에 四급공으로 되게까지 하였으며 그해 년간 계획을 一五二%로 초과 완수할 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원쑤들의 악랄한 폭격과 기총 소사 속에서도 그는 어느 한시 생산을 위한 손을 멈추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대를 눈동자처럼 애호하면서 생사 증산에서 온갖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여 一九五一년에는 一四一%、一九五二년에는 一四九%로 년간 계획을 초과 완수하였으며 一九五三년에는 八월 一五일까지 년간 계획을 완수하고 년말까지는 二〇六%로 넘쳐 실행하였다.

김정숙 동무는 로력 영웅 당운실 동무의 좌조식 작업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매일 자기 조사기에서 작업 공정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가 고안하던 립조식 작업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기에 노력하였다. 공장 당 단체와 민청 단체는 백방으로 되는 온갖 방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드디여 一九五三년말에 립조식 작업 방법을 창안함에 성공하였다.

그는 언제나 작업 개시 三〇분 전에 현장에 나가 기계의 회전 상태를 점검하면서 기대 청소를 철저히 함에 힘써왔는바 특히 그는 집서기에 고착된 세시링을 깨끗이 닦으며 삭서비를 충분히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 준비가 끝나자 그는 삭서、초서、첨서、계사 등의 순환 작업을 계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으로써 조사기 회전 속도를 종전의 一분간 六五회로부터 一三〇회까지 높였으며 기계 가동률은 八七% 이상으로 제고시켰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에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은 二〇〇% 이상으로 높여 一九五四년도 년간 계획을 七월 一四일까지 완수하였으며 년말까지는 계속 자기 계획을 二〇三%로 초과 실행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정숙 동무는 제품의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실수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이는 아주 어려운 과업이였다. 그는 지난날 실수률이 제고되지 못한 중요 원인이 삭서 가마와 조사 가마의 온도 조절이 불합리한데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삭서 가마 속에서 고치가 지내 끓음으로써 고치 내의 세시링이 과다하게 용해되여 많은 실오리를 내여 락선률이 증대된 것이였다. 김정숙 동무는 삭서 가마의 온도 八〇—九〇도、조사 가마의 온도

는 三○—四○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적당함을 발견하였으며 삭서 가마에는 항상 고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면서 조사 가마에도 언제나 예비 고치를 준비하였다. 또한 종전까지 삭서 회수를 四○회 진행하던 것을 二五회로 단축함으로써 삭서 시간을 九초나 단축하였으며 삭서비를 가볍게 돌림으로써 견층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치의 실수률은 지난해 상반년에 비하여 하반년에는 二·四%나 더 높였으며 년간을 통해 二四、九二四키로그람의 고치를 절약함으로써 국가에 一,○○○만원 이상의 리익을 주었다.

생산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은 곧 실의 섬도를 균일하게 함과 동시에 실마디를 적게하면서 색깔을 곱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생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첨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치의 배합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즉 가을 고치에 있어서는 외피 다섯알、중피 두알、내피 두알의 비률로 한 접서기에 정상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와같이 한 결과 그는 八○% 이상의 一등품을 생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숙 동무는 이상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자기의 조사 방법을 많은 조사공들 속에 일반화하여 뒤떨어진 동무들을 급속한 기간내에 자기 수준에 까지 끌어 올리기에 힘썼다.

그는 매주일 一회씩 진행되는 기술 전습회에서 타동무들을 알기 쉬운 방법으로 친절히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을 리용하여 반복 전습함으로써 오임순、리봉옥 동무를 비롯한 二八명의 우수한 기능공들을 직접 길러내였으며 공장 당 단체와 직맹 및 민청 단체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자기의 작업 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 전습 사업을 완강하게 진행함으로써 지난 一년간 전 공장적으로 一三五명의 기능공들을 양성케 하였다. 김정숙 동무의 작업 방법이 이와 같이 광범히 전체 조사공들에게 보급됨에 따라 매개 로동자들의 로동 생산 능률은 현저히 제고되여 함흥 제사 공장에서는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을 량、질적으로 우수하게 보장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세차례에 걸친 경공업성 순회 우승기와 一차에 걸친 내각 우승기를 수여받게 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사 작업에서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새 작업 방법을 창안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준 김정숙 동무에게 지난해 一二월 三○일 영예의 로력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영예의 로력 영웅 칭호를 수여받은 그는 가슴 흐뭇이 벅차 오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직 대중 소비 필수품 생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생산 과제를 넘쳐 완수함으로써 이에 보답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새해에 들어서 그의 증산 투쟁은 더욱 치렬히 전개되고 있는바 지난 一월 一一일 하루만 하여도 그는 자기 계획을 二○○% 이상으로 초과 실행하였다. 그는 금년에 삭서 작업을 비롯한 초서、첨서、계사 등 작업 시간을 七초 이상 단축함으로써 七월 二○일까지 계획 과제를 완수하며 나가서 一九五六년도 계획량도 금년 九월 二○일까지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온갖 애국적 열성과 창발성을 기울이고 있다.

**김 병 린**





민청 생활

# 민청 교양 체계에 있어서 선전원들의 사업에 대하여

민청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교양 과장 **허 성 익**

민청원들과 청년들에 대한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 과업이다. 따라서 민청 교양망들을 지도하는 선전원들의 사업은 영광스럽고 고상하다. 이와 동시에 선전원들의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곤난하며 책임적인 사업이다.

민청 교양망들에서의 정치 학습의 성과는 주로 선전원들의 구성과 그들의 준비 여하에 관련된다.

레닌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모든 정치학교 학습의 사상적 정치적 방향은 전부 그리고 완전히 강사 구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체 학습에 대한 검열、지도、제강、규약、기타 모든 것은 강사 구성에 비할때 헛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검열도 어떠한 제강들도 강사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학습 방향을 변경시킬 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선전원은 당과 정부의 정책 실행에서 지극히 충실하고 모범적이며 정치 사상적으로 견고한 일꾼이라야 한다.

선전원들은 다만 초급 정치 크루쇼크나 정치학교 청강자들 앞에서 연설이나 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임무는 청강자들을 당과 수령에의 충직성과 헌신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우리 조국의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열성적 투사로 되게끔 적극 도와주는데 있다.

그러나 일부 선전원들은 학습 진행에서 생기있는 해설과 담화 대신에 흔히 연설식 방법과 또는 필기 전달로 그치고 있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사상적 내용이며 정치적 예리성이며 생생한 현실과 능숙하게 련결시키는 문제이다. 이것은 선전원들의 리론적 준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청강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학습지도 방법에도 크게 관계된다.

『온갖 선전원 및 온갖 선동원의 기술은 청중들에게 일정한 진리가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확증되도록、될 수 있는대로 쉽게 파악되도록、될 수 있는대로 확고 명확하게 기억되도록 하면서 그 청중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데도 있는 것이다』라고 레닌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학습 지도 방법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양망 지도자들은 아직 미약하게 준비되여 있다.

이것은 결국 학습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 * *

선전원들의 학습 지도의 성과는 교수에 대한 그의 준비에 달려 있다.

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 할찌라도 항상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을 향상시키며 교수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성과는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원들은 자기의 사상 리론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학습 지도 방법을 체득할데 대하여 항상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매 교수 준비에 심중한 고려를 돌려야 한다。초급 정치 크루쇼크와 정치학교들에서 취급할 제목의 모든 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연구하며 교수안을 면밀히 작성하며 또는 제목의 내용을 철저하게 밝히며 명백하고 기억에 확고히 남게할 수 있는 해설의 준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이를 위하여 많은 문헌들과 참고 서적들을 연구하며 잡지와 신문들의 론문을 읽으며 학습에서 청강자들에게 전할 문헌들과 보충으로 리용할 직관물、문예 작품、신문、잡지에서 발취한 자료등 청강자들과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학에 대한 선전원들의 개념적 준비는 다만 그 사업의 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학습에서 선전원들의 능숙한 해설은 상학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선전원의 해설은 제목간의 론리적 련결을 짓기 위하여 지난번 학습 제목을 짧게 반복한후 새로 학습할 제목의 설정과 그의 목적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다음으로 학습할 제목의 내용 해설에로 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습 제목의 기본 문제들의 본질을 청강자들에게 알리고 그를 당 정책과 옳게 련결시키는데 있다。

해설은 흥미있고 알기 쉽게 진행하여야한다。그렇다고 하여서 해설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약하게 취급하거나 론증 없는 잡담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해설은 어데까지나 사건의 발생 원인과 그 발전 과정들을 밝혀야 한다。

학습에서 선전원들의 해설이 어떠한 말로서 진행되였는가 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선전원들은 간결하고 명백하고 일반이 잘 리해 할 수 있는 말로써 해설할 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선전원들은 자신도 잘 리해 못하는 복잡한 정의들과 암기해 두었던 기묘한 구절과 술어와 일반이 리해하기 곤난한 론문같은 문장체의 까다로운 말을 자랑삼아 쓰기 좋아하는 연설꾼들이 있다。우리는 이러한 해설 방법을 배격하여야 한다。

선전원의 해설은 청강자들의 가깝고 당면한 구체적 제과업들과 현 국제 국내 정세의 제문제、당과 정부의 정책들과 련결되는 사건과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선전원들은 당의 투쟁 목적과 과업들을 심오하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청강자들의 실천적 투쟁과업들과 그들의 생활을 연구하며 파악하여야 한다。

해설에서 지방적 자료들을 리용한다는 것은 청강자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게 하며 학습에서 해설과 담화를 활기있게 한다。그러나 지방적 자료들은 정치 학습에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부차적 역할을 노는 것이며 기본적인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해설에 직관교재를 리용하는 것은 청강자들로 하여금 자료를 더욱 완전하게 더욱 깊게 소유하게 하며 문제의 본질을 더욱 훌륭하게 체득케하며 사건과 사실을 더욱 확고히 기억케 하는데 방조를 준다。

해설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지도와 도표、훌륭한 그림과 사진책 등을 사용할 수 있다。례를 들면 우리나라는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이다。제一학습『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취급할때에는 조선 지도를 리용할 수 있다。

해설에서 문예 작품을 리용하는 것은 청강자들에게 학습자





료의 내용을 풍부하게 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인용된 작품들을 스스로 읽어 보겠다는 욕망을 갖게 한다。

학습에서 활기있게 전개된 담화는 정치 학습의 효과적인 형식의 하나이다。담화를 흥미 있게 진행하며 청강자들에게 필요한 정치 지식을 심오하게 소유시키기 위하여서는 선전원들과 청강자들이 사전에 담화를 잘 준비하여야 한다。

선전원의 담화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 제목별 자료를 연구하며 또 담화안을 수립하며 흥미 있는 실례와 지방적 자료를 적응하게 선택하는데 있다。

선전원은 담화안을 미리 숙고하고 토론을 시키기위한 제 문제와 이에 적응한 직관 교재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담화를 흥미 있게 진행하려면 문제 설정을 옳게 하여야 한다。

담화는 일문 일답식이 되지 말아야 하며 전체 청강자들을 참가시키는 기초에서 창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선전원은 청강자들에게 이미 학습한 문제에 대하여 청강자 자신들이 토론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리하여 담화는 어데까지나 자연스러워야 하며 청강자들의 깊은 관심과 흥미속에 진행되여야 한다。

담화는 학습제목의 리론적 자료만을 포함 할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와 결부시켜야 한다。

선전원들은 학습한 내용을 기억에 고착시키기 위하여 담화 끝에 매 문제 마다 결론을 지어 주어야한다。

선전원들은 청강자들의 매개 개성을 고려하여 취급함으로써만이 학습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학습의 성과 여부는 청강자 자신이 상학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발휘하며 그들이 성의 있게 준비를 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선전원들은 청강자들에게 과제를 주어 그들이 모두 흥미를 가지고 서적에 끌리여 가도록 하며 책을 읽고 기억하도록 청강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 ※ ※

민청 단체들은 선전원들의 사업에 일상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들에서 매월 조직 진행하는 선전원 쎄미나르는 선전원들을 방조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쎄미나르에서는 당면 취급할 제목에 대하여 강연을 진행하며 제목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더 잘 실시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 문제들을 해결하며 제목의 연구 계획과 참고서적 및 직관적 자료들이 소개되며 그들의 경험들이 교환되여야한다。

쎄미나르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방법론인바 ― 선전원들은 어떻게 교수를 준비할 것인가、어떻게 담화를 진행할 것인가、어떻게 직관교재들과 지방의 실지 자료들을 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구체적 방조를 주어야 한다。

경험 교환에서는 담화 진행방법、직관자료리용、지방자료、교수과정에 대한 경험등이 활발히 교환되여야 한다。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들은 개별적인 선전원들의 실지사업을 정상적으로 분석하며 선전원들의 비판적 의견、그들의 고귀한 경험들을 적극 받아 들여 일반화하여야 한다。

도 시 군(구역) 민청 위원회는 선전원들에게 학습용 참고자료、참고문헌、직관교재들을 알선 공급하여 주며 그들을 위한 보충 강연을 정상적으로 조직해 주어야 한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정치 교양의 사상적 내용과 질적 수준제고는 선전원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선전원들과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일상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 전투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 젊은 해병들의 군정 훈련

김 성 진

근위 어뢰전대라면 조선의 모든 청년들의 그 누구나를 물론하고 一九五一년 七월 주문진 앞바다의 해전을 회상한다.

영웅 김 군옥 어뢰정장이 지휘하는 단 四척의 어뢰정은 수백 수천의 포탄이 물기둥을 이룬 가운데를 뚫고 순식간에 적 순양함을 격침시켰다.

세계 해전 력사에 일찌기 류례없은 가렬한 전투에서 청소한 조선 인민군 해병들은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을 전세계에 시위하였으며 미군 해적들로 하여금 공포의 치를 떨게 하였다.

영광스러운 근위 칭호의 전투적 전통에 빛나는 동구분대 성원들은 오늘도 그의 자랑찬 영예를 지니고 조국의 해경을 튼튼히 수호하고 있다.

「우리의 함정은 현대 과학의 정수를 자랑하는 정예 무기중의 하나입니다—정치부 전대장 리선진은 말한다—그중에서도 어뢰정이라면 「바닷 비행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더없이 빠른 속도, 종횡 무진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동성, 정확하고도 민속한 어뢰 발사의 장치, 비록 그 체구는 작지만 어뢰정의 전투 성능은 매우 강대합니다. 우리 구분대내 배개 성원들은 우리가 다루는 전투 기재의 우월성에 대하여 절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함정을 애호 관리하며 기술 기재의 정통을 위하여 선배들이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근위 칭호의 영예를 더욱 빛내기에 온갖 열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병들의 긴장한 군정 훈련은 철을 가리지 않고 또 륙지에서와 해상에서 계속된다. 어떤 로병들은 「훈련이 실전 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근기있고 완강한 기술상학, 사소한 해이성도 용허하지 않는 절도있는 내부생활—이 모든 것이 높은 긴장성과 경각성밑에 진행된다.

동기 군정 훈련이 시작되였다. 구분대 민청 단체는 「동기 군정 훈련의 전야」라는 제목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민청 각급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동기 군정 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로써 맞이할 것을 젊은 해병들에게 호소하였다. 총회에서는 군정 훈련이 반복된다 하여 훈련의 의의를 과소 평가하거나 자기의 기성 지식에 만족하고 학습에 태만하는 일체 부정적 경향을 경고하였다. 구분대내 벽보 「어뢰」를 비롯한 전투 소보들도 민청 총회 결정에 보조를 맞추었다. 초급 선동원들은 「동기 군정 훈련에서 「우」의 성적을 쟁취하자!」 「동기 군정 훈련의 준비는 다 되였는가?」라는 내용으로 개별적 및 집단적 담화를 진행하였다. 젊은 해병들은 한결같이 높은 긴장성과 경각성밑에 동기 군정 훈련에서 「우」의 성적을 쟁취할 굳은 결의를 다지는 것이였다. 앙양된 열의속에 진행된 군정 훈련은 지휘관들과 병사들—상하 일체가 되여 진행되였





다. 기술 상학 지도자 강순봉은 동기 군정 훈련이 시작되자 곧 실물 교육 기재를 준비하는데 모범이 되였다. 그는 폐물을 수집 리용하여 훌륭한 실물 교재를 만들었다. 이 모범에 따라 무전 상학 지도자 서상원도 실물 교재를 다수 장만하였으며 직관물 교재—무전기 도해, 무전기 배전도 등 三〇여종목의 도해를 손수 작성하였다. 상학 지도자들의 열성에 고무되여 훈련에서 배운 지식을 깊이 료해하려는 병사들의 노력도 비상한 것이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상학 시간이 끝나고 잠시 휴식하는 때였다. 고향 자랑에 이야기 꽃을 피우는 전사들, 배운 상학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전사들, 휴계실은 한참 떠들석하였다. 이때 상학 지도자 강순봉은 휴계실로 슬그머니 빠져 나가는 리상철 병사를 보았다. 리상철 동지가 병사들의 이야기틈에 끼우지 않는것이 벌써 며칠째 된 것이다. 상학을 료해하는 정도가 뜬 리상철 전사의 이러한 행동은 상학 지도자에게 심상치 않은것을 암시케 하였다. 상학 지도자는 한참만에 휴계실을 나왔다. 상학장 문 어구에 발을 드려놓은 그는 뜻하지 않은 광경에 부닥쳤다.

얼마전 휴계실을 나온 리상철 병사가 상학장에 설치한 실물 교재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는가? 리상철 병사는 연신 담배 연기를 기관의 한 모통이에 불어넣는 것이였다. 그는 수많은 구멍으로 부터 한줄씩 빠져 나오는 연기를 유심히 드려다 보군 고개를 끼우뚱거리기도하였다. 그는 한참 무엇을 생각하다가는 노트에 연필을 달리는 것이였다. 이 광경을 뒤에서 바라보던 상학 지도자는 비로소 리상철 병사가 휴계실에서 빠져나온 사연을 알았다. 상학 지도자는 말없이 조용히 상학장을 물러 나왔다. 이 일은 구분대내에 삽시간에 퍼졌다.

완강하고도 진지한 리상철 병사의 학습 태도는 다른 해병들의 모범으로 되였다. 배운 상학을 더욱 깊게 료해하려는 젊은 해병들의 열성은 더욱 높아갔으며 상학장 실물 교재에는 더 많은 해병들이 모여 들었다. 일정한 일과에 의하여 진행되는 군정 훈련은 실로 젊은 해병들의 훌륭한 학교로 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진행되는 기술 기재 상학, 각종 전투 훈련과 병행하여 조직되는 정치 상학은 젊은 해병들의 정치적 및 사상적 수준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은 조선 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다」 「조선 인민 군대의 고상한 정치 도덕적 품성」 등 집체적 담화와 강연은 해병들의 긴장한 군정 훈련을 더 높은 성과에로 고무한다.

젊은 해병들인 리상철, 김해렬,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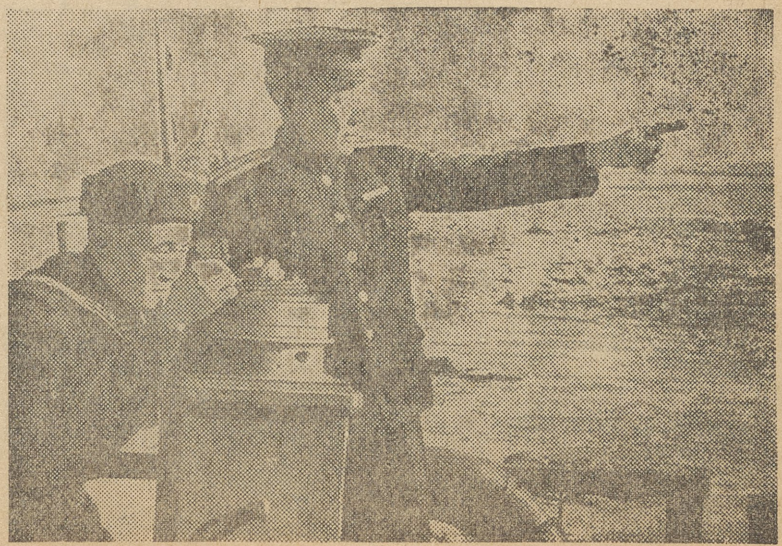
기선은 힘든 기관부문을 짧은 기간에 깊이 료해하고 그를 능숙히 다룰수 있는 훌륭한 해병으로 자랐다。무전병 박제원은 기술소유에 있어서三、四년동안에 배우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정치 기관의 지도밑에 구분대 민청 단체가 때때로 진행하는『어뢰정 제二一호』(김군옥 영웅이 탑승한 어뢰정)『주문진 해전에서의 리완근 영웅』등 제목의 담화는 젊은 해병들을 대중적 영웅주의、전투적 우의와 전우애、자기 부대에 대한 사랑으로 교양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고 있다。구분대에서는『주문진 전투와 기관병』이라는 전투 담화가 열리였다。담화의 보고는 정치부 전대장 리선진이 하였다。보고내용은 주문진 전투시에 기관병들의 영웅성과 자기 희생성에 대한것이였다。그 중에서도 자기 가슴으로 어뢰정의 침몰을 구출한 강순봉 동지의 이야기는 용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정은 불행히도 적의 포탄 파편으로 선체에 상처를 받았다。뚫려진 선체로 부터 물이 쏟아져들기 시작했다。위기일발! 이때 강순봉 동지는 자기의 가슴을 물구멍에 댔다。온 전신을 꿰뚫을듯 억센 수압을 그는 이를 악물고 견디여내였다。목숨을 걸고 물 구멍을 가슴으로 막아냄으로써 정은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다!』정치부 전대장의 보고가 끝나자 장내는 물을 친듯 고요하였다。이여 강순봉 동지의 경험담이 발표되고 많은 병사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이날 병사들은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진실하고도 참된 사람들과 같이 있음을 무한히 기뻐하는 것이였다。병사들은 영웅적인 선배들의 모범을 받아 자기들도 훌륭한 조선의 해병이 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이렇듯 구분대 성원들의 드높은 열의와 긴장속에 진행된 군정 훈련은 十二월 국가 판정 검열에서 구분대 전체가『우』의 성적을 쟁취하였다。

매일 매시각 긴장하고도 보람찬 군무 생활을 통하여 젊은 해병들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백절 불굴의 강인한 의지와 용감성、그리고 고상한 조국애의 정신으로 교양 육성 되고있다。

끝없이 넓고 푸른 아름다운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젊은 초병들의 긍지는 드높다。바다의 젊은 초병들은 원쑤의 어떠한 침습도 용허하지 않을 굳은 결의를 다지고 인민군 창건 七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그들은 구분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보다 완전하게 전투기술 기재에 정통하며 영예로운 근위 칭호의 전투적 전통을 더욱 빛내고저 오늘도 군정 훈련에 자기들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치고있다。



# 민청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자

—민청 각급 지도기관 결산—선거 이후의 몇개 단체사업에서—

김 호

김 학 일

## 창조적으로 일하자

—황해북도 서흥군 민청 위원회 사업에서—

민청 사업은 창조적 사업이다。민청 사업의 내용과 형식은 언제나 고정 불변할 수 없다。만일 민청 단체들이 자기 사업을 고정된 틀에 맞추어 놓고 창조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청 각급 지도기관 결산—선거 회의들에서는 민청 사업에서 고식주의가 허용되고 있으며 생기 발발한 창조적 사업이 결여되여 민청 사업에 대한 민청원들의 열성과 자각성을 감소시켰다는 것이 정당하게 비판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흥군 민청 위원회 사업은 자기사업을 부단히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낡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로 서흥군 민청 위원회는 하부 단체들의 자립적이며 창조적 활동을 약화시키는 관료주의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그것은 초급 단체 총회에서 토의할 안건들을 일률적으로 우로부터 내려 먹이고 있는데서 표현되고 있다。『우리 분 초급단체는 지난 一년 동안에 자체로 안건을 선택하고 총회를 한적은 한번도 없다』고 백암리 복대동 분 초급단체 위원장 유원필은 말하고 있다。

둘째로 군 민청 위원회는 산 조직 사업 대신에 허다한 회의들로써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낡은 사업 방법을 계속하고 있다。작년 一二월에 군민청 위원회는 一주일 동안에 상무 위원회를 두번이나 소집함으로써 군민청 일꾼들이 一〇여일 간이나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세째로 군 민청은 리 민청 위원장들과의 사업에서도 낡은 사업방법을 계속하고 있다。군 민청에서는 지금도 한달에 상무 위원회를 두번하건 세번하건 리 민청 위원장들을 매번 참가시키고 있다。실례로 작년 一二월에는 一주일도 못되는 어간에 두번씩 소집된 군 민청 상무 위원회에 리 민청 위원장들을

두번다 참가시켰다。상무 위원회가 끝나면 책임 간부들로 부터 매개 부문 담당 일군들에 이르기 까지 제각기 리 민청 위원장이 미쳐 료해도 할 수 없을 만한 잡다한 과업들을 제시하고 있다。그리하여 아직 수준이 어린 리 민청 위원장들로 하여금 어느것이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사업인지 분간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군 민청은 이와같이 리 민청 위원장들에게 과중한 짐을 지워서 내려 보내는데 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 부터는 만사가 다 된듯이 손을 턴다。서흥군 민청은 또한 채택한 결정서는 서류철에 얽매여 두고 그 결정 실행을 위한 조직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결산―선거후 二개의 결정 (강원도 민청 단체들의 민청 교양망들에서의 학습 진행 정형에 대한 민청 중앙 상무 위원회 결정 집행에 대한 문제와 기타 한건)을 채택하였으나 군 민청은 이 결정 실행을 위하여 아무러한 조직사업도 진행 하지 않았던 것이다。

네째로 서흥군 민청 위원회는 우리 사업에서의 가장 해독스러운 방법인 문서주의적 사업 방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문서에 매달려 사업하고 있다。그들은 현지 지도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문서로 사업하고 있다。군 민청은 리 민청 위원장 회의 소집에 대한 지시문의 매 장에다 수다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주로 요구하는 통계는 『민청원들의 경제 건설 사업 참가 정형 통계』다。군 민청은 이러한 통계를·수집한데 의해서 그 초급단체 사업을 평가하며 하부 정형을「료해」하고 있다。리 민청 위원장들은 군 민청에서 요구하는 이런 통계를 수집하기 위하여 분 초급단체 위원장들을 부르며 통계 수집을 위하여 돌아 다닌다。바로 서흥읍 민청 위원장 윤동협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이와같은 사무실적 사업 방법은 군 민청 일군들로 하여금 하부 실정에 어두우며 하부에서 발생되는 좋은 경험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오늘 삼천리 삼천동 분 초급단체 초급 정치 크루쇼크 지도자 봉원선은 청강자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하며 문예 작품과 직관자료들을 잘 리용하여 청강자들의 학습 의욕을 제고시키고 있는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만약 이런 좋은 경험들을 군내 초급 정치 크루쇼크 지도자들에게 널리 보급한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산 방조가 될 것인가?그러나 서흥군 민청 일군들은 이런 것을 찾아 보려고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군 민청은 청년들의 교양에서도 여러가지 창발적 형태와 방법들을 적용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없이 교양망의 운영에서는 낡은 방법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정치 학습에 대한 청강자들의 생생한 흥미를 높여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 서흥군 민청 위원회 사업에서 창조성이 마비된 이와 같은 결정적 원인은 군 민청 지도 일군들이 자체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높일데 대한 노력이 없으며 낡은『경험』에만 의거하여 사업하기 때문이다。오늘 민청에 위임된 전투적 과업을 성과있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민청 사업의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민청원들의 적극성과 자각적 열성을 비상히 높일 것이 요구된다。

서흥군 민청 위원회는 낡은 방법과 낡은 경험을 가지고 고식적으로 사업하려는 안일한 사업 태도를 시급히 청산하고 민청사업 각 분야에서 더욱 생기 발발하고 창조적인 사업 방법을 수립하도록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결산―선거 회의들에서 제기된 밑으로 부터의 비판을 심중히 접수 연구하고 민청원들의 요구에 수응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광범히 분공하며 정확히 평가하자

―김책 제철소 민청 위원회 사업에서―

민청 사업의 기본은 협의제이다。민청내 민주주의는 사업에서의 협의제를 요구한다。계획을 공동적으로 작성하며 공동적으로 사업을 분공하여 수행하는 것은 협의제의 주되는 표현이다。동맹적 분공과 위임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찌라도 민청원들을 집단적 규률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조직에 대한 책임성과 민청 사업에 대한 자각적 열성을 높여 주는 중요한 방법으로 된다。

김책 제철소 민청위원회는 결산―선거이후에 이 방면에 적지않은 주의를 돌리여 초급 단체 위원들에 대한 분공을 광범히 조직하며 그것을 제때에 총화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민청 지도기관 성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제철소 민청 제一차 상무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게 부문별 사업을 분공하였다。민청 초급 정치 크루쇼크 지도자로서 경험 많은 위원인 박금옥과 손중모에게 교양망 운영에 대한 지도를 위임하였으며 군중 문화 사업 부문은 그 방면에 소질있는 남명훈과 홍보레에게 위임하였다。그외에 청년 작업반 사업을 로승록、기술 교양 사업지도를 젊은 기사 조병렬에게 위임하였다。

제철소 민청 위원회는 부문별로 분공한 위원들의 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을 민청 위원회 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는 대책을 취했다。제철소 민청 제二차 상무 위원회 토의 안건 『공무부 산하 민청원들의 생산 계획 실행 정형』을 준비할 때 위원 로승록과 손중모를 겸열지도 그루빠에 망라시켰다。처음으로 이런 지도 사업에 참가한 그들은 이 기간에 초급 단체 지도 방법을 적지 않게 배웠으며 그후 그들은 자주적으로 자기 맡은 부문을 창발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되였다。

제철소 민청은 로승록과 손중모를 중심으로 위원들과 열성자들의 초급단체 지도 경험을 교환하는 협의회를 조직하고 이 회의에서 위원들의 활동 정형을 검토 총화하였다。

그러나 김책 제철소 민청 위원들과 열성자들에 대한 사업의 분공과 총화、그리고 해당한 평가 사업은 아직도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제철소 민청은 자기 주위에 망라된 민청 열성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수준에 적응한 사업 분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분 초급 단체들에서 전체 맹원들에게 대한 분공 사업에는 아직도 필요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현재 제철소 민청 위원회에는 전임 일꾼 三명을 제외하고 一六명의 위원이 있는바 이들중의 적지않은 부문이 아무러한 동맹적 위임을 받지 않고 있다。

제철소 민청은 일부 위원들과 열성자들에게 분공한 사업을 적시에 검열하여 방조를 주며 그것을 총화하는 사업을 미약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조차 자기가 맡은 민청의 분공에 대하여 소홀한 태도를·취하고 있다。실례로 교양망의 운영 지도를 분공맡은 박금옥은 자기가 선전원인 변전 초급 정치 크루쇼크의 학습 진행만을 지도하고 있으며 위원 조병렬

은 행정 사업이 바쁘다하여 청년들의 기술 교양 지도에 대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제철소 민청 산하 다수 초급 단체 위원회에 있어서도 위원들과 열성자들에 대한 분공이 잘 되지 않고 있는바 위원들간에 조직、교양、체육사업등 부문별 분공을 초보적으로 하였을 뿐 시시로 제기되는 사업을 능동적으로 분공하며 총화 처리하는 사업이 미약하다。

동맹적 분공은 전체 민청원들에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진행되여야 한다。매월 모든 민청원들이 총회에 참가할 때에 그들은 『나는 이번 달에 민청의 위임을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자체 검토하게 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곳 민청원들의 절대 다수가 명백한 동맹적 분공을 받지 않고 있다。

실례로 세탄 제一 초급 단체 내에서도 일 잘하고 민청 사업에 열성이 있다는 민청원 최인혁도 리승규도 결산―선거 이후에 아무런 분공도 받지 않았다。

민청 각급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통하여 민청원들의 정치적 열성과 민청 사업에 대한 적극성은 현저히 앙양되였다。이러한 조건에서 민청원들에게 그의 능력에 적응한 분공을 광범히 조직하며 이를 제때에 검토 총화하여 정확히 평가한다면 민청 사업이 더욱 활기 있고 내용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김책 제철소 민청은 민청원들을 一九五五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초보적 성과에 불과하며 제철소 민청앞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그중에서도 매개 민청원들에 대한 광범한 분공과 정확한 평가를 주는 사업에 주의를 돌릴 것이 요구된다。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업은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군중적인 것으로 되여야 하겠다。다시 말하면 사업을 혼자서만 말아 가지고 결국은 하지도 못하면서 일을 망쳐먹는것 보다 사업을 아래 일꾼들에게 세심하게 분공하여 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맡은 사업에서 창발력을 발휘하도록 그들을 조직 동원함으로써 성과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김책 제철소 민청 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민주주의적 사업 방법을 확립하며 자기의 지도 수준을 부단히 개선하기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이 필요하다。

## 약속을 지키자

―평안남도 중화군 삼흥리 민청 위원회 사업에서―

수개월 전에 진행된 각급 민청단체들의 결산―선거사업의 총화는 적지 않은 민청 단체들이 하부로 부터의 신소와 제의를 접수하고 그를 책임성 있게 해결하여 주지 않았음으로 민청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바로 중화군 삼흥리 민청 단체에서도 이러하였다。그러나 오늘 삼흥리 민청은 이와같은 결점들을 시정 하려고 노력할 대신에 결산―선거 이후에도 민청원들의 제의와 요구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며 약속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지 않는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계속하고 있다。

삼흥리 민청 위원회는 지난번에 진행된 결산―선거 회의에





서 민청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을 접수하고 그를 해결하여 줄 것을 민청원들 앞에서 약속하였다。그의 약속은 리 민청이 분 초급단체에 정상적인 산 지도를 주며 민청 출판물들을 분 초급단체별로 륜독시키며 체육기구를 구입할데 대한 문제들이였다。이러한 약속들은 분 초급단체 위원장들을 비롯한 리내 전체 민청원들의 절실한 요구였다。

그러나 리 민청 위원회는 민청원들과 약속한 문제들을 근 三개월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그 약속은 어떻게 되여 해결되지 않았는가?

우선 민청 출판물을 분 초급단체 별로 륜독시킬 문제를 들고 보자! 리 민청 위원장 리윤기는 약속은 하여놓고 신문 『민주 청년』과 잡지 『청년 생활』이 오는 대로 궤속에 모아 두었다가 자기집 도배를 하고 말았다。이렇게 됨으로 민청원들과 약속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다음 체육기구 구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였는가? 이는 지금 삼흥리 민청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왜냐하면 체육기구를 구입할 목적으로 민청원들에게서 매인당 五〇원씩 징수하였기 때문이다。이것은 결산―선거 총회 전에 있은 일이다。새로 선거된 리 민청 위원회는 이 문제가 제기되였을때 전 리 민청 위원장과 토의하여 작년 一二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그러나 리 민청 위원회는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전 리 민청 위원장이 한 일이니까 새로 선거된 리 민청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써 방임하였다。

리 민청 위원회는 또한 분 초급단체에 정상적으로 나아가서 방조해 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리 민청 위원회는 결산―선거 총회에서 약속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후의 민청원들과의 약속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세랑동 분 초급단체 위원장 림종운은 一월 六일 총회에서 동기간 자급비료 증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겠으니 방조해 달라고 리 민청 위원장 리윤기에게 제기했다。리 민청 위원장은 『내가 꼭 참가한 다음에 총회를 하라』는 것을 분 초급단체에 통지하였다。그날 밤 민청원 二〇명이 총회 장소에 모였다。회의 시간은 八시였으나 一〇시가 지나 一二시가 가까워 와도 리 민청 위원장은 오지 않았다。기다리다 못하여 분 초급단체 위원장 림종운은 총회에 참가한 민청원들을 해산시키고 말았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 두번이 아니였다。온정동、벌말 분 초급 단체 총회 지도도 약속하고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리 민청 위원회와 위원장 리윤기의 이와같은 사업 작풍은 리 민청 산하 분 초급단체 위원장들과 민청원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일으키고있다。세랑동 분 초급단체 김춘환을 비롯한 다수 민청원들은 『그전 리 민청이나 지금 리 민청이나 사업에서 무엇이 달라 진 것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도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삼흥리 민청 위원회가 민청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들의 요구를 옳게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삼흥리 민청 위원회는 현재까지 민청원들에게 약속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실들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하며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것은 조국에 대한 공헌이다

## 곡 판 기

원산 조선소

외판공 박 순 렬 창안

외판공 박순렬은 곡판기를 창안하여 어선 건조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선을 만드는 일에서는 선박이 튼튼하고 운행중에 동요가 적으며 그 속력을 빠르게 하기위하여 외판 작업을 정밀히 잘하여야 한다. 외판은 파도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받기때문에 선박의 수명에 크게 관계된다.

박순렬이 처음에 창안한 다축식 곡판기는 외판을 먼저 곡판기안에 넣고 완전 온도 七〇도의 증기로 一二五분간 찌게 되는데 이때 증기압은 렙방 당 五키로를 보장하게한다. 그리고 외판을 임의의 곡선으로 스핀돌 조종에 의하여 굴곡시킨다. 이것은 선박의 형태에 따라 자유 자재로 요구되는 곡선 대로 굽힐수 있게되여 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 놓았을 때에는 탄력에 의하여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 이것을 다시 한번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찌면서 굴곡하면 외판은 선체 형태대로 알맞게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박순렬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창안한 곡판기를 단축식 곡판기로 더욱 발전시켰다.

단축식 곡판기가 다축식보다 다른 점은 굴곡 외판이 앞에 붙어있고 그 밑에 바퀴가 달려있다. 때문에 혼자서 자유로운 왕복 작용을 이르키게 간편히 조종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축식에서 스핀돌을 조이는 시간이 많이 먹는 결점을 없이 하였다.

선체 중앙부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외판은 四매를 동시에 넣을수 있게 길이 四메터 폭 一二메터의 구형으로 중앙에 구멍이 뚫렸다.

이는 혼자서 핸돌을 돌리면 스핀돌에 련결된 바퀴가 자동하여 선체 중앙부에 부칠 외판의 형태대로 굴곡된다. 외판을 찌는 증기 온도와 압력및 시간은 다축식과 같다.

이 곡판기는 선박 건조에 새로운 혁신을 갖어왔으며 작업 능률을 六배로 올렸다.

그리고 외판에 금이 가던 오작 시공이 없어지고 성능이 더욱 우수한 어선을 만들수 있게 되였으며 어선 한척에 一六〇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고 더 많은 어선을 만들게 하였다.

## 『연』분석용『빙초산』

검덕 광산 시험 분석부

한 기 현 창안

민청원 한 기현은『빙초산』이 부족하여『연』분석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던 끝에 폐품으로 된『빙초산』을 다시 재생할 방법을 착안해 냈다.

즉 연 분석에서『크롬산법』이나『모리쁘뎅법』여하를 물론하고『초산염』을 전부『빙초산』으로 전환시켜 사용할 수 있게하였다.

그가 창안한 방법은 첫째『크롬산법』에서는『초산연』에『중크롬산카리』를 가하여『크롬산연』을 침전시키고 로과한후 로액중에서『중크롬산카리』를 회수하고『카리염』의 농도가 높아진액을 전부 수집하면『빙초산』을 회수하는 모액이 된다.

둘째『모리쁘뎅산법』에서는『초산연』에『모리쁘뎅산 안몽규정액』으로 최후 적정이 진행된후 버리는 폐액을 수집하여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적정시에 생성된『모리쁘뎅산연』침전을 전부 완전히 침강시키고 그 상등액을『경사법』또는『싸이폰』으로 걸어낸 다음『빙초산』회수 모액으로 한다.

이렇게된 모액에서『빙초산』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간단하다

이 모액이『약알카리』성이 될때까지『무수탄산소다』를 가하여『유리 빙초산』을 전부『소다염』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하여 모액에서『초산소다』『초산카리』『초산암몬』『초산칼슘』등 결정이 생길때까지 농축시킨다. 이것을 랭각후 류산을 가하여 약간 가열하면『빙초산』을 유리한다.

이와같이 유리 생산된『빙초산』을 증류하여 순수한 빙초산을 얻게된다. 그 농도는 五〇—六〇%를 보장할 수 있다.

회수한『빙초산』에『가성소다』또는『탄산소다』를 가하여 중화시키면 훌륭하게『연』분석



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검덕광산 분석부에서는 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一년에 수십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약 부족의 애로를 타개하고 있다.

## 기계 방부용 뺑끼

길주 팔프공장

시험공 허 영 성 창안

민청원 허영성은 기계 및 트라스트의 부식을 방지하며 수명을 연장함에 필요한 뺑끼 제조에 노력하였다.

허영성은 선반에서 끊어져 나오는 철에 히류산을 작용시켜 류산 제一철을 만들었다.

그후 내화련와로 로를 구축하고 코크스를 피운다음 주물용 룹용 도가니를 세웠다.

그리하여 도가니에 류산 제一철을 넣어 각반하면서 가열하여 배소한다.

배소한 류산 제一철을 철판우에 펴놓고 공기와 접촉시켜 다시 말리여 산화한다음 산화철을 만드므로써 적색 안료를 제조했다.

처음에는 산에 견디는 안료가 없어서 곤난했다. 그는 二〇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연구에 몰두하였다.

처음 벽돌로서 一립방 메터나 되는 코크스를 만들어 시험해 보았다. 결과 과도한 시간을 주어 가열하면 다시 철이 되거나 잘 각반하지 않으면 덩어리가 많어서 수량이 적어졌다.

그는 이와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끝에 직접 로에다 태워 보았다.

결과 안료의 품질은 개선 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점들이 있었다.

색깔은 고우나 립자가 크고 또한 류산 제一철이 완전히 용해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남어있는 류산분이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류산이 생성되여 흡집 함으로 안료는 덩어리가 되여 변색하였다.

그후 그는 안료를 물에 넣고 각반하여 류산분을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하여 물을 교환하여 제거한 다음 스파 하였다.

다음에 립자가 적은것을 선별하여 침전 시킨다음 물을 제거하고 명주로서 려과하여 철판우에서 일광 건조를 한후 분채하였다.

이리하여 뺑끼 제조용 안료를 만드는데 드디여 성공하였다.

결과 음페력이 좋고 변색치 않는 안료를 제조하게 되였다

이 방법을 찾기 까지에 그는 연 수십차에 걸치는 장치 개조와 시험을 하였으며 뜨거운 코크스 결에서 유해한 아류산 가스와 싸웠다.

제조된 안료를 가지고 적색 뺑끼를 제조함에 있어서 대두유에다 一二%의 이산화 망강과 四%의 산성 백토를 넣고 약 섭씨 二五〇도에서 二〇시간 정도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제조한 건성유에다 같은 량의 벵가라를 넣고 다시 건성유에 一%의 휘발유를 가한 다음 잘 혼합하여 적색 뺑끼를 만들었다.

이와같이 五、二〇〇키로의 뺑끼를 제조하여 트라스트 및 기대 도장공사를 시공케 하였다. 또한 창문용 뺑끼로서는 미광장이 불충분 함으로 건성유에다 一四〇%의 아연화와 二〇〇그람의 가봉 부라크를 넣고 반죽하였다.

그후 휘발유 二〇〇그람을 넣고 희석하여 뺑끼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와같이 각종 뺑끼 五톤여를 제조 공급함으로써 국가에 一三만여원의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

## 접철 제작 푸레쓰

원산 기계 제작소

단야공 정 상 룡 창안

단야공 정 상룡은 접철 제작 푸레쓰를 창안하였다. 이는 접철 제작을 기계화할 수 있는 푸레쓰이다.

정 상룡이 푸레쓰를 창안하기 전에는 동 기계 제작소에서는 낡은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접철 생산을 하여왔다. 인력으로 一—二미리의 철판을 짤르기도 했고 손으로도 구부렸다.

이런데로 부터 생산 능률은 좀채로 높아지지 않었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일을 해도 六명의 로력으로써 매일 접철 二〇〇개 밖에 만들지 못하였다.

정 상룡은 이와같이 랑비되는 로력을 절약하기위해 이를 기계화함에 힘써왔다.

그는 드디여 푸레쓰 한대로 하루에 二、五〇〇—二、八〇〇개의 접철을 생산하게 하였다. 이는 로동 생산 능률을 六배내지 七배로 높인것으로 된다.

또한 원가도 八八・二%로 저하시켰다.




# 전투적 전통으로의 교양

브·보까띄레브
아·마크리진

저녁 일과표에 설정된 시간에 『정검』 신호에 의하여 ○○근위 련대 구분대원들은 정렬하였다。 제一중대 특무장 뜌찌꼬브 동무는 『차렷』 구령을 하달하고 점검을 시작하였다。

『쏘련 영웅 근위 병사 쓰미르노브……』

『쏘련 영웅 근위 병사 쓰미르노브는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전투에서 용감하게 희생되였습니다』 라고 제一소대 부소대장은 명확히 보고한다。

유리 쓰미르노브의 이름은 련대 명부에 영원히 기록되였다。 매일 젊은 군인들은 그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공적을 본받아 과감하고 용감한 조국의 수호자가 될 것을 맹세한다。

전투적 전통 ― 이것은 젊은 군인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사업의 정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우리의 력량과 적에 대한 쏘베트 조국의 승리에 대한 군은 확신、대중적 영웅주의、전투적 우의와 동지애、자기 부대에 대한 사랑、그의 군기에 대한 충실성、군사 및 정치 지식의 완성을 위한 부단한 지향은 쏘베트 무장력의 가장 중요한 전투적 전통으로 된다。 이와 같은 모든 전통은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에 기초하고 있으며 쏘베트 군인의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을 규정한다。

부대와 함대들에서의 전투적 전통에 대한 선전은 지휘관、정치 기관 및 당 조직들이 수행한다。 이 사업에 있어서 쏘련 레닌 공산주의 청년 동맹의 군대 및 함대내 조직들이 그들에게 큰 방조를 준다。 공청 조직들은 젊은 군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쏘베트 애국주의의 고귀한 감정、군인 선서에 대한 충실성、완전 무결한 기률성、군사학에 대한 사랑、정직성과 정당성、용감성과 대담성、전투적 우의 및 동지애를 일층 제고시킴을 방조한다。

륙 해군 병사 및 륙 해군 하사관들에 대한 정치 교양의 기본 형태로 되는 정치 상학은 우리 무장력의 영웅적 력사에 대한 상세한 연구、그의 전투적 전통의 본질과 의의를 해설함에 있어서 도움으로 된다。 공청 조직들은 모든 공청 맹원들이 정치 상학에서 학습한 자료를 심오하게 소유하도록 방조하기 위하여 동원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이한 사업 형태들이 리용된다。 그리하여 우크라인스키가 공청 위원회 비서로 사업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정치 상학에서 쏘베트 군대의 전투적 전통에 관한 제목을 학습하였다。 이때 공청 위원회는 『우리의 전투 참가자들처럼 되자』 라는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 공청 회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회의를 위하여 공청 열성 맹원들은 부대의 전투 과정에 대한 략도와 자기 련대의 모범 군인들의 사진들을 준비하였으며 구호를 많이 썼다。 쏘련 영웅 중좌 제꾸쉐브가 보고하였다。 그는 조국의 영예로운 애국자 ― 알렉싼드르 마뜨로쏘브、유리 쓰미르노브、니꼴라이 가스쩰로의 영웅성、용감성 및



대담성에 대하여 또한 동 련대의 전투 참가자들의 공적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제꾸쉐브 동지는 전투 참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적을 타승하는 숙련을 습득하였으며 전투 과정에서와 휴식 시에 자기들의 군사 지식을 보충하였는가에 대하여 젊은 군인들에게 확신성 있게 이야기하였다。 보고자는 더욱 긴장하여 학습하며 새로운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를 완전히 소유하도록 공청 맹원인 군인들에게 호소하였다。 병사들과 하사관들은 자기들의 토론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아버지와 형님들의 영예로운 전투적 전통을 보존하며 배가하고 있으며 자기의 군사적 의무를 조국 앞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이곳에서는 또한 『조국 전쟁 시기의 부대 공청원들과 청년』들、『우리 부대 군인들의 우수한 후배가 되자』란 제목을 가진 공청 회의가 잘 준비되여 진행되였다。

이 련대의 공청 위원회는 공산당원들의 충고에 의하여 유리 쓰미르노브와 같은 련대 군인이였던 쏘련 영웅 미닌 동지를 맞이하는 젊은 군인들의 환영회가 진행되였다。 공청 위원회는 그의 군기 밑에서 조국 전쟁을 지낸 정든 련대에 그를 손님으로서 초대하였다。 이 환영회를 열성 공청 맹원들은 면밀히 준비하였다。 그들은 구분대들에서 부대의 전투 력사에 대한 담화를 진행하였으며 무엇때문에 련대에 『근위』 칭호가 수여되였으며 언제 무엇때문에 련대가 전투 훈장들을 수여받았는가를 신병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쏘베트 군대에는 세계에서 처음인 사회주의 국가의 수호자들의 고유한 모든 훌륭한 것、영웅적인 것 및 고상한 것들을 군인으로부터 군인에게로、세대로부터 세대로 소중히 전달하는 좋은 관습이 오래전부터 있다。 우리 군인들은 사랑하는 조국에 충실히 복무함에 있어서 조국을 위한 전투에서 불멸의 영예를 획득한 아버지와 형님들을 본 받고 있다』 이렇게 이 환영회 석상에서 련대장은 자기의 보고를 시작했다。

보고후에 손님이 출연하였다。 과거에는 정찰병이였으며 현재는 철도국의 공청 일군인 미닌 동지는 병사들에게 동 련대 군인들의 용감성과 대담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이렇게 동지들과 함께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젊은 군인들에게 큰 흥미를 일으켰다。 미닌 동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엄페부에서 십자가에 박힌 공청원 쓰미르노브가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군사 비밀을 주지 않고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희생된 것을 증명하는 문건들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환영회에 참가하였던 젊은 군인들은 그들이 자기 련대의 영예와 공적을 높이 받들어 우수하게 학습함으로써 그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수할 것을 련대 지휘부와 동 련대 군인들에게 맹세하였다。 쏘련 영웅 미닌은 련대 정찰병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전투 경험을 나누었으며 우수하게 학습하며 정찰병에게 필요한 자체의 전투적 품성을 배양할 것을 충고하였다。

이와 같은 공청 회의와 환영회는 전투적 전통을 더욱 깊이 인식하려는 병사들을 도우며 그들의 학습과 군무에서 새로운 성과를 얻도록 고무한다。

열성 공청원들은 자주 청년들 앞에서 부대의 전투 행로와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의 군인들의 위훈 및 전투 정치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들을 쟁취한 병사들에 관하여 보고하며 그들과 함께 담화한다。 군무의 수행을 위하여 련대에 온 젊은이들에게 부대의 전투 과정、그의 공적과 표창、조국 전쟁 시기의 영웅、동 련대 전우 학습에서의 우등생들에 대하여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은 열성 공청원들의 법칙으로 되였다。 이것은 복무하려 온 군인들에게 련대에 대한 자부심을 배양한다。

공청 위원회는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규률성、경각성、대담성과 완강성 및 높은 군사 기술을 배양함에 있어서 군대 및 함대 내의 공산당원들을 방조한다。

공청 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의 영웅적 공적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품성을 청년들에게 교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참으로 조국 전쟁 시기에 우리 조국의 전투 력사의 많은 페지에 영광스러운 사변들이 기록되였다.

모쓰크바, 레닌그라드, 쓰딸린그라드, 쎄바쓰또뽈, 오뎃사의 수호자들은 쏘련 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한가를 전 세계에 뵈여 주었다. 군대와 함대의 병사들은 집단적 영웅주의와 전투적 용감성을 발휘하였다.



수백만의 쏘련 군인들은 조국 전쟁 기간에 쏘련 훈장과 메달을 수여 받았으며 一一、〇〇〇명 이상이 쏘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상위 꼬체쉬꼬브가 공작하고 있는 유명한 전차 부대의 공청 조직은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으로 젊은 군인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이 부대의 수비 구역에는 쏘련 무기의 영광과 불패의 상징으로서 전차가 서 있다. 이 전차를 타고 쏘련 영웅 겐나지 위노그라도브가 자기 부대와 함께 전투를 하면서 만키로메터나 질주하였다. 그가 적과 충돌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였다. 용감성, 결단성, 견인성에 의하여 전차 승무원들은 적지 않은 혁혁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어떤 때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그들은 력량상 우세한 적과 조우하게 되였다. 력량상 현저한 차이를 가진 전투에서 전차 승무원들은 一〇대 이상의 적 장갑 수송차와 자동차를 소멸하였으며 四대의 전차를 격파하였는바 그들은 그중 한대를 파성추로써 도루 밑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五〇여명의 퐈쑈 군대 모또찌클병을 소멸하였다. 꼬체꼬브 동지와 공청 위원회 위원들은 자주 젊은 병사들을 전차 옆에 모여놓고 그들에게 이에 대하여서와 기타 전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열성 공청원들은 담화에서 겐나지 비노그라도브 및 기타 동 련대 군인들과의 서신을 광범히 리용한다.

공청 조직들은 명성을 떨친 전투 무기에 대한 강연회와 같은 교양 형태를 리용한다. 이러한 강연회들은 더욱 쏘베트 무기와 자기의 전문 군사 기술을 사랑할 것을 군인들에게 가르쳐 주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의 전투 기술 기재와 무기에 대한 애국적인 긍지감으로써 그들을 교양한다. 상위 꼬나쉰 동지가 련대 공청 위원회 비서로 공작하고 있는 공청 조직들에서는 「현대 전투에서의 보병 무기의 역할」이란 제목으로써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열성 공청원들은 구분대들에서 공격 전투에서의 자동 무기의 역할, 조국 전쟁 시기의 저격수들의 전투 위훈 및 기타 등등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공청 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부대 무기 공급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현저한 례들을 들면서 쏘베트 로동자, 기술자, 설계자들이 제작한 무기의 우월성을 확신성 있게 이야기하였다. 강연회에서 공청원들은 토론에 참가하여 그들이 어떻게 보병 무기—보병총, 경 기관총, 중 기관총 및 기관단총들의 구조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격법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젊은 군인들이 훌륭하게 전투 기술 기재를 연구하도록 배려하면서 공청 위원회는 「우수한 학습으로 동 련대 군인들의 전투 영예를 배가하자」라는 제목으로 청년들 앞에서 보고할 것을 부대장에게 청원하였다. 부대장은 자기의 보고에서 지난 기간 전쟁에서의 공훈과 찬란한 승리는 다만 쏘베트 군인들의 용감성과 과감성으로써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을 능숙히 정통하였으며 부단히 자기의 전투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써 설명된다



고 강조하였다. 부대장은 자기의 보고를 군인들의 생활 및 학습과 결부시켰다. 학습에서의 우등생, 자기 사업에 대한 능수들의 경험을 선전하는 것은 전투 전통의 정신으로 군인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 공청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우등생들의 좌담회가 진행된다. 공청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러한 좌담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거대한 동원적 력량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면밀히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며 더욱 완강히 우등생들의 대렬에 들어서도록 병사들을 각성시킨다.

모범적으로 군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의 로 대원들의 자체 모범은 젊은 병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최근에 꼬리노브가 비서로 공작하고 있는 공청 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전투 영예실에서 초기 군무 특무상사인 공산당원 뛰찌꼬브 동지가 청년들과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병사들은 부단한 주의를 돌리며 포병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눈 앞에는 우리 조국의 적을 반대하여 싸운 련대와 련대의 용감한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전투 광경이 떠 올랐다.

매 쏘베트 군인은 우리의 정다운 쏘베트 군대와 자기 부대의 영예 및 전투적 영예를 존중히 여겨야 하며 자기의 군사 칭호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훌륭한 품성 즉 군사적 긍지감, 군사적 영예감으로 전사들과 하사관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자기 부대의 력사를 선전함은 중요한 역할을 논다. 용감성과 군사적 숙련의 실례들이 풍부한 부대 력사는 언제 어데서든지 련대의 명예와 공적을 유지하며 군사 규률의 엄격한 준수자가 되며 군사학을 꾸준히 소유할 데 대한 젊은 병사들의 지향을 북돋아 준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공청 조직은 력사적인 장소의 순회를 실시하여 예비적으로 이전한 동 련대 인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박물실 혹은 전투 영예실을 설치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한다.

우크라인쓰끼가 비서로 공작하는 초급 공청 단체 위원회는 부대장과 정치부 부대장의 충고에 의하여 련대의 전투 과정과 전후 시기에 련대가 달성한 성과들을 말하여 주는 자료들의 수집 사업을 많이 진행하였다. 위원회 위원들은 련대의 로병들과 담화하였으며 동련대 군인들의 영웅적인 공훈 및 부대가 참가한 전투 작전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였다. 전쟁 참가자들과의 편지 교환을 진행하였다. 전쟁 참가자들은 부대와 자기의 동 련대 군인들의 전투 위훈을 회상한 기록들을 보냈다. 련대의 공청 조직은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 영예실도 꾸밀 수 있었다.

공청원 두우쉐츠낀은 유리 스미르노브의 초상화를 그리였으며 공청원 무라또브는 조각 「유리 스미르노브의 심문」을 창작하였다. 어떤 외출 일과 한가한 저녁에 젊은 병사들은 즐겨 전투 영예실을 찾아 간다.

중위 쭈크 동지가 위원회 비서로 공작하고 있는 부대의 열성 공청원들은 자유 시간에 부대의 전투 과정에 대한 자료, 전투 참가자들의 회상록, 영웅들의 사진들이 수록되였으며 그들의 공적이 기록되여 있는 자기 부대 력사 기록의 랑독회를 자주 조직한다. 이곳 열성 공청원들은 자기 부대와 부대 영웅들의 전투 과정에 대한 지식은 그의 전통에 대한 병사들의 존경, 그들의 형님들이 복무한 바와 같이 정직히 희생적으로 조국에 복무하려는 욕망을 자아 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약간의 공청 일꾼들과 공청 열성자들은 자기 부대의 전통에 대한 자료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응당한 주도성도 발휘하지 않고 있으며 로병들과의 교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그들은 우리 군대와 함대의 전투적 전통에 관한 재미 있는 정기 간행물조차 자주 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조국 전쟁 시기의 우리 군인들의 영웅적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린 선집들을 적게 취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들은 군대와 함대의 전투적 전통에 대한 자

로들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전투적 전통을 선전하기 위하여 공청 위원회는 부대 및 군함、쏘련 군대 및 함대 력사들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날자、정부가 병종을 위하여 명절 일로 공포한 기념일들을 적절하게 리용한다。보통 면밀한 준비가 이러한 대책들에 앞선다。공청 열성자들은 전쟁시기의 공청원들의 공적、학습에서의 우등생들에 대한 좌담회、보고들을 진행하며 그들에 관하여 벽보에 쓰며 《부대 전투 영예의 밤》을 조직한다。

펼쳐진 부대기 밑에서 담화회를 조직하며 공청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전투 전통으로 교양하는 형태가 부대들에서 광범히 보급되였다。사실 군기는 전투적 전통의 화신이며 전투적 명예、용감 및 영예의 상징으로 된다。므·이·깔리닌의 표현과 같이 군기는 반드시 전투적、혁명적 랑만주의로 싸여야 한다。매 군인은 반드시 자기 부대기를 신성하게 존경하며 그 군기와 함께 련대가 참가한 모든 전투에 대하여 세밀히 알아야 한다。

대위 끄체스끄브가 비서로 사업하고 있는 공청 단체에서는 최근 회의 안건 『많은 표창을 받은 우리 련대의 군기는 부대의 영웅적 력사에 대한 직관적인 증거이다』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되였다。

자기의 부대와 군기에 대한 사랑으로의 교양은 자기 지휘관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의 교양과 불가 분리적인 것이다。그러므로 공청 위원회와 열성 공청원들은 전쟁 시기에 부대와 구분대를 전장에서 능숙히 지휘하였으며 오늘은 군인들을 능숙하게 교육 교양하며 부하에 대하여 아버지와 같이 배려하는 지휘관들에 관하여 신병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공청단체들은 군무의 첫 날부터 젊은 군인들의 군사적 전투적 우정을 배양하며 이에 기초하여 전투 시의 호상 원조 및 구출과 같은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에 동원된다。이러한 목적으로 상위 즈베레브가 공청 위원회 비서로 공작하고 있는 련대에서는 각 병종 대표자들의 친선회가 조직 진행되였다。어떤 친선회 석상에서 위대한 조국 전쟁의 참가자들이 출연하여 고상한 동지애와 전선에서의 굳은 우정이 적을 타승함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으로 되였으며 군인들이 무기에 의하여 맺어진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가를 례들을 들어 말하여 주었다。전문 지식을 완성하고 있으며 실수 없이 목표를 격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이와 같은 친선회는 전투를 체험하지 못한 병사、하사관 및 젊은 군관들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각 병종의 증강、그들의 협동 동작、전투적 우정 및 호상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된다。

중위 고르보브가 공청 위원회 비서로 공작하고 있는 공청 조직에서는 집체적 랑독회、쏘베트 군인들의 영웅적 공적에 대한 문예작품과 소 책자들에 대한 감상회가 조직된다。부대의 열성 공청원들은 구락부 주임과 함께 각 근무 년한의 병사들을 위한 문학 작품의 소개 목록을 작성하였다。이것은 병사들이 문예 작품들을 독서함에 있어서의 설정된 체계를 준수함을 돕는다。전투적 전통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 곳에서는 자립적인 문예 창작이 리용된다。부대 창립 일에 제한 야회를 위하여 공청원들은 전쟁시기에 발휘한 병사、하사관 및 군관들의 영웅성들에 대한 문학 예술 발표회를 준비하였다。공청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조국을 위한 전투들에서의 공청원들과 청년들』이란 제목하에 영화 주간이 진행되였다。영화 상영전에 공청 일군들과 열성 공청원들의 보고 및 담화가 조직되였다。

군대 및 함대 내에서 전투 전통으로 병사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지휘관들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경험이 있고 유능한 지휘관들이 있는 반면에 방금 군관 학교를 끝마친 젊은 군관들이 매년 부대와 군함에



오는 것이다。그들은 아직 병사 및 해군 병사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그러므로 부대내 정치기관의 공청 일군들과 공청 위원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방조를 준다。젊은 군관들을 위하여 전투적 전통에 대한 강의와 보고를 하며 전쟁의 로병、세련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지휘관 및 교양자들과의 환영회가 조직된다。

그리하여 끼예브 군관구 정치국의 발의에 의하여 군관구 군관 회관에서 두 전쟁—공민 전쟁과 조국 전쟁의 로병들과 젊은 군관들의 환영회가 개최되였다。군관구 참모장이 개회사를 하였다。간단한 보고에서 그는 공산당에 의하여 교양된 쏘베트 군관들에게 있는 고유하고도 독특한 품성들을 특징지였다。그는 모든 전투 훈련 체계에서 전투적 전통으로 군인들을 교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목적 있는 공작의 필요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다음 장령 및 군관들이 출연하여 조국을 위한 전투들에 대하여 회상하였으며 군관들의 도덕적 면모에 대하여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젊은 군관들에게 많은 충고를 주었다。

상위 쎄르계예브가 민청 지도원으로 공작하고 있는 련합 부대의 공청 조직들에서는 당 조직들의 방조와 지휘관들의 지지에 의하여 젊은 군관들을 위한 쏘베트 군대의 전투적 전통에 대한 강의와 강연이 진행되였다。그리하여 최근에 『쏘베트 군관들의 도덕적 면모』、『쏘베트 군대의 전투적 전통』、『우리 련대의 영웅들은 쏘베트 군대의 전투 전통의 구현자들이다』 및 기타의 제목들로 강의가 진행되였다。이때 젊은 군관들은 다만 강의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때로는 자신들이 보고도 한다。공청 일군 쎄르계예브 쥬크 및 기타 동지들은 공청원인 군관들과의 개별적 사업을 진행하며 봉착한 난관들을 그들이 극복하도록 방조한다。전투적 전통으로 군인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하사관 및 해군 하사관들도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한다。그들의 대다수가 공청원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공청 초급단체는 그들이 병사와 해군 병사들 가운데서 교양 사업을 능숙히 진행하도록 항상 방조함에 동원된다。예레브낀 동지가 비서로 공작하고 있는 련대 공청 위원회 위원들은 하사관들과 담화한 후 하사관들이 부하들 가운데서 전투적인 군사적 전통을 선전함에 있어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당 위원회의 방조와 지휘관들의 지지하에 하사관들을 『쏘베트의 군사적 긍지감、자기 부대에 대한 사랑으로의 부하 교양에 대하여』라는 보고가 진행되였다。전투 경험을 소유한 군관인 보고자의 실제적 충고들은 하사관들로 하여금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으로 병사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깊이 생각케 하였다。



공청 위원회는 하사관들의 상학 준비를 방조한다。즉 제목 『방어 전투시의 분대』를 학습하기 전에 구분대들에서는 위원회의 과업에 의하여 공청원인 군관들은 하사관들과 함께 위대한 조국 전쟁의 영웅인 쓰딸린그라드의 수호자 빠브로브 중사에 대한 담화를 진행하였다。하사관들은 전술 상학을 전사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런 전투 실례를 리용하였다。하사관 강실에서는 공청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전투 전통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부대 내 로병들의 출연이 조직되였다。공청 위원회는 하사관들과 함께 오

꼰챠로브의 책 『기수』에 대한 감상회를 진행하였다。 중사 홈하예쯔끼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돌려졌다。 공청 위원회 위원들은 부대 도서관원과 함께 조국 전쟁의 영웅들인 하사관들에 대한 문학 작품의 소개 목록이 작성되였다。 이와 같은 작품들의 독서는 하사관들의 지식을 풍부히 하며 그들이 전투원들 가운데서 교양 사업을 훌륭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그러나 어떤 공청 단체들은 젊은 군인들의 교양에서 전투적 전통이 가지는 역할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있다。

우선 사업을 돌연적으로 진행하며 부대 생활과 전투 훈련 임무와 련결시키지 않고 있으며 선전의 중요한 형태인 개별 담화를 미약하게 전개하고 있다。 레닌그라드 고급 해군 기술 학교의 공청 조직들에서는 신입생들에게 다만 그들이 학교에로 온 첫날에 그 학교의 력사를 이야기한다。 그후 전투적 전통에 대하여서는 잊어버리고 다만 학교 창립 기념 일에만 그를 회상하군 한다。 그러므로 심지어 열성 공청원들이 학교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모르며 정치 부장 상위 넷쎈 동지가 무엇 때문에 학교가 레닌 훈장을 수여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학교의 한 학부의 공청 조직에서는 『조국을 위한 전투에서의 학교 졸업생들』이란 회의 안건을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였다。 그러나 공청 위원회는 이 회의를 준비하지 않았다。 보고를 가지고 출연한 강습생 모로쵸브는 공청원들에게 명철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보고가 활기 있는 토론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대 및 함대 청년들을 자기의 군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정신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쏘련 인민들의 로력적 성과들을 선전하는 것은 크다란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쏘련 근로자들은 영웅주의의 기적을 발휘하였으며 앙양된 창조적 로력의 모범을 뵈였다。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을 위한 쏘베트 인민의 사업은 우리 나라 전체를 포함한 영웅적인 앙양의 명백한 표현으로 된다。 공청 위원회 위원들과 기타 열성 공청원들은 젊은 병사들에게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九월, 二월, 三월 및 六월 결정에 대하여 광범히 해설하여 농촌 구역에서 쏘베트 군대와 함대의 대렬에 들어온 군인들은 그들의 마을 농민이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어떻게 높은 수확과 가축들의 산출량을 제고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쏘베트 군대와 해군에는 전투적 전통으로 청년들을 교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우리 조국의 원쑤들과의 가렬한 전투에 참가하여 쏘베트 군인들은 력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성의 모범을 보이였으며 자기의 군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물론 부대들과 군함들에는 이러한 전투에 참가한 인원들이 적어졌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저바리지 않기 위하여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에로 련대와 군함들의 새로운 인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 것이다。 영광스러운 전투적 전통을 존중히 여기며 꾸준한 로력으로써 그를 소중히 보관하며 배가시키는 것은 매 병사—공청원의 의무이다。 일상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투적 전통을 선전함으로써 공청 단체는 능숙하고도 용감한 조국의 수호자들을 교양하는 지휘관들과 당 조직들을 방조할 것이다。

잡지 『젊은 공산주의자』 一九五四년 一〇호에서

(림 창 희 역)



# 미제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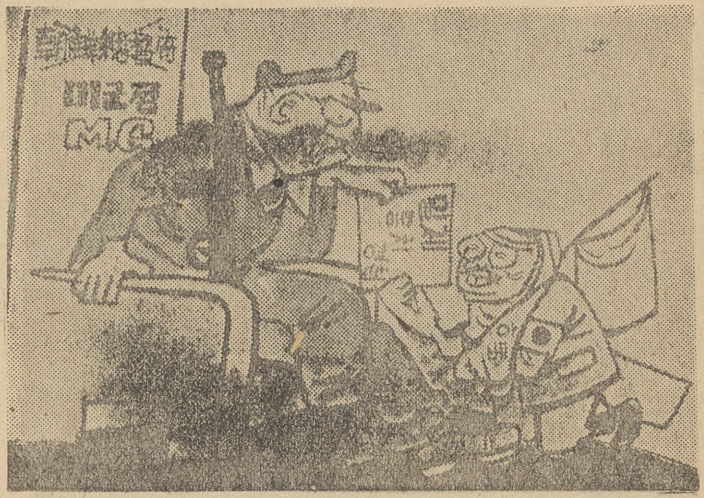
(제 二 회)

리 갑 기

위대한 쏘련군대에 의하여 장구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조선 인민들 앞에는 자기의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를 창건할 길이 열리였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 후 남조선에 주둔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분렬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통일되지 못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흉악한 괏쇼 경찰 제도를 수립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암흑과 무권리와 실업과 기아의 도탄 속에 몰아 넣었다。

☆ ☆ ☆




## 일제 통치를 계승한 미 군정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일제의 총독부를 미군정이라 개칭하고 일본 『총독』을 대신하여 아놀드를 군정 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일본 고관대신에 미군장교들을 요직에 배치하였다。 一九四五년 一一월 二일에는 일본 법률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식 선포하였다。



## 괴뢰들을 규합하여 반동 세력을 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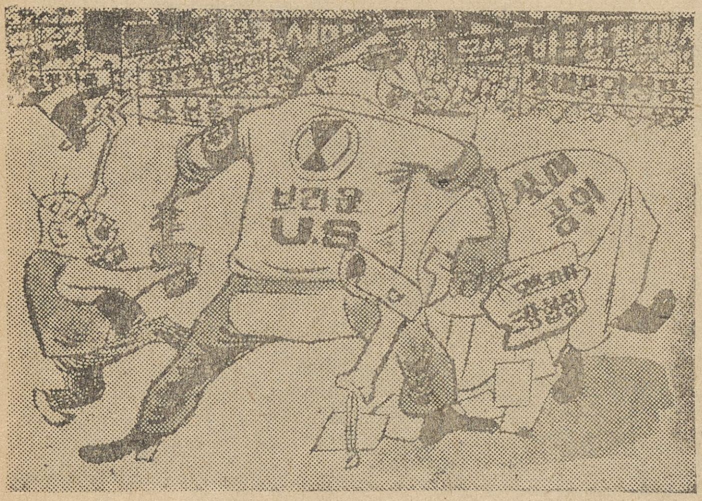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 체계를 수립하면서 매국 역적 리승만, 김성수를 비롯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규합하여 반동 세력을 형성시키고 조선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각방으로 방해하는 길에 들어섰다。

## 인민 위원회의 강제 해산과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




미제는 남조선에 상륙하자 조선 인민의 창의로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한편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야수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탄압하여 지하로 몰아넣었으며 남조선 민청을 비롯한 민주주의적 단체와 출판물들을 강제 해산 또는 폐간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일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였다.

## 쏘, 미 공동 위원회 사업의 파탄




미제는 조선 문제 해결에 대한 가장 정당한 국제적 결정인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조선을 영구히 분렬하며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하여 거수기를 발동시켜 자기의 침략적 도구로서 『유·엔 위원단』을 조작하였다.

## 괴뢰 정부를 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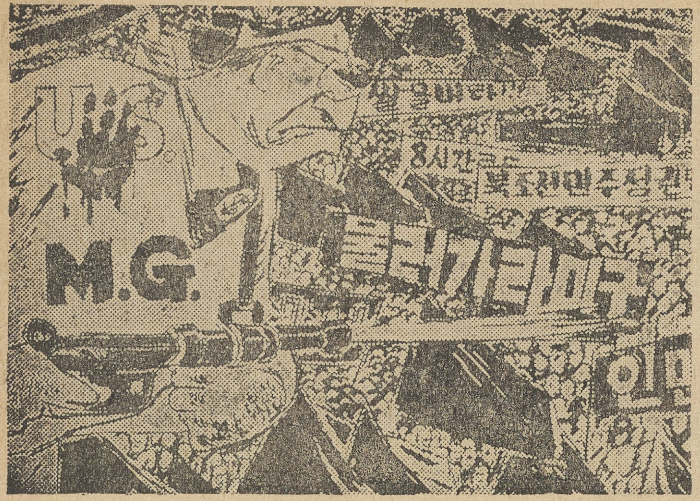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을 총칼로 위협 공갈하면서 一九四八년 망국적 五·一〇단선을 감행하여 리승만을 두목으로 하는 미제의 주구들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로써 괴뢰정부를 날조하였다.

미제는 망국적 五·一〇단선을 감행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을 군함과 비행기와 대포와 총칼로써 위협공갈하였으며 망국단선을 반대하는 애국적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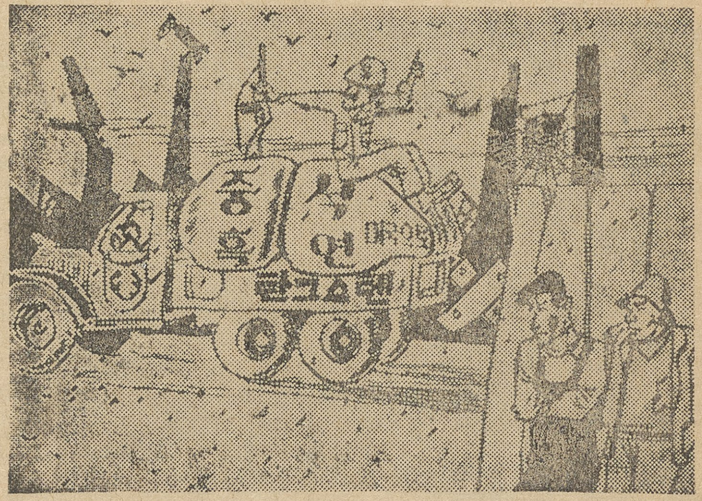


## 팟쇼 테로의 무법 천지




미제는 남조선을 팟쇼테로의 무법 천지로 만들었다. 아직도 조선인민의 기억에 새로운 학병동맹사건, 八·一五해방을 경축한 광주 화순 탄광로동자들에 대한 야만적 발포, 학살사건, 제주도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 학살등은 원쑤들이 감행한 대량적 인민학살의 만행중의 일부이다. 원쑤들은 八·一五 해방후 五년간에 二〇만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六三만여명을 강금, 투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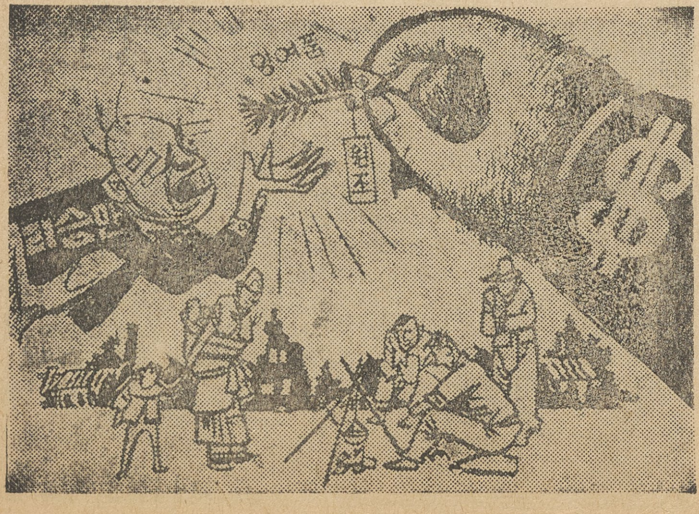
## 산업의 파괴와 략탈



미제는 남조선 경제의 八〇% 이상을 『적산』이라는 명목하에 수탈하였으며 공장을 파괴하고 광석을 비롯한 막대한 전략적 물자를 략탈하여 갔다.

미제의 수탈과 파괴정책의 결과 남조선의 공장수는 一九四五년에 九、三二二개소였다면 一九四八년 八월에는 五、二四九개소로 감소되였으며 생산고는 三〇—一五%까지 저하되였다.

## 미국식 『원조』




미제는 남조선의 산업을 파괴하고 공업 원료를 략탈하여 가는 한편 『원조』의 미명하에 통조림, 칠면조, 껌, 썩은 밀가루와 강냉 가루 등 조선 인민에게는 소용 없는 잉여 물자들을 실어다가 남조선의 시장을 범람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빚을 지웠다.

## 량곡 수탈




미제는 일제 시대의 「공출」보다 더 가혹한 「미곡 수집제」를 실시하여 一九四五년에 五六만 一천석, 一九四七년에 와서는 四二○만석 이상의 곡물을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수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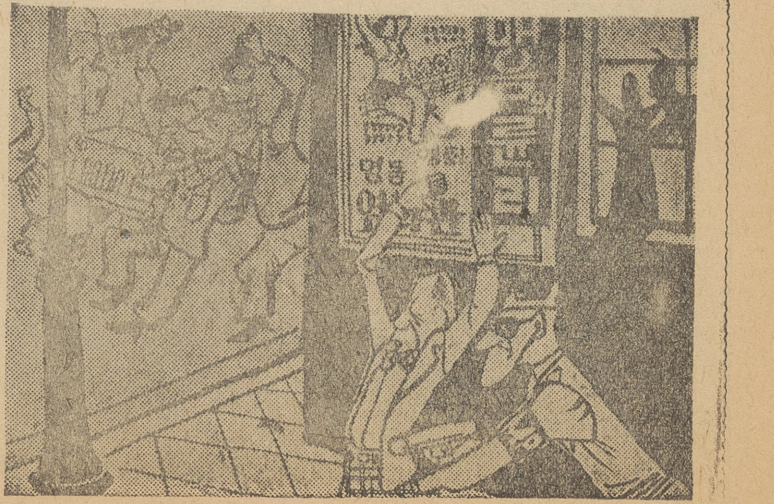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일제의 재생을 위하여 매년 남조선에서 六○○만석에 가까운 쌀을 실어내였다.




## 문화 유물의 략탈

남조선 출판물들이 보도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해방후 남조선에서 미제는 경복궁에 있는 국립 박물관에서 一천三백여점, 덕수궁내의 미술관에서 六천여점, 민족 박물관에서 三백여점, 리왕직 아악부에서 一백여점, 경주 박물관에서 一백二五점의 문화 유물등 우리 민족의 고귀한 문화 유산들을 도적하여 갔으며 수많은 력사적 문화 유물들을 파괴 소각하였다.

그중에는 八천여권의 희유 도서들과 훈민정음, 신라시대의 「금제왕관」 등이 포함되고 있다.



## 미국식 「생활 양식」

미제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략탈과 함께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심과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식민지 노예 교육과 퇴폐하고 말세기적인 문화와 미국식 「생활양식」의 주입을 강요하였다. 교육기관은 폐쇄 축소하고 모리화하였으며 학교를 련병장으로 전락시켰다.

미제는 테로, 살인, 색정, 염세등 퇴폐적 문학 예술을 강요하여 남조선을 인류도덕이 땅에 떨어진 범죄의 소굴로 전락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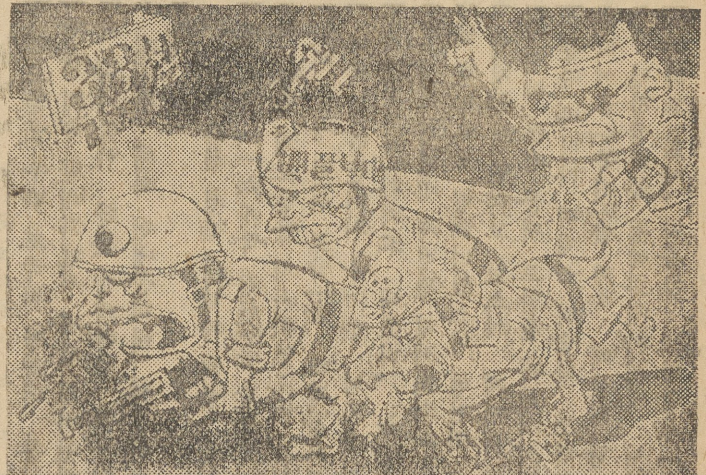


## 군사 기지화와 침략적 괴뢰군의 양성

미제는 조선을 자기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며 남조선을 중화 인민 공화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교두보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군사 기지를 구축 확장하며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 청년들을 대량적으로 강제 징벌하여 리승만 괴뢰군 양성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괴뢰군의 지도적 핵심으로서 일제 침략 군대의 소위 간부로 있던 채 병덕, 김 석원 등의 친일 주구들을 등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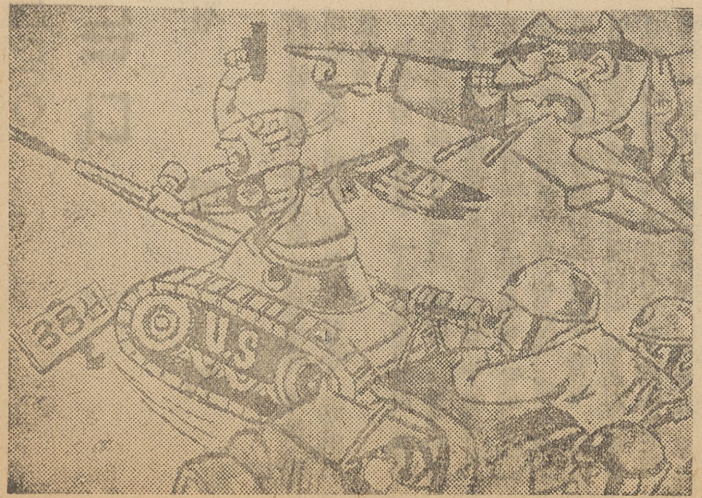
## 침략 전쟁의 준비

미제는 「북벌」을 운운하면서 남조선 괴뢰군을 증강하며 군비를 확장하는 한편 리승만을 사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도발적 침습을 부단히 계속하였다.

미제의 비호하에 괴뢰군은 一九四九년 一월부터 一九五○년 四월까지 기간에만 하여도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대하여 무려 一, 二七四건의 도발 사건을 일으켰으며 七一회의 비행기 습격과 군함에 의한 四二회의 해안 공격을 감행하였다.

## 침략 전쟁의 개시

미제는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반대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계획에 의하여 一九五○년 六월 二五일 그의 주구 리승만을 사수하여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시키고 곧 뒤이어 자기의 륙, 해, 공군을 동원하여 공개적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다.



# 남조선 청년들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대포밥이 되기를 원치않는다

조선 중앙 통신사 김 영 기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 이미 一년 五개월이 경과하였다.

정전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정확한 령도밑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길에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미제 침략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되였던 공화국 북반부에는 영웅적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현대적 도시들과 선진 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교육 문화 기관들이 웅장하게 건설되고 있으며 전쟁에서 파괴되였던 농촌경리가 급속히 발전 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급진적으로 안정 향상되여가고 있다. 이것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실현하며 조국의 부강한 민주발전과 인민들의 자유 행복을 위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평화 애호적 인민적 정책의 뚜렷한 표현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계속 반대하면서 지난 침략전쟁에서 자기들이 당한 참패에도 불구하고 정전후 재차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놈들은 조선 정전 체결과 때를 같이하여 소위 『一六개국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전쟁 재도발을 시사하였으며 소위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침략군대의 무기한 남조선 주둔을 『합법화』하려고 애썼다. 놈들은 조선 정전 협정에 예견된 정치회의의 소집을 백방으로 방해하였으며 빈번히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제네바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 토의를 파탄시키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는 리승만 도당들로 하여금 『북진』을 계속 떠들게 함으로써 긴장상태를 첨예화시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리승만 도당들은 『무력만이 조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버리면서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살인적인 군사 테로 제도를 일층 강화하고 있다.

놈들은 정전후 一년 五개월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남조선의 거의 전지역에서 인민 유격대를 토벌한다는 구실밑에 공포한 『계엄령』 『야간 통행 금지령』 『한강 도강 제한령』 등 살인적 테로제도를 계속 유지 강화하고 있는 한편 남조선 인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남조선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군사시설을 갖추는데 전쟁시기보다도 가혹하게 내몰고 있다.

그들은 소위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전쟁중에 남조선 인민들을 년三개월 동안 군사시설 수축에 동원하여 왔으나 정전후 이를 폐지할데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一九五三년 九월 十一일 괴뢰정부 『국무회의』 결정에 의하여 동원기간을 도리혀 六개월로 연장하는 동시에 종래 괴뢰 정부『사회부』에서 담당해 오던 강제 동원 사업을 직



접 괴뢰 『국방부』에 넘겨 총검으로 인민들을 내몰고 있다.

미 제국주의 자들은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침범하는 군사 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아세아에 의한 아세아 방위』 『조선 사람끼리 피흘리게 하라』는 구호 밑에 조선에서 값싼 대포밥을 얻으려고 발광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매국 도당들은 괴뢰군 증강을 떠벌리기 시작한지 一四개월 동안에 一〇개 사단에서 二〇개 사단으로 확장되였으며 괴뢰군의 조직체계와 지휘 계통도 변경되였는 바 괴뢰군은 정전후에만 四개사단이 더 편성되였다.

이와 같은 병력 증강을 위하여 놈들은 정전이 예견되던 직전인 一九五三년 七월 一八일 소위 『비밀각의』를 열고 당시 이미 五〇만명에 달하고 있던 괴뢰병력을 급속한 시일내에 一〇〇만명으로 증강할 것과 아울러 다수의 예비병력을 가지기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징병 제도를 일층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은 전쟁중에 만 一八세로부터 만 二二세까지이던 남조선 청년들에 대한 강제 『징병』 년령을 一九五四년에 와서는 만 三〇세까지로 높였으며 또한 만 一七세로부터 만 二八세까지 이던 소위 『제二국민병』의 소집년령을 만四〇세 까지로 높였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전체 인민들을 새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은 소위 『지원병령』을 조작하여 만 一七세로부터 만 五五세 까지의 남녀 청년들을 괴뢰군 륙、해、공군에 강제 징모하고 있다.

미제가 강요하는 대포밥 징발에 눈이 뒤집힌 리승만 역도들은 一九五四년 四월 一일부터 일제식 『군사교련』과 소위 『학도 지원병령』이라는 명목 밑에 고등 전문 대학 학생들에 대한 강제 징모를 강화하는 한편 일제식 그대로의 침략적 『국민개병』의 구호 밑에 악명높은 『민병대』의 조작과 『재향군인』들의 훈련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청년들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침략전쟁 재 도발 정책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 통신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소위 『징병령장』을 받은 남조선 청년들의 四〇—五〇%가 『징병』을 기피하고 있어 놈들의 새 전쟁 도발『계획』에 심중한 타격을 주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듯 광범한 남조선 청년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놈들이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제 징모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은데 당황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도당들은 종래 『국방부』에서 실시하여 오던 강제 징모 사업을 괴뢰 『경찰』에 이관하고 종래 시장、군수가 담당하여 오던 징소집 대상자들의 신체 검사를 『경찰서장』이 같이 담당하게 하는 소위『강력조치』를 떠버리고 있으나 드높아가는 남조선 청년들의 놈들에 대한 증오와 『징병반대』투쟁을 억제할 수는 없다.

지금 남조선 청년들은 신체 검사의 보이꼬트、년령기만、거주등록 보이꼬트、은신 등 온갖 방법으로 놈들의 대포밥이 되기를 반대하고 있다.

一九五四년 五월 하순 전라북도 『경찰국장』은 남조선 청년들의 강제 징병 기피 경향을 그냥 방임하다가는 괴뢰군 증강 계획이 실패할 것임으로 『징병령장』을 받고도 도피한자、년령을 기만한자、금년도 『징병』 년령 해당자이면서 아직까지 신체 검사를 받지않는자、허가 없이 거처를 이동한『무단전출입자』를 모주리 체포하라고 관하 경찰에 대하여 특별 『지시』를 발송하였다.

심지어 놈들은 『위반자』는『계엄령 선포 지구에서는 총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위 『병역법』에 의하여 청년들을 총살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들의 투쟁은 확대 격화되고 있다.

남조선 학생청년들은 놈들의 학원 『군사화』 정책과 노예교육을 반대하여 투

쟁하고 있다.

一九五四년 四월말 전북에서 실시한 고등학교 졸업생 징병에 있어서 총 대상자의 四三·八%에 해당하는 인원이 징병을 기피하였으며 서울 사범 대학 학생들은 놈들의 침략적 노예 교육을 반대하여 장기간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으며 一九五四년 四월에는 경기 고등 공립 학교 전체 학생들과 경남 진주 고등 학교 및 울진 중학교 학생들과 덕성 녀자 중학교 학생들도 역시 놈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장기 동맹 휴학을 단행하였다.

심지어 리승만 도당들이 심복으로 알고 있는 『관리』들 까지도 징병을 기피하고 있다.

실례로 려수시 사회과장 김용균은 四八세인 자기 년령을 六三세로 호적을 위조하고 장남은 제대된 『상이군인』으로 만들어 일가가 『병역』을 기피하여 왔다. 서울 『지방 법원』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소위 『병역 위반죄』 건수는 절도죄에 이어 전체 『범죄』사건에서 제二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 『범죄』 건수의 약 二〇%에 달하고 있다.

이 사실은 놈들의 전쟁 도발 정책이 얼마나 광범한 계층들로부터 배격을 받고 있는가를 립증하여 준다.

남조선 청년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소집하고 있는 리승만 도당들은 一九五四년 一〇월 三〇일 소위 『국무회의』에서 괴뢰군 『병역법』 제八조를 개정하여 병역 복무 기간을 一년 이상 연장하는 동시에 놈들은 『병역기피자 자수기간』또는 『군리탈자 포섭기관』 등 상투적 기만 수단을 조작하여 징병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놈들은 一九五四년 十一월 한달 동안을 또다시 소위 『병역 기피자 등록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수자는 용서한다』고 떠벌리면서 강제 징병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청년들을 유도하여 체포 투옥하려 하였으나 생활의 체험에서 놈들의 흉책을 잘 알고 있는 남조선 청년들을 기만할 수는 없었다.

이 기간에도 서울 녀자 의과 대학 천교생과 부산시내 각 공립학교 학생 천원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여 등교를 거부하고 무기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실패한 놈들은 다시 一二월 一〇일 까지로 『병역 기피자 포섭기간』을 연장하고 감언 리설로 위협 공갈을 다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이에 격분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작년 一二월 一二일부터 소위 『병력 기피자 검색 기간』을 설정하고 강제 징병을 거부한 남조선 청년들을 모주리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하여 수색 체포를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 출판물에 의하면 작년 一二월 六일 괴뢰 『치안국』 소위 병사관은 『이 이상 자수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전국적으로 가두 검문은 물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검거 직후 석방된자는 입대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떠벌림으로써 놈들의 범죄적 정책의 악랄성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흉악한 『대포밥』조달 계획은 매 걸음마다 파탄되고 있다.

오늘 기아와 죽엄의 생 지옥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전쟁 정책과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날로 처참해 질수록 북반부 인민들의 전후 복구 건설에서의 빛나는 창조적 로력 투쟁 성과와 행복한 생활 모습을 동경과 희망의 눈으로 바라 보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미제와 리승만 매국 도당들의 침략 정책과 반 인민적 매국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 국제 농민 청년 대회

조선 청년 대표

김 현 일




* 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콩크리스동지가 개회사를 한다

국제 농민 청년 대회는 一九五四년 一二월 九일부터 一五일까지 기간에 오지리 수도 윈나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六九개국 농민 청년 대표 三백 六〇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열리였던 국제 농민 청년 대회는 각국의 농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민 청년들의 생활 처지를 개선하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서와 평화를 유지 공고화 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호상 경험을 교환하며 공통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공동적으로 강구한 세계 농민 청년들의 최초의 회의였다.

회의는 윈나의 유명한 슈베르트 연주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농민 청년들의 처지 및 요구와 훌륭한 생활을 위한 투쟁』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의정에 관한 보고를 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태리 대표 콩크리스가 하였다. 콩크리스는 세계 농민 청년 대회를 지지하여 대회 준비 기간에 불란서, 이태리 등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 청년들이 자기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첫째 조건인 평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한 사실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 모인 매개 대표들은 지난 투쟁 과정에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인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공동적 희망이 우리를 결속한다. 우리들의 주장은 정당하며 이것은 다만 농민 청년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훌륭히 살것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주장한다』라고 하였다.

보고자는 계속하여 식민지 및 예속국가 농민청년들의 처참한 생활 형편에 대

하여『농민 청년들은 휴식을 모르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기쁨을 모른다』라고 하였다. 보고에 언급된 몇가지 실례를 언급한다면 부라질에서는 一〇〇만 이상의 농민들이 땅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 농업 로동자의 하루 임금은 一―一·五루삐인바 점심 두끼 값은 一·五루삐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학령 아동의 九〇·三%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란에는 三七개 농촌에 평균 一개의 학교가 있을 뿐이며 희랍 인구의 四五%는 문맹자이다.

보고자는 식민지 및 예속 국가 농민 청년들의 이와같은 비참한 생활 형편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부르조아 학자들이 『증명』하는―지구상에 인구 과잉의 결과 매일 八만명의 새로운 인구가 량곡을 요구하기때문이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소수 착취자들이 전쟁을 준비하며 국제 관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악하며 호상 원조와 친선적 경제 교류를 파괴하는데 있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자는 계속하여 일본에서와 이태리, 불란서, 기타 식민지 여러나라 농민청년들이 생활 처지를 개선하며 평화를 위하여 자국의 반동 정부와 외국 무력 간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하고 있는 제 성과와 투쟁 모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끝으로『단결은 우리들의 승리의 중요한 열쇠의 하나이다. 강하게 단결하며 곤난 앞에서 견결히 투쟁하며 승리하자!』고 호소하였다.

보고가 있은후 제二일부터는 토론에 들어갔는데 회의 기간 六〇개국을 대표하여 六四명의 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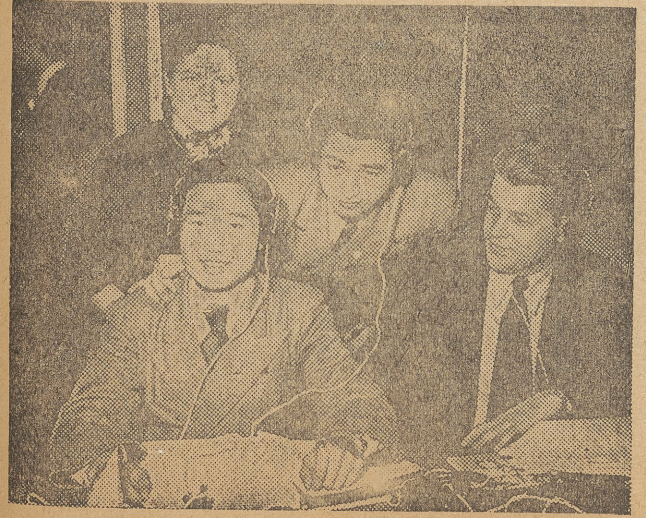
이란 대표는 자기 토론에서 이란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반 식민지 국가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란의 많은 청년들은 령주들에 의하여 토지에서 축출되여 걸식과 방탕생활을 하고 있다. 이란 청년들은 이러한 불행을 반대하여 청년들의 단결된 투쟁으로써 미제와 국내 악당들의 발악적 음모를 분쇄하고 자기들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파키스탄 청년대표는 토론에서 청년들의 무권리와 암흑과 지배 계급들의 혹독한 착취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오늘 파키스탄에서는 인간 매매가 진행되는바 녀자는 三〇―四〇시링크에 팔리워 다니며 七〇―八〇%의 청년들이 기차와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결과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 토론에 뒤이여 아프리카 청년 대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처지도 이와같다는 것을 말하고 제국주의자들을 한없이 증오하며 그들과의 투쟁에 자기들의 조직된 단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식민지 예속 국가 청년대표들의 토론들에서는 평화와 자기의 민족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의 귀중한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 보고를 듣고있는 조선 청년 대표들



불란서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 대표들도 토론에 참가하였다.

불란서 대표가 월남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경험과 앞으로도 월남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에는 단연코 불란서 청년들은 동원되지않을 것이라는 것을 토론하였을때 월남 청년 대표 리 게 후는 그를 포옹하였다.

토론자들은 국제 분쟁 문제는 반드시 담판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평화와 친선의 구호는 회의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사였으며 문화와 체육이 호상 친선 속에 교환될 것을 열렬히 희망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쏘련의 공명 정당한 평화 애호 정책에 대하여 충심으로부터 사의를 표시했으며 그를 지지하였다.

쏘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청년 대표들의 토론은 전체 회의 참가자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고무를 주었다.

조선 대표는 회의 제三일에 토론 하였다.

조선 대표가 등단하자 회의 참가자들의 박수는 그칠줄 몰랐다. 조선 대표가 남반부 청년들의 비참한 생활 형편을 이야기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전후 복구 건설의 웅대한 계획과 찬란한 성과들을 말하면서 이 행복한 모든 시설들이 남반부 형제들에게도 리용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을때 회의 참가자들은 박수와 구호로써 환영하였다.

조선 대표단은 회의 전 기간을 통하여 각국 대표들로부터 열렬한 축하를 받았다.

국제 농민 청년 대회는 전 세계의 농민 청년들을 그들의 생활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투쟁에 단합시키며 사업과 투쟁에서 얻은 경험을 교환하도록 그들을 도우며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며 평화의 수호와 행복한 생활을 위한 투쟁에 그들을 단합시키는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농민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헌장』을 채택하였다. 회의 마지막에 一三七명으로 조직된 오지리 청년 합창단이 세계 민청가를 불렀다. 세계 민청가,『평화, 평화, 평화 만세』등 노래와 만세 소리로서 회장은 떠나갈듯하였으며 흰 꽃 쌀이 함박눈 나리듯 장내를 뒤 덮었다.

회의 기간에 오지리 근로자들이 세계 농민 청년 대회를 경축하는 환영 연주회가 있었다.

연주회는 영국 관리지인 베르트 연주관에서 진행되였다. 연주관에는 회의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四、〇〇〇여명의 농민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연주회 석상에서 오지리 청년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세계 농민 청년 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세계 농민 청년 대회의 성공을 축하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만회가 시작되였다. 만회는 평화를 념원하는 전 세계 남녀 농민 청년들의 명절이였으며 오지리 원나―영국 관리지에서는 이런 국제적 회의가 아니면 보지못할 젊은이들의 명절의 밤이였다.

연주관의 이방 저방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친선 좌담이 벌어졌다.

좌담에서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평화를 끝까지 쟁취하고야 말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이와같이 세계 농민 청년들의 투쟁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세계 농민 청년 대회는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자기 사업을 결속하였다.

세계 농민 청년 대회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및 반 식민지 여러 나라 농민 청년들의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고무하였으며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전 세계 농민 청년들 간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기여로 되였다.




# 선진농민과 우량종자

림 휘 증

전후 우리나라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에 관한 전후적 과업들을 제시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에는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우량 종자를 급속히 보급시켜야 할 것을 가장 긴급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아는바와같이 우량 종자를 선택 파종하는 것은 농작물의 정당 수확고를 제고함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선진 농업 과학들은 우량 종자는 퇴화한 재래종 보다 二〇—三〇%이상씩의 수확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선진 모범 농민들은 모두가 우량 종자를 선택 파종함으로써 정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함북도 회령군 인계리의 모범 농민이며 영예의 로력 훈장 수훈자인 박룡산 농민은 랭한 지대에서의 벼 다수확 농민으로서 이름이 높다. 박룡산 농민이 랭해를 극복하고 해마다의 벼 농사에서 다수확을 쟁취하게 된 것은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선진 영농 방법을 적극 도입한 거기에도 있지만 그보다도 랭해에 강한 우량 종자를 파종한데 결정적 원인이 있었다.

그는 一九五一년에 종전까지 심어오던 퇴화한 소전대 五호 벼를 버리고 수확이 많은 우량종 원야 二호 벼를 심게 되였다. 이리하여 그는 이해 가을에 함북도 지방에서 최고로 가는 정당 一〇톤 三五〇키로그람의 벼를 거두었는바 이는 소전대 五호벼를 심어 가꾸던 례년에 비하여 실로 三四二%에 달하는 놀라운 다수확이다. 그후 박룡산 농민은 실제 영농 과정을 통하여 원야 二호벼가 우량종자이기는 하지만 랭해에 대한 저항력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룡산 농민은 一九五四년 봄에 원야 二호 벼를 버리고 이보다 랭해에 강한 대야종 벼를 심었다. 그리하여 혹심한 랭해와 상해로 하여 원야二호벼를 심은 농민들은 모두 미숙으로 무수확지를 내였지만 그는 대야종 벼로 평년작의 四〇%에 해당한 벼를 거두게 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육성 三호 우량종 밀을 심어 정당 九·一톤을 거둔 평남도 룡강군 림근상 농민과 마치종 옥수수를 심어 정당 九·一톤씩을 거둔 강원도 창도군 유광렬 농민의 경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농업 협동 조합 위원장이며 영예의 국기 훈장 제一, 二, 三급 수훈자인 평남도 김락희 녀성은 선진 농민들의 모범을 따라 지난해의 농사에 벼는 우량종 중생 은방주, 옥수수는 마치종을 적용하여 재래종을 심어오던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벼는 一四〇%, 옥수수는 三四〇%로 각각 수확고를 높이였다.

이렇듯 농작물의 다수확을 위한 투쟁에서 모범 농민들은 우량 종자의 우월성을 실제적 성과들로써 확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면 우량종자란 어떤것이며 왜 수확이 많은가?

## 우량종자의 의의와 선종 방법

우량 종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방의 기후풍토 조건에 적합하며 좋은 환경에서 자리워 다수확한 알이 굵고 무거우며 병 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은 충실한 종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특점들을 갖춘 우량 종자는 왜 다수확 할 수 있는가? 아는 바와 같이 종자는 새로운 식물을 창조하는 모체이다.

종자의 겹질안에는 새싹으로 자라나는 눈(배아)과 또한 새싹이 완전한 뿌리를 내리여 그 뿌리를 통하여 필요한 영양 물질을 완전히 섭취하기 까지에 새싹에게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영양물질(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분으로 된 배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여 있다.

그러므로 배유가 클수록 배아로 부터 돋아난 새싹은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욱 튼튼하고 왕성하게 자라게된다. 바로 종자가 굵고 무겁다는 것은 새싹이 공급해야 할 영양 물질인 배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학은 벼종자에 있어서 二〇미리그람 무



게의 벼알보다 二五미리그람 무게의 벼종자를 골라 심는다면 五八%나 더많은 수확을 거두며 감자 눈을 크게 떠 심을수록 유리한바 이는 一九—三〇%나 수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바로 우량 종자가 다수확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벼와 밭곡식 종자들은 모두 각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즉 같은 벼 종자라고 하여도 중생 은방주는 조생대야보다 그 성숙기가 一四일간이나 늦으며 륙우 一三二호는 애국 二〇호 보다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또한 진경조생은 은구五五호보다 랭해에 강하며 적신력은 평북四호보다 가물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밭곡식 종자들도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량 종자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지방의 구체적인 기후 풍토 조건에 적합한 종자—랭한 지방에는 랭해에 강한 조숙종을, 천수답에는 가물이 강한 종자 등을 골라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논 밭에 二모작과 간혼작을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조숙종 밀, 보리, 콩등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종자들은 반드시 가을철에 포전에서 직접 채종할 것인바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확 농민들, 국영 농장과 채종 농장들에서 생산한 우량 종자들을 교환 확보할 것이다.

그런데 우량종자의 특질은 결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생육 과정에서 받는 외계의 환경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이것은 바로 우량 종자라고 하여도 계속 재배하는 과정에서 외계의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으로, 하여 점차 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 방법은 곧 종자의 처리와 소독인것이다. 왜냐하면 우량 종자 가운데는 미숙된 것과 쭉정알도 있을 수 있으며 각종 병균이 종자 겹질에 붙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종전에 제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종자의 처리와 소독이 필요한 것이다.

## 종자의 처리와 소독 방법

종자의 처리에는 발아시험, 공기 온열난종처리, 야로비자찌야, 염수선등 방법이 있고 소독으로는 약제를 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파종전에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발아 시험의 목적은 죽은 알을 제하고 발아력이 강한 종자를 골라 심는데 있다. 그 방법은 접시나 깡통을 리용하여 간단히 할 수 있다.

발아시험을 시작한지 첫三일만에 싹이 튼 종자알 수의 비률을 발아력이라고 하며 七—一〇일 후에 싹튼 알수의 비률을 발아률이라고 한다. 시험을 통하여 모두 九〇—一〇〇%의 발아력과 발아률을 가진 종자를 골라 파종할 것이다.

공기 온열 난종 처리는 싹을 빨리 트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 봄철에 찬 바람이 덜 드는 마루바닥이나 마당에 멍석을 깔고 우량 종자를 고루게 펴 놓고 뒤지면서 약 五—六일에 걸쳐 따뜻한 해볕을 쬐여 준다.

이렇게 하여 심으면 一五—三〇%를 더 수확할수 있다.

야로비자찌야는 밀, 보리 종자와 마령서 종자에 실시하여 그의 발아, 생육과, 성숙을 촉진하여 그의 수확고를 높이는 방법이다.

마령서 종자의 야로비자찌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파종하기 약 三五일전에 온돌방이나 허청간에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밑바닥에 한치정도의 흙을 편다.

흙위에 통감자 알을 겹싸이지 않게 고루게 놓고 모래를 덮은 다음 그 위에 감자싹이 틀 때까지 거제기를 덮는다.

그후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관수한다. 이렇게 하면 약 一〇일후 부터 싹트기 시작하며 一五일 후에는 돋아난 싹들이 약 三푼가량 자란다. 이때부터 약 二〇여일간에 걸쳐 돋아난 싹에 해볕을 쬐여준다. 이렇게 자래운 감자싹을 밭에 옮겨 심으면 랭해를 이겨내고 왕성하게 자라서 수확을 높인다.

염수선은 굵고 무거운 알을 고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각종 종곡을 염수선하여 파종하면 수확고가 현저히 높아지는바 밀, 보리는 염수선하지 않고 심을때보다 거의 一二—二六%나 수확이 증가된다.

현재 가장 광범히 실시되고 있는 벼 종자의 호르마링 소독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것이다. 벼 종자의 호르마링 소독은 벼 농사에서 가장 심한 도열병과 황재병을 박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벼 종자를 염수선 한후 二일간을 침종하였다가 이를 건져서 물을 찌우고 五〇배의 호르마링 약수에 三일 동안을 담아둔다. 시간이 경과하면 즉시로 건져서 물에 씻어 다시 五일간 침종하였다가 모판에 락종한다.

# 젊은 세대들의 교양을 위한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

윤 세 평

경애하는 수령과 당의 직접적인 교시를 받들어 최근 우리들의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의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비상히 앙양되였으며 특히 고전적 문학 작품들의 출판은 광범한 독자 층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들은 그의 풍부한 인민성과 높은 예술성으로 특출할 뿐만 아니라 남달리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벌써 기원전 수세기부터 예술적 생산을 남겨 주었으며 三국 시대에는 건국 신화 전설을 비롯한 풍부한 설화 문학과 신라 『향가』와 같은 우수한 가요 문학을 내놓았다。

특히 기원 전후에 수입된 『한문자』에 의하여 일찌기부터 서사 문학이 출현하였으며 『한문자』의 음과 새김을 빌어 우리 말을 표기한 『향찰』, 『리두』의 창안은 조선 문학 발전에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같은 『향찰』, 『리두』 문자에 의하여 신라 『향가』는 그의 우수한 면모를 오늘까지 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문학에 있어서도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설총, 최치원과 같은 대문학자를 내였다。

그러나 우리의 고대 문학을 다채롭게 빛내고 있는 것은 一二—一三세기에 편찬된 김부식의 『三국사기』와 일련의 『三국유사』이니 실로 『三국사기』와 『三국 유사』야말로 우리 고대 문학의 보물고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 시기는 『한문자』에 의한 문학의 일층의 성행을 보았던 것이나 또한 고려 가요는 우리 중세 문학의 정화라고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정시를 남겨 주었으며 시조와 같은 정형시 형식이 이미 一三세기 경에 출현한 것도 대서 특필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모국어에 의한 시가는 아직도 한문자를 빌려 『향찰』, 『리두』로 표기된 외에 한문으로 번역하여 서사된 구차한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자기의 고유한 민족 문자가 없는 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구전의 령역에 머물려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종을 비롯한 저명한 학자들의 창제에 의하여 一四四六년 반포를 보게 된 력사적인 『훈민 정음』의 출현은 조선 문학 뿐만 아니라 조선 민족 문학 발전에 기념비적인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여기에 우리의 국어 문학은 『훈민 정음』의 창제를 계기로 획기적인 발족을 보게 되였으니 시조, 가사 등의 국문 시가는 중세기 우리 시가의 대표적 형식으로 되였으며 시조에 황진이, 윤선도, 김천택, 김수장, 가사에 정철, 박인로와 같은 탁월한 시인을 배출시켰다。



또한 『훈민 정음』의 보급에 따라 一七세기 이후 일반 서민 계층의 진출과 아울러 소설 문학의 대두를 보게 되였으니 임진 조국 전쟁의 민족 서사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록』을 비롯하여 김만중의 『구운몽』, 『사씨남정기』와 같은 고전적 작품이 산출되였으며 一八세기에 들어 와서는 『로끼전』, 『장끼전』, 『콩쥐 팥쥐』, 『장화홍련전』,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기타 우리들의 대표적인 민족 설화를 소설화한 탁월한 고전적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一八세기는 리조 봉건 국가의 계급적 갈등이 첨예화하고 인민 대중의 반봉건적 해방 투쟁이 격양된 시기로 특징지어지며 따라서 조선 문학사에 있어서는 이같은 력사적 현실을 반영하여 사실주의적 문학의 개화로 빛나고 있다。

특히 관념론적 빈말공무니로써 리조 봉건 통치의 온갖 부패상을 감싸고 있던 유교의 형식주의를 반대하여 인민의 복리와 조국의 부강을 위한 실제적 학문을 주장하여 나선 『실학 사상』의 진출에 따라 연암, 박지원과 같은 사실주의적 풍자 문학의 대가를 배출시켰다。

그리하여 이상과 같은 우리 문학의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전통은 현대의 진보적 문학에 계승되였으며 그것은 오늘의 우리 세대를 교양함에 있어서 고전적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민족적 긍지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제 이같은 고전적 작품들로서 一九五四년에 출판된 것을 들어 본다면 『신라 향가』, 『고려 가요』, 시조집 『청구 영언』 『홍길동전』, 『전우치전』, 『장화 홍련전』,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연암 작품 선집』 그리고 『조선 구전 민요선집』, 『조선 속담집』 기타인바 이 출판물들은 물론 방대한 우리의 고전적 유산에 비춰 볼때 아직도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며 『三국 사기』, 『三국 유사』를 비롯하여 우리의 귀중한 문화 재보들이 계속 출판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날로 높아가는 독자들의 요구성과 그 수준에 수응하여 더욱 많은 고전 작품들을 출판 보급시키는 과업도 중요하나 또한 이미 출판된 고전 작품들을 옳게 리해시키고 침투시키는 과업이 주요하게 나서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의 二〇세 전후의 젊은 세대들은 자기의 민족적 고전 문학 작품들에 거의 접촉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자라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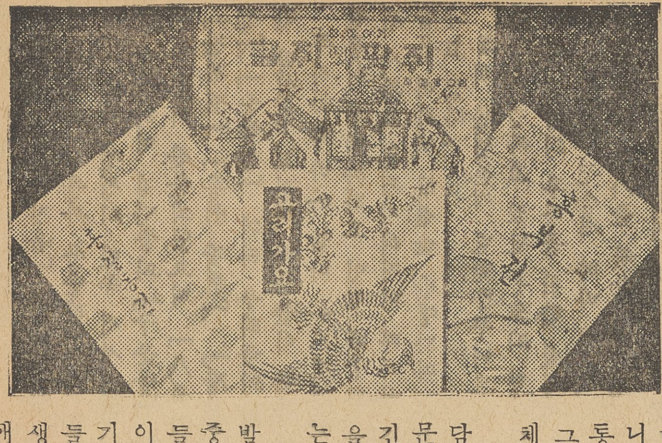
장기간에 걸친 일제 강점과 함께 놈들의 식민지적 노예 교육과 팟쇼적인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의 대부분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유산들을 모르고 자랐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나 특히 二〇세 전후의 젊은 세대들은 해방 후에 비로소 자기 모국어를 찾은 것과 같이 해방 후 처음으로 자기의 민족 문화 유산에 접촉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들이 보다 생소하며 리해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금번 출판된 고전 작품들에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련의 해제와 주석들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 층으로부터 리해하기 어렵다는 반영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그것은 주로 젊은 독자층의 목소리인 것이다。

여기에 이 같은 독자들의 요구에 수응하기 위하여 보다 친절한 해제와 주해 뿐만 아니라 현대화한 개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로서 료해하여야 할 몇가지 기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들이 어렵다는 선입관념을 없애버리는 문제이다。 우리는 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전통과 풍습에 생소하기 때문에 일련의 고전적 작품들을 리해하는 데 힘든다

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전문학 작품 자체가 일괄적으로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그의 실례로서『춘향전』이나『심청전』같은 것은 고전 작품들 가운데서도 고어나 난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나 아무런 주석조차도 없이 이제까지 농촌의 사랑방들에서나 부인네들의 안방에서 훌륭히 읽혀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소위『서당 풍월』에 물젖은 영향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춘향전이나 심청전에 형상화된 내용들이 우리들의 민족적 전통과 인민들의 생활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러한 전통과 풍습에 친숙하였으며 그러한 감정을 생활적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적 작품들에 담긴『고사』나『난구』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에 담긴 민족적 전통과 생활 감정을 포착하고 포착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문화 유산의 광범한 발양과 계승을 위하여 초급중학교로부터 고전적 작품들을 교재로 취급하고 있다。이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초기에 있어서는 배우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에게 있어서도 적지 않은 애로가 있으리라는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며 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의 고유한 민족적 전통과 생활 감정을 함양시킴으로써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선진 국가의 실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려서부터 회화、조각、음악、영화、연극、기타 가능한 온갖 예술 형식을 빌리여 아동들에게 민족적 고전 작품들을 친숙하게 하며 이와 병행시켜서 언어의 예술인 문학 작품을 직접 읽히우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고전 작품들이 어렵다는 선입주견을 버려야 할 것이며 거기에서 부닥치는『고사』나『난구』들에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의 고전적 작품들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처하여 있었던 구체적 력사적 조건을 리해하지 못하는데로부터 우리의 고전적 문학 유산들을 더무니없이 비하하려는 경향이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도 옳지 못한 근성을 뿌리 뽑지 못한 일부 편견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민족적 고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비하하는 경향까지 보게 되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고전적 문학 유산에 대한 리해가 전혀 없다는데 연유한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옛말이나 노래도 남의 것은 좋고 자기 것은 다 못쓰겠다고 하는 현상들』을 통절하게 지적하시면서『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에 대한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현상들과 앞으로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은 다 좋고 자기 것은 다 못쓰겠다는 옳지 못한 근성은 아직도 뿌리채 뽑히지 않았으니 그것은 남의 것을 소개할 때에는 형용사가 모자랄 정도로 찬사를 올리면서도 자기 것을 내세



우고 자랑할 경우에 있어서도『위대』라든가 기타의 문구를 쓰는데는 이를 주저하는 일부의 현상들에서 간취할 수 있다。그것은『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바로 낡은 잔재의 발로인 것이다。자기가 자기의 것을 내세우고 자랑할 줄 모르는데 남이 그것을 평가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그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이와 같은 낡은 잔재의 영향에서가 아니라 우리 고전 작품들에 대한 몰리해에서 온 것이다。그들은 첩경 선진 국가의 고전 작가들의 작품과 대비하여 우리의 고전 작품들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중세기적 형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문학과의 기계적인 대비부터 옳지 않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전들을 그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에서 파악함이 없이는 결코 옳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고전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질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뒤늦은 조건 하에서 一九세기 전반까지도 자연 경제가 지배하고 따라서 중세기적 사유의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또한 서구 문학에 있어서와 같이 뚜렷한 작가와 문학 사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그러나 우리의 고전적 작품들은 역시 우리의 고유한 력사적 전통으로서 빛나고 있으니 중세기적 껍질을 쓴 가운데서도 인민들의 생활 감정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드러난 작가는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은 오히려 인민들의 집체적 창작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인민성이 한층 풍부하며 민족적 특성이 한층 드러나고 있다

일찌기 므·고리끼는 이러한 종류의 작품 즉『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는 예술』을『민족적인 예술』로 불렀으며 또한 그 주인공들은『여러 사회 집단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추상하여 그것을 한사람의 인격 가운데 구체화시키고 일반화시킨』인물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고전적 작품들은 대부분이 이 같은『민족적인 예술』작품으로서 그의 특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주인공들은 전체 인민들과 친숙되고 전체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따라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고전 작품들의 중세기적 성격 때문에 가지게 되는 거리감보다도 그의 민족적 특성에서 오는 친근감을 앞장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특징적으로 담고 있는 인민들의 해방적 지향과 고상한 인도주의적 사상을 높이 평가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상과 같은 몇가지 편향들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우리의 고전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을 들어 거기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배울 것인가를 밝히기로 한다。

경애하는 수령께서 일찌기 작가 예술가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민요、음악、무용 등 각부면에서 우리 민족이 고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성을 보전함과 아울러 새로운 생활이 요청하는 새로운 리즘、새로운 선률、새로운 률동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문화 유산에 대한 비판적 계승 문제를 구체적으로 교시하였다。

이것은 문화 유산에 대한 계승성과 혁신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것으로서 우리의 고전적 작품들에 대하여서도 응당 이 교시를 강령적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교시를 옳바르게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 작품들을 맑쓰주의적 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력량을 길러야 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 우리들은 레닌의 똘쓰또이 작품에 대한 리론적 분석과 작품 평가의 방법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레닌은 첫째로 시대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계급 투쟁의 성격、계급들의 역할과 지위、그들의 리해 관계에 대한 해명이 작가 및 작품을 연구하는 첫 모멘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므로 례를 들어 우리의 『춘향전』 작품에 있어서도 리조 봉건 사회의 붕괴 과정과 그것이 빚어낸 제 계급들간의 동향들이 이 작품 인물들의 모든 특이점을 낳게 하였는바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이 없이는 『춘향전』을 옳게 리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레닌은 계급들 간의 모순과 투쟁의 반영으로써 작가나 작품이 보여준 사상적 내용의 해명을 작품 분석의 둘째 모멘트로 삼았는바 특히 레닌은 『현대 로동 운동의 견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전제하고서 작가가 처하였던 시대와 그 특수성들에 대하여 깊은 고려를 돌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레닌은 문학 작품에 있어서 작가의 계급적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반영하고 있는 내용 여하가 문제이라는 것을 실증하기 위하여 귀족 계급의 출신인 똘쓰또이가 농민의 립장으로 이행한 실례를 들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실례를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이나 『허생전』의 작가 박연암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바 우리의 위대한 문호인 박연암은 그가 량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은 처음부터 량반과 유학자들을 반대하는 진보적 문학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홍길동전』이나 박연암의 작품들은 오늘의 견지에서도 그의 반봉건적 해방 투쟁의 내용으로 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나 그 작가들이 처한 시대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그들의 작품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의 선진적 의의를 더욱 뚜렷이 인식하게 된다。

마감으로 레닌은 사회적 력량들의 투쟁에 있어서 작가들의 위치의 결정、그의 작품들의 사회적 기능과 그의 창작들의 사회적 의의 등에 대한 평가를 작품 분석의 세째 모멘트로 삼고 있는바 그는 똘쓰또이의 이러 저러한 모순된 성격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끝에 똘쓰또이가 가지는 위대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실지 우리의 고전적 작품들에 있어서도 작가가 가지는 제약성이라든가 작품 가운데 이러 저러한 모순된 성격들에 대하게 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레닌이 똘쓰또이에 대하여 한 것처럼 미화도 하지 말고 약화도 하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약점도 장점도 함께 들추어 내야할 것이나 그 작품의 부분적인 부정면 때문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 인민적 의의를 평가하는 데 주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의 실례로써 『춘향전』、『심청전』、『흥부전』을 비롯하여 박연암의 작품들에도 시대적 이데올로기적 제약성과 기타의 원인들로 말미암아 비판되여야 할 요소들이 없지 않으나 그것까지도 포괄하여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력사적 의의는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같은 레닌적 작품 분석의 원칙 우에서 우리의 고전들에 대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나 끝으로 강조할 것은 모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들이 처한 특수한 처지에 비추어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고전적 문화 재보들을 전 인민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 술어해설

## 실질 임금

실질 임금이란 것은 로동의 대가로서 로동자、기술자 및 사무원들이 받는 화폐로써 표현된 량으로만 계산하는 『명목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화폐를 가지고 그들의 일용 필수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즉 열마마한 가치의 실제적 생활 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임금의 실질적 내용을 『실질 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례를 들어 로동자 기술자 및 사무원들이 받는 『명목 임금』이 몇%향상되였다 하여도 (화폐의 량이 증가하였다) 생활 필수품 가격이 그와 정비례로 훨씬 인상되면 『실질 임금』은 그와 반대로 저하되는 것이며、또한 『명목 임금』(화폐로 받는 량)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생활 필수품 가격이 저하되면 『실질 임금』은 향상된 것으로 된다。

자본주의적 조건하에서는 로동자 기술자 및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이 부단히 저하의 일로를 걷는 것이 특징적인 경향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활 필수품 가격은 점점 등귀되여가고 있으나 로동자들의 임금은 제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와 우리 나라들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서는 로동자 기술자 및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부단히 제고되여 가면서 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부의 증대에 따라 로임의 규모가 날로 증대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전후 세차례에 걸친 국정 가격 (생활 필수품)이 대폭적으로 인하되고 로임은 정전후 二〇—五〇%까지 인상되고 특히 一九五四년 一一월에는 전체 공화국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五〇—一〇〇%의 상금을 받음으로써 『실질 임금』은 더욱 더 증대된 것으로 된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나라에서는 물질적 부의 장성에 따라 『실질 임금』은 증대될 것이다

## 군사 아따쉐

아따쉐란 말은 불란서어에서 온 말로서 외교관의 관등급을 표시한다。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매개 나라의 대사관과 공사관에는 관원、아따쉐、三등서기관、二등 서기관、一등서기관、참사、공사、대리대사 및 대사등등의 관등급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 아따쉐는 관원다음으로 높은 등급으로서 아따쉐부터 정식 외교관의 자격을 행사한다。

따라서 군사 아따쉐라면 군사적 의무를 담당하고 대사관과 공사관에 파견되여 있는 아따쉐를 말한다。

## 모멘트

모멘트라는 말도 최근 많이 사용되는 외래어인데 그 말의 뜻은 여러가지가 있다。 즉 순간、시기、때、계기、등등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

특히 많이 쓰이는 말로는 계기 순간 이라는 뜻으로 된다。 그 실례로 『그는 항상 중요한 모멘트를 잘 포착하여 절실한 발언을 하였다。 그리하여 중요한 모멘트를 지어 주었다。 현 모멘트에 있어서 여유 량곡을 국가에 판다는 것은 농민들의 애국심의 표현일 것이다』 등등으로 많이 쓰인다。 이 말도 우리 말과 같이 광범히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중의 하나이다。

## 체육과 스포츠

체육이라 함은 우선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전한 체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체의 발육과 건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의 총칭이다。

그리고 스포츠란 말은 경기라는 말이며 체육과는 구별된다。 스포츠란 인간과 인간간에서 진행되는 혹은 인간의 집단(단체)들끼리 호상 승부를 목적으로하여 진행되는 각종 시합의 총칭이다。 때문에 스포츠에는 육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하는 경기도 있다。 륙상 경기、수상 경기、구기(축구、롱구、야구、배구등) 및 등산、장기、바둑、윷、그네등도 다 스포츠에 든다。

체육은 집체적으로 또는 개체적으로 승부를 걸고 할수 있는바

그때에는 벌써 그는 스포츠에 속한다. 때문에 체육과 스포츠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를 통해서 체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육과 스포츠는 호상 불가불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 문학의 쟌르

문학에 있어서 『쟌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문학의 양식을 의미하는 작품 구성조직의 형태를 말한다. 『쟌르』란 말은 불란서어에서 나왔는바 즉 종류란 의미다.

문학작품은 그 내용을 예술적 형식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즉 서사적 방식, 서정적 방식, 그리고 극적 방식이 있다.

서사적 작품은 작가의 외부세계를 묘사하며 생활현상을 최대한도로 완전하게 또한 전폭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묘사한다.

서정적 작품은 작가의 외부 세계를 묘사하기보다도 이러 저러한 사건이나 현상을 작가의 내부적 감정 사상으로 표현한다.

물론 이 내부적 감정 사상은 작가의 협소한 주관이나 감정인 것이 아니라 사실주의적인 서정적 작품에서는 시인의 개성적 주관을 통해서 당시 인간들의 전형적인 감정과 사상을 표현한다.

극 작품은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 사상, 언어에 대해서는 극 작가는 설명하지 않으며 심각한 갈등으로써 관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등장 인물이 직접 자기를 나타낸다.

물론 어떠한 작품이든지 작가의 주관 사상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한 서사적 작품에도 극적 장면이 있는 만큼 이 세가지 방식이 완전히 독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바와 같이 자기들의 특수성으로써 구분된다.

이것을 문학작품들의 쟌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통 쟌르라하면 이 세가지 종류가 다시 갈라져서 서사적 종류에서 단편, 중편, 장편 소설, 요체르끄등으로, 서정적 종류에서 가요, 풍자시등으로 극적 종류에서 희극, 비극, 희곡등으로 분류되는 형태들과 그형태가 다시 세분된 형태들을 말한다.

다시 세분된 형태라 함은 례를 들어 력사 소설, 풍자 소설, 초상 오체르끄, 사건 오체르끄 등이다.

## 드라마

『드라마』라는 말은 극적 작품으로서 비극이나 희극과 달리 복잡하고 심각한 갈등, 등장인물들 간의 긴장된 투쟁을 묘사한 좁은 의미에서의 희곡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종의 문학 형식으로서 실제 관중 앞에서의 연기로써 뵈여줌을 전제로 한다.

본질적으로 보아 드라마가 다른 문학 형식과 다른것은 일종의 종합예술이라는 점이다.

음악, 회화, 조각, 건축 내지 무용등을 포함한 것이 드라마다.

간단히 말하면 극장에서 연출되는 종합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완전한 형식을 갖춘것은 희랍 극이다. 구라파에 있어서는 중세기 말엽에 발생하였으며 처음에는 교회에서 례배의 형식을 취한 『신비극』으로 부터 차차 발전하여 그후 연극에서 일반적인 『드라마』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드라마는 국립 극장에서 상연한 송영 작 『강화도』, 한봉식 작 『탄광마을 사람들』 등이다.

## 오페라

가극이란 말이다. 가극은 一六五〇년대 불란서와 독일에서 악극과 무극을 통합시킨 것으로서 발생하였다. 즉 음악이 주위를 차지하는 일종의 드라마이다. 근대 오페라의 특색 있는 음악적 구성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ㄱ, 레지타티브 (서사시적 연극적 성질을 가진 음악적 랑송)

ㄴ, 아리아(독창) 두엣(二부 합창) 토리오(三부 합창) 와 메로디(각오)—독창, 二부, 三부 합창을 위한 일반적으로 서정적인것—

ㄷ, 코라스(합창곡) 및 연주악곡(이는 연극적 요소가 주위를 차지함)

ㄹ, 현악기 곡—이는 독주곡 및 반주곡을 포함한다. 서곡, 간주곡, 행진곡, 무도곡 등이다.

또한 오페라의 한 형식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의 경중에 따라 그란드 오페라(대 가극)혹은 오페라—따(경가극) 등이 있으며 그밖에 연극적 요소를 다부분이 포함한 코미크 오페라(희가극) 뮤지칼 코메디(음악과 무용을 가진 경희극)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오페라는 국립 예술 극장에서 상연한 리면상 곡 가극 『콩쥐 팟쥐』를 들 수 있다.



## 프로레타리아

프로레타리아란 원어는 라틴어 프로레타리우스에서 온 말인데 본래의 뜻은 자식을 낳는 이외에는 국가에 대하여 하등의 공헌을 주지 못하는 빈곤한 하층민이란 말이였으나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하는 임금 로동자가 생기게 되자 이를 가리켜 프로레타리아라고 하게 되였다.

보통 무산자, 무산 계급을 통털어 막연히 프로레타리아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동에 종사하는 무산자들은 어떤 사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씨여지고 있는 프로레타리아의 정확한 의미는 현대적인 산업 로동자를 말하는 것이다.

현대적 로동자 즉 프로레타리아는 一八세기 후반기 영국에서 발생하였고 산업이 발전하여가는 모든 나라에서 계속 일어난 산업혁명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산업 혁명의 결과 사회 제도가 변화되고 대규모의 기계가 발명됨에 따라 사회의 생산 수단은 소수 자본가들의 수중에 점점 집중되게 되고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로동자들은 하는 수 없이 자본가에게 자기들의 로동력을 팔아서만 생활을 유지하게끔 되여 사회는 자본가와 프로레타리아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와 프로레타리아트와는 구별하여 써야한다. 즉 프로레타리아는 로동력을 과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임금 로동에 종사하는 로동자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프로레타리아트는 그 로동자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다.

## 부르죠아

부르죠아란 말은 본래 불란서어에서 나온 말인데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그 원래의 뜻은 성벽을 둘러싸고 사는 시민을 의미하였다. 그 당시 승려나 귀족 계급에 속하지 않고 또 이에 종속되지 않은 제三 신분을 구성하는 자유민을 말하였다.

이 자유민들은 즉 시민들은 수공업, 상업 등을 발전시켜 현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이루는 토대로 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점차 그의 기초를 확립한 一九세기 중엽부터는 부르죠아란 말은 자본의 리윤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대적 자본가를 말하게 되고 현재는 완전히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 근대적 자본가는 우에서 말한 자유민에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르죠아들의 계급을 가리켜 말할때에는 부르죠아지라고 부른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부르죠아는 근대적 프로레타리아와 같이 자본주의 발전의 한 산물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두 적대 계급은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이다. 부르죠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프로레타리아를 착취 억압함으로써 자기들의 보다 많은 리윤을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 두 계급은 그 본질상 리해 관계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불가피적으로 치렬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 계급 투쟁은 비단 한개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범위로 확대되고 부르죠아적 생산 방법의 여러 모순(공황, 전쟁등)에 의하여 부르죠아지의 지배적 토대는 흔들리게 되며 불피코 부르죠아지는 진보적 혁명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패망의 운명에 빠지고 말게 된다.

부르죠아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는 필연코 온갖 투쟁에서 승리할 것은 지난날 모든 계급 투쟁의 력사가 증시하여 주고 있다.

## 로동생산능률

로동 생산 능률이란 일정한 물건을 만드는데 또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한 로동시간을 소비하는가 즉 얼마만한 로동량을 지출하는가 하는 것을 대비하는데서 나오는 비률을 말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일정한 작업에서 소모된 로동량과 생산품의 결과량의 대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로동 생산 능률이 제고되였다고 말할때에는 일정한 물건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반이 소비하는 로동 시간보다 더 짧은 로동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로동 생산 능률이 제고된다면 동일한 로력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은 일층 장성되고 사회는 부요하여지며 사람들은 더욱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많은 생산을 내여야 하며 생산을 많이 내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의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여야만 한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동시

일광욕은 햇볕에 피부를 쪼이는 단련법인바 이것은 공기욕보다도 피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련시키며 따라서 건강과 피부기능을 더욱 강하게 증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옷을 벗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쪼이려면 공기욕도 겸하여 진행하게 되는 까닭이며 둘째로는 피부가 햇볕에 꺼슬려서 더욱 튼튼해 질뿐만아니라 피하 조직에 있는 물질과 태양광선이 합하여 구루병(뼈가 굳어 지지않는 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디가 체내에 생기게 되는 때문이다.

일광욕은 건조한 장소를 택하여 침상이나 긴 목판자를 햇볕이 잘 쪼이는 곳에 내다 놓고 그우에 누워서 전신의 피부를 고루 햇볕에 쪼여야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햇볕에 머리를 쪼이지 않도록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발을 향하게하고 머리만은 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그늘이 없을때에는 모자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리고 누워야하며 몸을 앞, 뒤, 량옆으로 한차례씩 뒤집으면서 진행하되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오래 쪼일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측면에 一분간씩 쪼여서 四분간에 끝마치고 그렇게 三일간쯤 계속한후에 매측면을 다시 一분간씩 더 연장하여 합계 八분간에 끝마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쪼이는 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 측면을 七분간씩—다시말하면 一회의 일광욕 시간이 최대한도 三〇분까지 할 것이며 그 이상은 연장시키지 말고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시절의 마지막까지 三〇분정도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일광욕을 한 다음에는 땀을 씻는 정도의 목욕을 하되 랭수를 쓰지말고 햇볕에 쪼인 물을 끼얹은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그늘 밑에 가서 약 三〇분가량 조용히 휴식하여야 한다.

물을 리용하는 피부단련법에는 관수욕, 랭수마찰, 수영 또는 축축히 젖은 강변이나 비오는 날 마당과 길을 거닐게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단련법들은 결국 체온보다 낮은 차거운 물에 대한 피부의 저항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추위를 덜 타게 하고 피부병, 감기, 기타 질환들도 예방케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단련적 의의가 가장 큰 것은 랭수마찰이다.

랭수마찰은 대개 아침 세수하기 전에 더운 계절에는 밖에 나가서, 추운때는 방안에서 옷을 벗고 팔, 목, 가슴, 배, 다리, 뒷등의 순서로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부가 붉게 될 정도로 마찰하는것인바 더운 여름 철에는 처음부터 일반 랭수를 사용할 것이며 겨울에는 적어도 실내온도와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三六도 四분이며 옷을 입고 지내기에 적당한 실내온도는 섭씨 二十도내외기 때문에 실내온도 보다 낮은 온도의 물은 벌써 몸에 대단히 차거운 감을 주게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도의 단련이 싸여지면 사뭇 낮은 온도의 랭수도 능히 사용할 수 있다.

피부를 튼튼히 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각종 단련법들에는 인내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단련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과처럼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데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단련이 그렇듯이 피부의 단련법도 낮은데로부터 높은데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하며 도중에 중단하지 않는 지속성이 요구된다.

보건성
위생 선전부

1955년 1월 15일 인쇄
1955년 2월 20일 발행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청년 생활』 1955년 제2호

편집 위원
리홍종(주필) 김득춘 박철복 허석선 신호근 장성준 최만석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ㄱ—30017 값 60원 21,000부



영웅주의와 락관주의의 위대한 학교

